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
인문융합치료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and white design, including the year '1954'. The text 'INHA UNIVERSITY' is written around the perimeter of the seal.

2022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인문융합치료전공)

김진선



문학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
인문융합치료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202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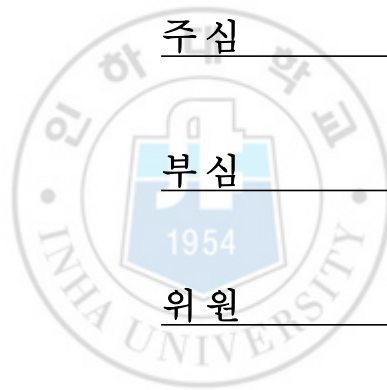
지도교수 김 영 순 · 신 주 연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김진선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2년 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와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징과 그들이 겪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관점의 진로상담과 인문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들의 진로선택이나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인 진로 개입이 필요하다.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 기본요소인 자기서사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인문융합치료는 다양한 치료기법인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연극치료, 음악치료 등을 융합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내러티브로 표현된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자기이해 및 성찰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뿐 아니라 적응적이고 발전적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언어 외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자기서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기이해와 성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 문제 해결은 그들의 맥락과 배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에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개념과 사회정의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힘과 자유를 높이며 개인 내적 구조의 성숙과 환경에의 적응을 통한 상호작용인 구성주의 진로상담과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현장에서의 연구 적용을 수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I시의 G 중학교에서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4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은 사례 내 분석 및 사례 간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첫 번째, 사례 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사례별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기술

하였다.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하며 진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경험하는 진로 관련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미술치료, 영화 및 영상치료, 사진치료, 보드게임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중기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집단에서 형성된 공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다양한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후기단계에서는 다양한 기법의 인문융합치료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관심 있는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며 진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때 각자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각자의 원하는 진로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로를 설계하였다.

두 번째, 사례 간 분석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경험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 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의 5개의 진로상담 영역과 16개의 주요범주로 범주화되었다.

범주화에 따른 참여 경험의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길 그림으로 표현하며 진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에 대해 탐색하며 표현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며 가족에 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해외에 사는 친척들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의 담임선생님인데, 담임선생님을 나무, 나비 등으로 표현하며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던 사건을 자신들의 성공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서로의 장점으로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나 행동 등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낮았던 자아정체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영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낮은 학업성취 능력을 가장 큰 진로장벽 요인으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수학과 과학 영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처방안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하여서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학습태도를 성찰하며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제안하면서,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성장’에 대한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진로 분야를 탐색하며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서로의 미래 소망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보였다.

본 연구의 논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상담에 대해 느끼는 절실함의 원인은 그들의 다문화가정 형성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관한 탐색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 노력도 요구되지만, 사회정치적 발달을 통한 진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데 용이한 인문융합치료는 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분야에 호기심과 흥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다. 이들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설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연구하여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벽 및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미술치료, 영화치료, 음악치료, 사진치료, 인형치료, 동작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기법 융합인 인문융합치료를 통하여 자기에 관한 이야기, 즉 자기서사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에 적용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진로 집단상담으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단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이 연구는 현장 연구인 질적연구방법으로 설계되었기에 프로그램의 적용 및 진행 과정, 연구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이야기 등에 대한 구체적 탐색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로의식의 변화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은 연구참여자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에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v
표 목차	ix
그림목차	xii
부록목차	x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동기	4
3. 연구문제 및 내용	8
4. 연구동향	10
II. 이론적 논의	15
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진로	15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15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20
2. 진로상담과 인문융합치료	24
2.1. 진로상담과 일의 심리학	24
2.2. 인문융합치료	27
2.3.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36
3. 소결	41

Ⅲ. 연구 방법	43
1. 연구개요	43
1.1. 사례연구	43
1.2. 연구절차	46
2. 연구참여자	49
3. 연구 대상 프로그램	54
3.1. 프로그램 개발	54
3.2. 최종 연구프로그램	64
4. 자료수집 및 분석	70
4.1. 자료수집	70
4.2. 자료분석	71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74
Ⅳ.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	76
1. 연구참여자 A: 꿈이 많은 내담자	79
1.1. 초기단계	79
1.2. 중기단계	83
1.3. 후기단계	89
2. 연구참여자 B: 활기찬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내담자	92
2.1. 초기단계	92
2.2. 중기단계	96
2.3. 후기단계	103
3. 연구참여자 C: 남을 돕고 싶은 내담자	106
3.1. 초기단계	106
3.2. 중기단계	110
3.3. 후기단계	117
4. 연구참여자 D: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싶은 내담	120

4.1. 초기단계	120
4.2. 중기단계	124
4.3. 후기단계	130
5. 소결	132

V. 진로 집단상담 참여 경험의 의미 137

1.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140
1.1. 경제적 어려움	140
1.2. 진로정보의 부족	142
1.3.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	143
2.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146
2.1. 자신의 특성 이해	146
2.2.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148
2.3. 세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	151
2.4.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153
3.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156
3.1.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156
3.2.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	158
3.3.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	160
4.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163
4.1.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	163
4.2.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165
4.3.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	167
5.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	171
5.1.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171
5.2.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173
5.3.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	175

6. 소결	181
VI. 결론	187
1. 요약	187
2. 논의 및 제언	194
참고문헌	207
ABSTRACT	223
부록	229



표 목차

<표 1> 학교급별 전체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 중단율	17
<표 2> 유형별 다문화가정 자녀 구분과 특성	18
<표 3> 연구 절차 개요	46
<표 4> 연구참여자	50
<표 5> 프로그램 개발과정	54
<표 6> 프로그램 자문에 참여한 전문상담사의 일반적 사항	57
<표 7> 초기프로그램	60
<표 8> 프로그램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의 일반적 사항	62
<표 9> 전문가집단의 평가분석과 수정 및 보완내용	63
<표 10> 프로그램 구성에 활용된 인문융합치료기법과 참고한 선행연구	65
<표 11> 최종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66
<표 12> 연구참여자의 자기서사	78
<표 13> 연구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82
<표 14>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85
<표 15>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88
<표 16> 연구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91
<표 17> 연구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94

<표 18>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99
<표 19>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102
<표 20> 연구참여자 B의 후기단계	105
<표 21> 연구참여자 C의 초기단계	108
<표 22>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113
<표 23>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116
<표 24> 연구참여자 C의 후기단계	119
<표 25> 연구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122
<표 26>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127
<표 27>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129
<표 28> 연구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131
<표 29> 연구참여자의 자기서사 단계별 특징	132
<표 30> 연구참여자의 주요코드 변화	138
<표 31> 진로 집단상담 참여경험의 의미	139
<표 32> ‘경제적 어려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40
<표 33> ‘진로정보의 부족’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42
<표 34>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43
<표 35> 길 그림과 자기서사	144
<표 36> ‘자신의 특성 이해’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46
<표 37> 자기를 표현한 동물그림과 자기서사	147
<표 38>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49

<표 39> 가계도와 자기서사	150
<표 40> ‘해외에 사는 친척’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52
<표 41>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53
<표 42>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와 자기서사	154
<표 43>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56
<표 44>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58
<표 45>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60
<표 46>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63
<표 47>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	166
<표 48>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68
<표 49> 웅덩이화와 자기서사	169
<표 50>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71
<표 51>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	172
<표 52>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73
<표 53>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176
<표 54> 미래명함과 자기서사	176
<표 55> 진로설계와 자기서사	177

그림 목차

[그림 1]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16
[그림 2] 인문융합치료 모형	35
[그림 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58
[그림 4]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상담 단계	60
[그림 5] 자료 분석 틀	73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동의서	229
<부록 2> 회기별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235
<부록 3>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결과물	243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에서 인문융합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1세기 세계화의 특징은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변화와 개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주 배경 가정에서 출생하여 국내 초, 중, 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0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6,010,014명으로 2019년 대비 2.1% 감소율이 나타난, 반면 2020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율을 보였다(교육부, 2020b).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상급학교로 진학률은 비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낮다. 특히 학업 중단율은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이 0.73%인데 비하여 다문화가정 중학생은 1.3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0.87%, 중학생은 1.34% 그리고 고등학생은 1.92%로 높았다(교육부, 2020b).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학업문제와 진로문제였다(이창호, 송민지, 2013; 양계민 외, 2018).

진로문제는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에 연관된 중요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청소년기의 진로는 미래를 위한 계획과 적절한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는 진로성숙의 과정을 경험한다(노지혜, 문성호, 2019).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

고 사회적인 관계의 확장 등 발달과업을 이행한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역량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선혜연, 김계현, 2008).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불안은 다수의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진로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봉환, 2011).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의 특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역시 불확실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장임숙, 김희재, 2014). Swanson & Woitke(1997)는 진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진로장벽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개인 내면 혹은 주변 환경 속의 사건 및 상황으로 진로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차별과 차이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장벽을 느끼며(김정은, 2020:22; 박진우, 장재룡, 2014), 낮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낸다(김현영, 장석진, 2017; 김혜경, 어윤경, 2021;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과 주변의 편견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 혼란과 그로 인한 자기이해 부족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한 문화적 결핍, 학력 부진 등의 다양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소라, 2019a; 류성창, 2015).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역량 강화 정책 시행을 통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교육 및 진로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2019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 멘토링, 학교급 전환기에 징검다리 과정과 같은 진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는 다문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부, 2019). 하지만 양계민·장윤선·정윤미(2020)는 여전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체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이 주체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최종 희망 교육 수준은 여전히 낮았지만, 이들은 진로 관련 지원에 대하여 높은 욕구를 보였다(김자경, 오혜정, 2021; 양계민 외, 2020).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진로적성 검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로적성 검사에서 기계적인 응답으로 인한 결과는 자신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은 그러한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양계민 외, 2018:312).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의 특별함,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은 그들의 다양한 맥락적 특별함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통합되어 선형적이며 보편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주를 이룬다(김현영, 장석진, 2017). 또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은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실제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지 못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양계민 외, 2018:31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김진선, 김영순, 2020). 특히 상담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청소년기 특성과 언어적 어려움에 착안하여 구성하였다. 즉 기존에 이루어진 인문융합치료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심리, 대인관계 그리고 진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적 의미가 있었다(김진선, 김영순, 2021). 김영순 외(2021)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들의 참여 경험을 통하여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미술-이야기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표현이 어려웠는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인문융합치료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을 탐색하고 이들을 위한 인문융합치료가 활용된 진로집단상담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 연구동기

한부모가족으로 사회의 소수민이었던 연구자는 어릴 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자가 다섯 살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한부모가족이 되었다. 연구자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과 놀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연구자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구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빨리 취업하기를 원했다. 그때 비로소 연구자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어머니가 겪었던 여러 고초를 직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취업의 길보다 학업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한 선생님의 관심 때문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극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때에 연구자가 다니던 교회학교의 한 선생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연구자에게 선물하며 연구자가 계속 원하는 꿈을 꾸며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며 격려해주었다. 그렇게 연구자는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어머니를 설득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학부 때는 미생물학(microbiology)을 전공하면서 세포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생리학 등을 통해 ‘생명’에 대해 배웠다. 연구자는 학문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유지되고 발전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의학적인 생명의 작동원리 등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배웠다. 연구자는 현재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원하던 심리상담사가 되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연구자의 경험은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중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연구자가 처음 다문화가정 학생을 만난 것은 2018년 여름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은 아빠의 부재 시에 몹시 불안을 느끼는 어려움으로 아빠와 함께 상담실을 찾아왔다. 상담

사와 첫 만남에 자신의 엄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엄마가 중국인인 다문화가정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국내 출생 자녀로 한국말에 능숙했고 인지능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길 원하였고, 엄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가 어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은 부모의 이혼 이후 중국인 엄마와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 학생은 방학마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사는 외조부모님 등의 외갓집 식구들과 지내다 왔으며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쉽지 않았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국인 엄마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이 학생은 높은 학습 욕구에 비하여 자신의 효능감을 펼칠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학생과 엄마의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엄마와 자녀 모두가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연구자는 그 이후로도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상담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을에 한 중학교에서 만났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의뢰된 학생들이었다. 연구자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겪는 가족관계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어려움, 청소년 시기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었고 반면 자신이 꿈을 꾸어도 되는 걸까 의심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어느 단기 쉼터에서 만난 인도 가정 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플룻을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 그 학생은 진로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플룻을 연주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플루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청소년상담사 및 임상심리사로 초, 중, 고등학교 현장과 청소년 쉼터, 상담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담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외국인 부모를 만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의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대한 상담사 교육이나 훈련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준비되지 않은 일반 상담사들이 상담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들의 심리 및 진로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물은 제한적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상담사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구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 역시 상담사로 처음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 관련한 연구물들을 탐색했으나 그들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상담 진행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물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중문화 적응,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환경적 어려움 등의 여러 진로장벽으로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담현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청소년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기청소년들은 관련 기관에 의해 상담사에게 의뢰되어 상담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연구자도 청소년들에게 언어적 기법만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했을 때 상담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리적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상담 현장에 보내거나 함께 오는 경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진로상담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들은 상담실을 찾았고 상담사는 그들을 진로상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상담 진행이 어려워졌을 때도 진로상담 의뢰는 계속되었었다. 진로상담은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기에 개인 심리상담과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다양한 치료기법이 융합된 인문융합치료를 진로상담에 활용하였을 때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라포형성이 용이해지며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 및 진로에 대한 고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자기서사를 내러티브로 풀어놓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적응적인 삶이 적응적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장벽의 어려움과 자기이해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고

민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상담을 통해 각자의 자기서사로 풀어내게 하여 현실의 삶을 살아내느라 꿈꾸지 못하는 그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회 일원이 되어 우리 사회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문화상담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상담자들의 긍정적인 발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1 :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얻게 되는 연구참여자들의 미술작품, 회기별 활동 결과물, 한 줄 쓰기 등과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이들의 참여 경험에 대한 자기서사를 초기, 중기, 후기로 기술하고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의 인터뷰 및 참여한 모든 회기에서 얻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문화교육 관점의 진로상담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자의 연구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연구 문제 및 내용과 연구 동향을 기술하고, 연구 동향을 통하여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힐 것이다.

II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및 진로, 그리고 인문융합치료와 다문화교육 관점에서의 진로상담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인문융합치료 활용한 진로상담의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적 조건을 다루는 진로상담 이론과 문화적 이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치료에 효과적인 인문융합치료 이론을 고찰 및 융합하여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의 특징과 연구절차를 살펴보고 연구참여자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연구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개발된 최종 연구프로그램을 기술할 것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IV 장, V 장을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윤리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IRB 승인 과정과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나타낼 것이다.

IV 장은 연구문제 1의 결과로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각 각의 경험을 기술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여 미술 및 사진 작품, 소감문과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변화과정을 분석 기술하고자 한다.

V 장은 연구문제 2의 결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VI 장 결론에서는 IV 장, V 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논의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의의, 한계 및 추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동향

본 연구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인 RISS 등의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등을 키워드로 하여 학위논문 및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 출간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까지 약 10년여간 총 58편의 학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물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진선, 김영순, 2020).

첫째, 2010년부터 2편 정도의 소수의 관련 연구가 발표되다가 2017년 연구가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상담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는 교육, 상담심리,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예술 인문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여성가족부, 2020) 이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2015년 교육부의 진로교육법 시행(교육부, 2015)과 함께 2016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진로지도 및 상담 운영 매뉴얼이 배포(교육부, 2016)되며 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정책 및 시행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의 관심과 요구로 이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관련 연구가 급증하였는데 양계민 외(2018)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와 김현영(2017)의 박사학위 연구 등이 그 중 대표적인 연구이다.

양계민 외(2018)는 2017년 1,269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으로 조사한 패널연구이다. 패널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의식 및 요구현황을 처음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경험하는 진로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단순 진로 체험이 많았다. 연구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을 강조하였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반적 청소년 정책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진로 관련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대상은 국내

출생 초등학생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김현영(2017)은 역시 다문화가정 중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를 언급하며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를 제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그들 부모 출신 국가나 문화적 배경의 구분이 없이 진행된 연구가 많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패널데이터가 다수 활용되었는데(김민선, 2019; 김소라, 2020; 김영미, 현안나, 2020; 김자경, 오혜정, 2021; 김정은, 2020; 김혜경, 어윤경, 2021; 박동진, 김송미, 2021; 성윤희, 장은영, 2020;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에서 2011년부터 조사하여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경험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민예지, 강현아, 2021; 성윤희, 장은영, 2020).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일반화하여 연구하는 것은 그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김지연·이윤희(2019:1221)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배경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구분없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통칭하여 연구하고 있기에 집단의 고유성을 살펴보기는 힘들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의 배경 특성, 또는 성별 등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질적연구도 이루어졌다.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프로그램 효과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우선시된다. 하지만 상담 분야에서의 질적연구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 현상 및 문제를 다루고자 하거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집단 및 소수집단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김영순 외, 2018; Ponterotto, 2005; Sue & Sue, 2008). 또한 김익진(2020)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로부터 도출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개별자로서의 인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프로그램 연구에서도 인간

자체의 개별 특성을 다루는 질적분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질적연구로는 이아라·이주영·손보영(2018)과 전경숙(2020) 등이 있다.

이아라 외(2018)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대상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를 하는 데는 질적연구가 유용하다. 따라서, 다른 영역에 비해 충분히 탐색이 되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경험을 탐색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과정을 파악하면서 각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의 세부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경숙(2020)은 비제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주 후 사회적응과 진로준비 실태 및 한국사회 정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질적연구 방법인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10명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로 진로 관련 변인인 진로발달과 진로태도 및 진로장벽 등이 주로 다루어졌고, 특히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의식을 주제로 한 집단상담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민경(2015)과 김현영·장석진(2017)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민경(2015)은 자기효능감을 진로 및 직업 분야에 적용한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전제하고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역량을 강화하고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진로입문,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진로태도, 진로의사결정, 진로이해 및 확산단계로 구성된 총 8회기로 다문화가정 중학생 16명에게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영역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진로성숙도가 증가되었다

김현영·장석진(2017)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체적인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기 위해 그들의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과 진로장벽 해결을 돕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인식과 부정적 사고, 진로장벽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김현영·장석진, 2017:90).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10회기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영역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진로성숙도가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이중문화적응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기에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진로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은 진로 준비와 선택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일의 가치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진로의식(Nadler & Nadler, 1989)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직업적 자아 주체성의 형성으로 자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다(신혜란, 2013). 즉 진로의식의 발달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진로발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국내연구 동향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진로에 관한 관심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진로 관련 연구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심리치료기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민경(2015)은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예비프로그램에서 직업세계의 이해를 유인물로 활용하여 작업하였는데 최종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동영상으로 수정하여 진로탐색을 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직업관련 영상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특강이나 일회성 직업체험보다 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로역량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영·장석진(2017)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인식과 부정적 사고, 진로장벽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기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및 집중력, 부족한 학습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을 통한 정보 전달이 많았으나 최종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중심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과 참여형 활동으로 보완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집중력,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설명중심의 프로그램 내용은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필요 요구에 따라 다양한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영화치료 등이 융합된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 상담모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한 다문화교육 관점의 진로상담모델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을 통해 진로상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서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체가 융합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내러티브 중심으로 질적분석하여 이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외에 이중문화 적응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기본 치료기법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 기법을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 인문융합치료기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 현실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문화적 배경과 환경으로 구분하여 집단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자료 활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그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진행하여 집단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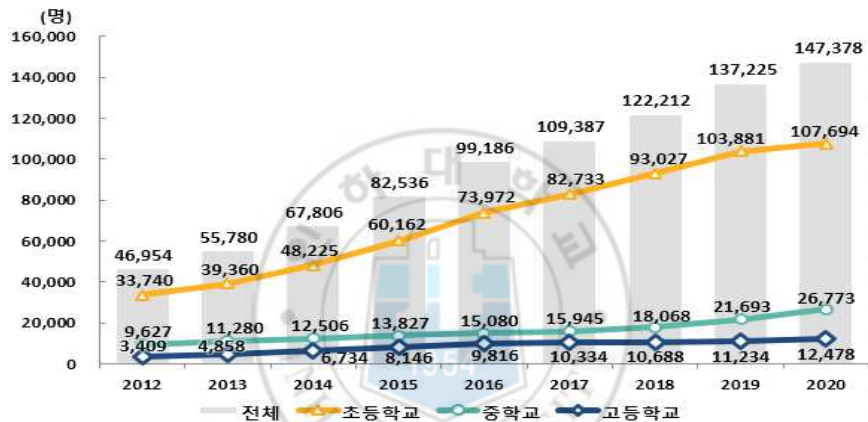
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진로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의 각 부처 및 현장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 및 개념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있다(최효인, 2017).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관련 기관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 만 24세 이하로 정의된다(여성가족부, 2018). 두 번째,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자녀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이다(행정안전부, 2018). 세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교육부(2021)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학생의 출생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구분하고 통칭하는 용어로 명시한다. 교육부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인 가족의 자녀도 포함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정하성·우룡(2007)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생활하는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분

류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 연 19세 미만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 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을 교육부 통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6,010,014명으로 2019년에는 6,136,79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각종 학교를 포함한 초등 및 중, 고등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2020년 기준 147,378명으로 처음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발표했던 2012년(46,954명), 2019년(137,225명)에 비해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2.75%이다(교육부, 2020b)



[그림 1]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출처 : 교육부(2020b)

우리나라 전체의 학생 수는 대부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급별 학생 수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은 113,77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가 24,453명, 그리고 중도 입국 학생이 9,151명 순이다.

[그림 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0.2%, 중학교 0.3%, 고등학교 0.1% 상승하여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재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0b). 이와 같은 결과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곧 고등학생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으로 이주한 여성의 가정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령기 연령에 진입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는 국내 출생 자녀뿐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자녀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나 재외동포 자녀 등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급격한 증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수가 양적으로 높게 증가하는 데 비해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증가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음을 보여 준다. 학교급별 우리나라 전체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교육부, 2020b).

<표 1> 학교급별 전체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 중단율

구분	전체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전체	0.96 (0.51)	0.95 (0.28)
초등학교	0.66 (0.13)	0.87 (0.11)
중학교	0.73 (0.32)	1.34 (0.44)
고등학교	1.62 (1.31)	1.91 (1.35)

※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 중단 (질병, 유학, 해외 출국 제외)
출처 : 교육부(2020b)

<표 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과 유사한 수준이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율(0.28%)은 전체 학생(0.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은 해외 출국 또는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주 배경적 특성으로 유학 또는 해외로 출국에 의한 학업 중단이 높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학교급별에서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은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전체 학생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적응 관련 학업 중단의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중,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여성가족부, 2020)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법무부, 2017)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를 허가받은 자(법무부, 2019a)를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8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국내로 이주한 후 사회에 적응 및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여성가족부, 2021)으로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2016, 2021)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분과 유형별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다문화가정 자녀 구분과 특성

구분		특성	국적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업에 필요한 문장 및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사춘기 진입 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며, 심리 정서 지원 요구함. 	한국
	중도입국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자신의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이거나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기도 함.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공교육 진입과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 발생. 	외국 또는 한국(귀화 시)
외국인가정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불안한 정주 여건으로 학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

출처 : 교육부(2016, 2021)

<표 2>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는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이다. 첫 번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이다. 우선,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양육되고 성장한

자녀로, 언어의 사용은 일반가정 자녀들과 구분되지 않으나 학습적 용어 사용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이 되면서 다문화적 배경에 어려움을 느끼기에 이들에게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중도입국자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자신의 본국에서 데려오거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이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체성 혼란 및 무기력 등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공교육에로의 진입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두 번째 외국인 가정의 자녀이다. 이들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조선족, 고려인, 난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정주 여건에 불안정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한다. 선행연구를 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환경에서 가치관이나 국가관 등의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로 불안정한 생활을 겪을 수 있다(우희정, 2014; 윤지영, 허은정, 2017; 이희정, 2018).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 따른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의 가치관, 정체감 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윤지영, 허은정, 2017; 이지영, 2012; 이희정, 2018).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 문화, 가치관의 차이는 관계 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조윤영, 정현희, 2021:222).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또래 상호 활동은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며 발달하며 다양한 사회적 소통을 통하여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는 적응적 사회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언어능력 부족, 학업능력 부족 등으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같은 경험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원인이 된다(오정아, 2019; 임선아, 2018). 이러한 학교부적응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낮은 학업성취도와 교육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난다(이래혁, 장혜

립, 2018).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식은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이래혁, 장혜림, 2018), 생계비를 수급받는 빈곤 다문화가정 청소년 경우 높은 학교 부적응을 보였다(장덕희, 신호선, 2010).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에는 긍정적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형성 및 발달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이 사회에서 원활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사회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청소년 시기는 자기탐색을 통하여 개인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쉬우며 또래집단에서 친밀감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김소라, 2019b:347). 특히 중, 고등학생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다문화정체성 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이덕희, 2016).

많은 청소년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지만(김성자, 김순미, 이현림,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진로문제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21;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 문제이며 그다음은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15; 이창호, 송민지,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진로문제에 대해 교사들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박진우, 장재홍, 2014). 김소라(2019a)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생활과 가정환경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나타낸다고 하였다.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외모에서의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었고(김소라, 2019a; 박근수, 궤연희, 2013; 박진우, 장재홍, 2014), 외모의 차이는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기현, 2018).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또래집단의 편견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장연주, 신나민, 2015).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부적응은 미래 진로에 대한 장벽인식에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Creed, Patton, & Prideaux,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적성이나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혜경, 어윤경, 2021), 이는 이들이 진로활동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탐색할 기회가 드물고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것(김소라, 2019a)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박근수·곽연희(2013)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구성원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진로탐색(양계민 외, 2016). 및 진로준비(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직업 세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장임숙, 김희재, 2014)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영역의 직업군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이런 특징은 진로불안을 높게 하며 진로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경, 어윤경, 2021).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의 확대, 진로정보에의 접근 강화, 취업지원, 전문적인 진로관련 도움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요구하고 있다(김소라, 2019a).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교수자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김기홍, 이남철, 나현미, 2018). 이에 김기홍 외(2018)는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은 낮은 수준이나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 행

동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오성배, 서덕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며(장임숙, 김희재, 2014),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교육부,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보다 특정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습득에 더 적극성을 나타냈다(김소라, 2020). 하지만 진로준비를 위한 진로 관련 적성 및 흥미 검사 경험 등은 부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 및 상담을 통한 진로탐색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환경 배경으로 인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별을 겪으면서 내적 및 외적인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다(김정은, 2020; 이지은, 2016). 진로장벽을 높게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낮은 진로준비도를 보이며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기이해 및 자신감 부족과 함께 진로 정보 부족과 불확실한 미래예측 등은 진로결정에 불안감을 높인다. 또한 한국 입시제도나 직업에 대한 부족한 정보는 이들의 진로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명형철, 2018).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이해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적극적 진로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지원 중에는 진로상담이 있다. 진로상담은 진로결정에 초점을 두며 예방적 노력, 진로교육 및 지도의 노력, 그리고 실업상담까지 포함하여 확대할 수 있다. 즉 진로상담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일을 준비하고 찾아서 유지하는 과정까지의 다양한 단계에 목적을 둘 수 있으며, 전 단계의 발달적 개입의 총체적인 스펙트럼을 제시할 수 있다(Blustein, 2018:146).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언어만으로 진행되는 진로상담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언어표현력, 언어이해 및 어휘력 이해 등에서 발달이 늦고, 또래관계에서도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회피적이며, 언어적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숙, 권경숙, 2018).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상담을 위해서 언어적 기법 외에 비언어적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서사로 표현하고 진로를 모색하게 하는 인문융합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문융합치

료는 여러 심리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의 서사를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게 하는 기법이다(김진선, 김영순, 2021).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청소년기 특성과 언어적 어려움에 착안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심리, 대인관계 그리고 진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적 의미가 있었다(김진선, 김영순, 2021). 따라서 인문융합치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언어장벽의 어려움과 자기이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진로 고민을 풀어내고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진로상담과 인문융합치료

2.1. 진로상담과 일의 심리학

다문화적 시각은 하나의 독립된 이론이라기보다 모든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상담자의 내, 외적 태도와 행동이다(김봉환 외, 2016:257). 다문화주의적 상담은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4세력(the fourth force, Pederson, 2000)으로 불리며 상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에서 기존 진로상담 이론 적용에 대한 한계를 논의하도록 만들었다.

기존 진로상담 이론은 주로 개인주의, 자율성, 모두에게 개방된 기회구조로 직선적, 점진적, 합리적 진로 발달과정을 전제로 발달하였다(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20세기 초 Parsons(1909)는 특성-요인이론을 개발하였고, 이는 Holland의 개인 환경적 합성 이론으로 발전하였다(Blustein, 2018:55). Holland의 직업 성격유형 이론은 매칭 이론으로 직업 선택 시 개인의 흥미와 직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각 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Holland 이론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Brown, 2000). Holland(1997) 자신도 이 이론이 성, 사회계층, 기타의 다른 중요한 변인들을 포함한 환경적인 관련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20세기 중반에는 진로에 발달이론을 접목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개인의 흥미와 열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y)이 있다. Super의 전생애 발달이론은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의 5단계 대순환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발달과정을 설명하며 직접적으로 자아개념발달과 실행과정을 보여 준다.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진로성숙이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맡겨진 진로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도를 말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진로

성숙도는 진로의사결정 준비도와 관련이 있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이전까지 직업 중심이던 진로이론을 진로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김영숙, 2020:26).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Super 이론이 발달심리학 이론의 발전에 따른 맥락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lustein, 2018:60). 특히 Super의 전 생애적 관점은 한 개인의 전체성이 기능하는 방식과 각 변인 간의 관계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관점에 근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봉환 외, 2016). 또한 소수인종과 민족의 경우 그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 즉, 사회적 지위, 차별, 경제적 어려움이 Super의 자아개념보다 진로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개념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채향화, 2020).

이와 같이 전통적 진로상담이론들은 개인주의, 자율성, 모두에게 개방된 기회 구조에서 직선적, 점진적, 합리적 진로발달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문화적 시각으로 볼 때 기존 진로이론들을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개방되지도 않고 진로발달과정도 누구에게나 직선적, 점진적, 합리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김봉환 외, 2016:210).

따라서 다양한 문화집단 간 차이에 민감한 진로상담 이론들이 개발되었고 그 중 개별인종과 민족 집단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주목받는 이론이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Lent, Brown, & Hackett, 1994)이다. SCCT는 사회적 소수자였던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된 이론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대안을 폭넓게 설정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려 하였다(김봉환 외, 2016:212). 즉, 성이나 인종, 그리고 사회계층과 같이 태생적으로 결정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인구학적 특성은 개인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의 환경 변인이 진로탐색과 계획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한 이론이 SCCT이다(김봉환 외, 2016:261; Blustein, 2018:63). Lent 외(1994)는 특히 진로장벽과 관계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내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기대를 촉진하여 어떻게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 개인의 내부적인 인지과정이 개인의 외부적인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진로선

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SSCT의 핵심이다. 장벽에 관한 관심은 중요한 이론적 발전이었고 그 결과 맥락적 장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CCT는 과거와 현재의 맥락적 변인에 주목하여 개인 요인들(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과 환경 요인들(지원과 장벽, 배경적 행동 유도성)간의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이론들과 차별성이 있다(Blustein, 2018).

최근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Duffy et al., 2016)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PWT는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 및 맥락 변인 등 진로장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SSCT와 유사하나 사회적인 차별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우 선택의 기회 부족 등에 주목하여 맥락 사회구조적 제약에 관심을 가진다(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et al., 2016). PWT는 기존이론에서 강조하는 흥미와 일치성, 그리고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진로적응성 등의 개인 내적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의 개인 진로발달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부 환경적 한계에도 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괜찮은 일을 발견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연구되었다(Duffy et al., 2016). 특히, PWT는 사회적으로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거나 빈곤상황에 있으며 일과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맥락적 제약을 경험하는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다. PWT의 시각은 응용심리학과 진로분야와 관련된 담화들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적 특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연구로 전통적인 진로연구에 비판하는 사회정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Blustein, 2018:11). 따라서 PWT는 다문화관점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배경과 맥락을 가진 개인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Duffy et al., 2016). PWT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과 배경, 및 정체성(종교, 성별, 계층, 장애, 나이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김태선, 신주연, 2020:684),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의 진로 발달이 설명된다. PWT의 의의는 사회계층과 기득권, 사회적 자본의 지각과 같은 환경적 맥락요인을 진로상담에 적용하여 맥락요인과 일을 통합적으로 해석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안진아, 정애경, 2019). PWT 관점에서 진로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과 소외가 내담자의 진로포부, 일 가치관, 진로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귀인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PWT는 사회구성

주의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는 담론, 언어, 관계와 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는 접근법이다(Blustein, 2018:50). Richardson(2012)은 시장노동, 개인적 돌봄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담론을 제안하였는데, 상담에서 내러티브적 접근법의 활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공동 구축하고 삶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로이론의 패러다임은 Savickas(2012)의 구성주의 진로상담 또는 내러티브 진로상담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개인의 다양한 맥락과 배경들은 개개인의 삶을 설명하려는 개별 내러티브에 의해 이해된다(Blustein, 2018:51). 내러티브 구성주의 진로상담자들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며 대안적인 시각을 추구한다. 개인에게 있어 진로경로를 완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비업무적 삶인 가정과 가족, 친구와 사회적 연결망, 자기개발과 성장,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등도 성공적인 진로에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Blustein, 2018). PWT는 직업심리학, 다문화심리학, 일의 사회학,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므로(Duffy et al., 2016) 다문화 진로이론과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진로에서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소수 집단의 진로상담에서 PWT는 개인의 맥락적인 이해를 제안하고 있다(안진아, 정애경, 2019:221). 특히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장벽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PWT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인문융합치료

2.2.1. 개념 및 배경

‘치료(therapy)’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정여주, 2019). 심리학적 기준의 치료는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 등의 관련 전문가가 인간의 이상 심리 및 병리학적 행동을 마음의 작용과 의식상태의 적응적인 변화로 갈등을 해결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Böhm, 199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medical treatment)’가 아닌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심리학적 기준의 치료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을 치료의 도구이자 치료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근원 문제에 관련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법무부, 2019b).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총체적 연구이고 바람직한 인간의 삶을 탐색하는데 가치가 있다(설연경, 2016). 또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탐구하여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김익진, 2020). 여기서 ‘인문’의 의미는 인간성(humanity), 즉 다시 말해 인간다운(humane) 속성을 의미한다(설연경, 2016).

인문융합치료는 인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 과정인 인문학(양은아, 2010)을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들의 융합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리정서 행동치료, 실존치료, 로고테라피, 인지치료 등은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유형을 많은 부분에서 모방한다(Raabe, 2016:5). 토론과정을 통해 윤리적 결단, 종교적 신념 수용, 진정한 자아 발견, 정서적 고통이나 인지적 어려움 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극복 등이 다루어진다. 아들러치료, 실존적 심리치료, 게슈탈트치료, 인간중심치료, 현실치료,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의 핵심에는 인문학의 내용과 실천이 놓여있다. 이런 치료기법들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 소통이 원활할 경우 치료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언어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왔다. 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동물 벽화나 암각화 등을 통해 의식적 표현을 하였다(이모영, 2000). 인간의 예술적 행위는 원시 예술이나 민속예술을 통해 정신과 영혼, 육체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다(Winner, 2004). 예술치료는 개별 예술 양식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내면을 분출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유용한 치료적 혹은 치유적 방법으로 성장 발전하였다(추혜진, 2015). 예술치료에서 예술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연

결해주는 다리 역할 뿐 아니라 학제 간 이론적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예술의 통합적 시도는 매체 간 통합적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예술의 표현과 더불어 개인의 의사소통을 향상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Shaun, 2014). 따라서 인문융합치료는 심리치료 기법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매체를 사용하여 개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내담자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전인적 치료이다. 인문융합치료는 치료과정에서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자기서사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미술치료, 영화 및 영상치료, 이야기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융합 적용한 것이다(김진선, 김영순, 2021).

인문융합치료는 기본적으로 자기서사를 내러티브로 표현하며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다. 서사는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시작되었고, 현대에서는 문학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민용, 2010b). 변학수(2012)는 서사란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와 관련있는 것으로 실제적 혹은 허구적 사건과 행위들을 이야기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내담자가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된다고 하였다. 즉 내담자가 구성한 이야기를 통하여 심리치료가 시작된다. 이때 내담자의 이야기는 ‘자기서사’로서 한 개인 안에서 행동, 인지, 감정, 정서 등의 심리 전반을 추동하게 하는 것이다(김은정, 2021:30). 내담자는 치료과정 중 상상된 이미지들을 언어나 그림, 또는 동작 및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자신의 서사를 내러티브로 표현한다. 내러티브는 자기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며(폴 뢰뢰르, 1999). 사건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인과관계를 부여하며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엮어낸다(이민용, 2010a). 또한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구성 또는 서사 행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배영의, 김성범, 2017; 변경원, 최승은, 2015). 이처럼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매체의 융합을 통한 치료로 내담자의 심리 및 부적응 관련 문제를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치료과정을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 내면의 무의식을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게

하여 심리적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

인류의 인문학적 치유 행태는 선사시대의 고대 샤먼이나 그리스 신전 등에서 살펴볼 수 있고, 중세시대에는 학문 또는 종교의 형태로 나타났다(엄찬호, 2010). 고대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치료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Raabe, 2016:10). 그러나 17세기 서양의 자연과학과 의학이 철학에서 분리되며 자연과학자들은 물질계의 사물, 구조, 기능에 집중하고, 의사들은 영혼보다는 신체 고통에 주목하였다. 특히 인문학의 대표인 철학은 대부분 이론적이고 추상적 추론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Raabe, 2016:12). 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신의학 분야와 심리학에서는 임상적 한계와 심리학적 치료이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문학 영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주혜연, 2020). 정신분석학자인 앨버트 엘리스, 빅토르 프랭클을 비롯한 기타 학자들은 인문학에 기초한 합리정서 행동치료, 로고테라피, 실존치료 등의 치료 방법을 개발하였다(Raabe, 2016:17). 또한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심리치료와 인문학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권요셉, 2021; 김현주, 2011; Schwartz, 2009).

4차 산업의 발달은 지식의 패러다임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사유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김문주, 신현주, 2020:611). 김익진(2020:220)은 인간의 감정이 현재 과학으로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질이므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과학의 다양한 실험적 노력으로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려 하지만 한계점에 도달하였는데, 인문학이 경험적 추론과 상상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학을 표방하는 사회과학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기에 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가정은 인간의 논리력과 상상력에서도 출된다. 이때 논리력은 철학을 통해, 상상력은 문학을 통해 키울 수 있는데, 이는 인문학적 능력이다(김익진, 2020:233). 인간이 겪는 실존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과학뿐 아니라 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학문적 융합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심리치료에서는 개인, 개별자로서의 상황을 고려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다

양한 영역과 융합한 형태인 철학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그 밖에 영상치료, 연극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진선, 김영순, 2020:172).

2.2.2. 치료기법의 융합

융합의 의미는 자기정체성이 이미 뚜렷하게 확립된 이질적인 둘 이상의 요소가 만나 각 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방법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단순히 합쳐지는 데만 의의를 두지 않고, 새로운 가치나 분야를 만들어 가기에 융합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김호연, 2016).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한 인문융합치료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해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정신의학, 종교학, 상담학 등의 다양한 학문과 통섭하여 지식의 교류가 상호방향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고 학문 이론과 치료 방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적 시도이다. 문학, 철학, 사학을 주로 탐구하는 인문학은 최근 그 연구 영역이 신학, 종교학, 고고학, 예술, 여성학 등에까지 이르렀다(김현주, 2011; 전선자, 2011; 최현철, 2012). 최근에는 인문학과 의학, 과학, 공학, 체육 등의 다른 분야와의 융합연구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반재유, 예병일, 2012;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Schwartz, et al., 2009). 인문융합치료 영역에서 ‘치료’ 개념은 인간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사회공동체는 모두 유기적이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인문융합치료는 몸과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상호적으로 관련 지어 파악하게 한다. 또한 몸과 마음이 사회 전체의 구조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전인적 치료와 회복을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실제로 각각의 심리치료기법들은 여러 형태로 통합되며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오영섭, 2019:42; Stricker & Gold, 2008). 심리치료 간 융합의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기술적 절충이다. 내담자의 임상적 요구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기법을 최우선으로 접근하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 접근으로 융합한 형태이다. 둘째, 공통요인 접근이다. 내담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다른 치료기법에서 도출하여 증진하는 형태이다. 셋째, 이론적 통합이다. 전통적인 심리기법들에서 기원한 개념들을 통합하여 정신병리와 심리치료적 효과에 적절한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이다. 넷째,

흡수통합이다. 어느 한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다른 치료기법을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치료적 효과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다양한 시각으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사고하며, 파악하여 공감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장혜진, 2020:10). 발전된 사회는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문융합치료는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오는 각 치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치료적 효과를 높일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영섭, 2019:43).

인문융합치료에는 다양한 분야의 심리치료기법이 융합된다. 그 중 이야기치료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심리치료기법의 하나로, 서사인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의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바꾸어, 자신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심리치료이다(고미영, 2004; 최현미, 2013).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미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자기이해 및 표현, 자기수용, 승화 그리고 통찰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을 조절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 시킨다(정여주, 2019). 미술치료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통하여 내담자의 현실 세계와 다른 이야기 또는 은유를 활용하여 치료한다(김유숙, 고모리 야스나가, 최지원, 2013).

음악치료는 음악을 치료의 매체로 사용하여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통합과 적응적 행동 변화 등의 치료적 효과를 가져오는 심리치료기법이다(황은영, 양은아, 2017; Ellis & Thayer, 2010; Nordoff & Robbins, 2007). 음악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철학 및 이론들과 공존하여, 음악 자체로 치료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황은영, 양은아, 2017).

문학치료는 문학을 매체로 사용하여 치유하는 심리치료다. 문학치료에서는 참여자의 텍스트에 대한 치료사의 해석보다 참여자가 스스로 해석에 주도성을 가지고 치료과정이 진행된다(변학수, 2018:24). 무엇보다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치유에 이른다. 자신의 내러티브를 하나의 삶의 텍스트로서 그것을 회상하며 현실로 가져와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변학수, 2012).

영화치료는 영상과 영화 매체를 활용한 상담과 심리치료기법이다. 영화치료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대신 머릿속의 스크린에서 각자의 내면 영화

를 본다. 각자 자신에게는 내면 영화가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영된다(김수지, 2013:83). 내담자가 영상 텍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영화가 치료적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무용동작치료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치료기법으로 무용을 통해 자기표현과 감정이입을 경험하여 자신의 긍정성 발견과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통하여 삶의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김인숙, 2012). 무용동작치료는 특히 시각, 청각, 운동감각과 관련이 있어 신체감각과 느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여러 이미지로 표현된 언어가 동작과 연결되어 표현된다(김영옥, 채연숙,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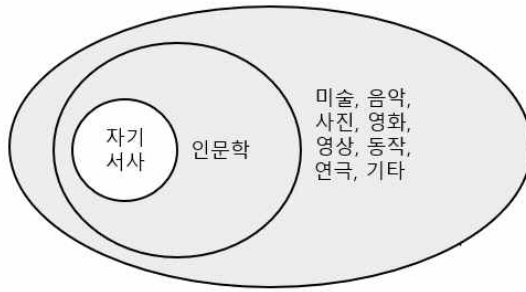
사진치료는 사진촬영, 현상, 그리고 인화 등의 사진을 이용한 창작활동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를 완화하고 심리적 발달과 치료상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김준형, 유순덕, 2016). 사진치료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카메라라는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사용하여 셔터를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창작접근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적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김준형, 유순덕, 2016; 최정화, 2008). 내담자의 사진은 내담자의 현실과 실제의 대상을 그대로 보여 주며 상징과 투사의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매체이다. 그리고 사진치료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적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의식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감정의 정화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김준형, 유순덕, 2016; 이지양, 2013).

이와 같이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영화치료, 무용동작치료, 사진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 상담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다양한 치료기법들은 심리 문제의 증상 완화와 치료의 효과를 보인다(곽현주, 김영희, 2013). 또한 치료 분야에서 이미 여러 치료기법은 표현예술치료(이근매, 2011; 곽현주, 김영희, 2013), 통합예술치료, 통합문학치료(이근매, 2011) 등의 이름으로 융합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영화치료, 놀이치료, 글쓰기치료, 사진치료 등의 다양한 융합연구가 단일 기법연구보다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해건, 이모영, 2017; 김진선,

김영순, 2021;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9; 이선희, 박지혜, 2018). 하지만 이들 융합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절충인 융합 심리치료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한 융합 형태이다. 이러한 융합형태는 특정 치료기법의 개념과 이론에 규정되지 않고 심리치료에 기술적으로 활용된다. 즉, 융합적 치료기법을 활용하였으나 하나의 통합된 기법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히 치료기법의 복합적 적용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김진선, 김영순,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의 통합적 융합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적 효과를 기대한다. 연구참여자는 글쓰기, 미술, 동작, 음악 등의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효과적인 자기 인식의 확대를 경험할 수 있다.

2.2.3. 인문융합치료의 원리

인문융합치료는 다양한 심리치료기법들을 융합하지만 각 치료기법에서 맥락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기서사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박혜숙, 2002). 즉 자신의 실제적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또 다른 자기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김영순·오영섭(2020)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서사 자체의 치료적 능력을 활용한 치료모형을 언급하였고, 김진선·김영순(2021)은 인문학의 기본요소인 서사를 바탕으로 문학치료,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상치료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심리학, 미디어학, 영화 및 영상학 사회학, 언론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문융합치료 개념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문융합치료개념

[그림 2]와 같이 인문융합치료는 내담자의 내러티브인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자기서사는 인문학의 기본요소로 다양한 치료적 기법의 융합을 통해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내러티브로 이루어진다. 즉,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고 자기 서사를 발견하여 치유를 진행한다. 오영섭(2019)은 폴 리콤프의 철학에 언급된 내러티브의 치유적 활용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미술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융합을 통하여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기서사에 주목하며 심리치료인 인문융합치료 연구를 진행하였다. 권요셉(2021)은 라캉의 분석가 담화와 생애회상치료의 융합을 통하여 노인 우울증자의 자기서사를 담화로 드러내어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인문융합치료 연구이다.

자기서사의 치유기능은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안적 이야기를 상담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며 치유를 경험한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심리치료 기법에서 자기서사가 나타난다. 예로써, 미술치료에서는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상징을 내담자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서사가 나타난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개인의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서사가 존재하고, 음악치료에서는 음악 활동을 통한 치료과정에 맥락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서사의 내러티브가 있다. 문학치료에서는 언어를 통한 자신의 삶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자기서사가 있다. 그리고 영화치료에서는 영상 텍스트에서 자신이 형성하는 자기서사와 무용동작 치료에서는 감각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이미지로 표현한 동작언어 역시 자기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진 치료에서도 사

진을 매체로 하여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실제적 대상을 통해 자기의 서사를 통합하여간다. 이와 같은 과정은 게슈탈트치료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표현되는 내러티브를 통해 자기서사를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 즉 ‘게슈탈트’로 인식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의 삶을 통한 성숙한 인간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자기서사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자기서사 변화의 완성은 공감과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문융합치료는 자신의 내러티브로 이루어진 자기서사를 치료과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문제적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데 용이하다.

2.3.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관심은 전 생애에 걸친 수많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의 총집합체이다. Hall은 청소년의 시기를 심리적 변화가 큰 시기로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 정의하였고,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 긴장과 혼란을 경험한다(신명희 외, 2017).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심을 발달시키며 신체 변화에 관한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형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많은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며 어려움이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기개념을 안정적으로 성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 중 다양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김봉환 외, 2016).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청소년기 발달과업 외에도 이중 문화적응이라는 과업이 부여된다(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그들의 가정 내에서 체득하여 습득된 가정의 가치관, 태도, 언어, 생활 습관 등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이들은 차별이나 편견, 언어능력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조영달, 2006), 외모의 차이로 인한 위축감(정하성, 우룡, 2007) 등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기 쉽다.

또한 그들은 성장 과정 동안 그들의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적 위치 및 이중문화 배경, 그들 다문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요소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으로 작용하여 진로발달을 어렵게 한다(선혜연,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진로발달 단계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이들의 진로준비 및 선택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자아, 인지, 정서, 사회성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위기적인 상황을 경험한다(양미진 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낮은 진로발달을 나타내는 선행연구들(김봉환 외, 2016; 김지연, 이윤희, 2019; 양계민 외, 2018; 황매향, 선혜연, 2013)은 그들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비다문화가정 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이 낮고(임경희, 2013), 그들은 직업 및 진로탐색의 정보 부족(남부현, 최충옥, 2012)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그들의 진로선택을 조기에 포기하게 하고 진로 영역에 대한 낮은 결과기대로 이어져 적절한 진로발달을 어렵게 한다(하여진, 2021).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의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인 진로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대부분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계획 및 결정으로 구성되어, 일반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구성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을 통한 다양성 이해, 진로장벽의 내용으로 다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차별이나 소외 등에 대해 주목하여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의 주요 변인인 자기이해, 진로장벽, 진로성숙 및 진로 집단상담의 특징과 인문융합치료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자기이해의 중요성이다(김민경, 2015; 김현영, 2017; 정옥영, 유형근, 2021; 최현주, 김희수, 2017). 자기이해는 진로탐색의 시작 단계로서 자아정체감 형성의 기본이 된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부모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형성, 상호의사소통 등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발달한다(이혜미, 김유미, 2019). 특히 청소년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가치관, 이념, 진로 등과 연관을 지어 해결하고자 한다(김현영, 2017).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언어, 문화, 그리고 가치관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신경, 송원일, 2018).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긍정성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송선진, 2007). 양계민(2021)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 부족으로 낮은 진로태도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 집단상담을 통한 향상된 결과(송혜정, 2013; 윤영식, 2015; 한수선, 2015)를 얻고 있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으로 자기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진로장벽의 이해와 대처는 진로지도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하다(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진로장벽이란 진로목표와 계획을 방해하는 내적 및 외적 요인들(Crites, 1969)인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14; 박진우, 장재홍, 2014; 성윤희, 장은영, 2020; 양계민 외, 2016).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는 진로대안을 현실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손은령, 200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함께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이아라 외, 2018), 진로와 관련된 우울감과 위축감을 겪고 있으며(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등의 부정적 인식에 의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박미숙, 이미정, 2014; 이아라 외, 2018). 자신의 흥미와 적성의 이해 부족도 진로장벽의 요인이 된다(박동진 외, 2020). 한국어 사용 관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진로준비와 취업정보의 부족을 느낀다(박진우, 장재홍, 2014). 또한 진로준비와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Blustein, 2018).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언어적 어려움, 지지체계 부족 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차별적으로 경험하는 진로장벽요인이 된다(성윤희, 장은영, 2021; 이아라 외, 2018). Duffy 외(2016)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사회구조적 제약인 사회적인 차별이나 소외로 진

로선택의 기회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PWT 관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과 소외가 자신의 진로포부, 일 가치관, 진로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지 탐색해야 한다. 또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아긍정적 감정의 정도, 자기가치감, 현재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있다(Rosenberg & Smith, 1985).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낮은 진로장벽 인식은 다시 진로결정 수준을 높인다(성윤희, 장은영, 2021).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을 이해하며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여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이다. 진로성숙도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및 조정하는 것이다(김민경, 2015). 청소년의 시기는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구체적인 진로선택이나 결정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 진로기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 평가 및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성윤희, 장은영, 202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중점을 두는 상담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윤종오, 강용비, 2014; 황제이, 2009). 소수이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진로성숙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김민경, 2015; 김현영, 2017).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진로를 선택 및 결정하고 진로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집단상담의 효과성이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소규모 집단뿐 아니라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많은 내담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김계현 외, 2009). 집단원들은 자신과 비슷한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김신애, 조항, 2020), 따라서 집단상담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집단원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다른 이들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인문융합치료의 활용이다. 김진선·김영순(2021)은 국내 청소년 대상 인문융합치료 관련 동향분석에서 주로 청소년의 심리, 대인관계, 그리고 진로 관련 주제가 다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 중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적응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치료는 인문학에서 사용되는 치료(이영의, 2010)의 개념으로 건강한 마음과 건전한 인성 발달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진로주제는 중요한 주제로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인문융합 관련 치료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융합학문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장혜진, 2020), 영국의 경우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도덕관과 심리적 요소 등을 중요하게 연결하며 문화예술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예술, 인문학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인문학과 융합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난민과 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소외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예술연구가 치료뿐 아니라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김진선, 김영순, 2021). 인본주의 창시자인 로저스의 딸 나탈리 로저스도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상담을 이어받으며 통합적 인간관을 추구하여 각종 치료기법을 사용한 인간중심 표현치료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상담 과정에 언어만을 관여시키는 것에 의문을 품고 동작,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표현 매체를 구사하여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고 자기표현을 촉진하여 몸, 정신통합을 목적으로 한다(Rogers, 2007). 이처럼 다양한 기법의 치료 융합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심리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융합의 형태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언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학습시 필요한 어휘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기도 하고,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언어 외에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소결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과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Blustein, 2018:66). Blustein(2018)은 진로상담과 개인상담이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어 상담자는 필요하다면 어떤 영역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사람들의 삶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며 인간 경험 내에 존재하는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연구자도 있다(Richardson, 2012). 그리고 안진아·정애경(2019)은 상담의 내용을 진로문제인지 개인문제인지 구분하기보다 현재 본인에게 맥락적 이슈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상담 내에서 진로와 개인 심리적 문제를 구분하기보다 내담자들이 원하는 진로와 삶의 역할들이 상호작용하도록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직업심리학은 개인에게 중점을 두어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데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현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Duffy et al., 2016). 성장과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양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진로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그들의 진로는 생애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분리할 수 없기에 심리치료와 구분되지 않는 진로상담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정의가 고려된 새로운 다문화 관점에서의 진로상담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설명하려는 개별 내러티브를 통하여 상담을 구조화시키고, 특히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내러티브를 통한 자기서사를 이해하게 하는 인문융합치료기법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다문화적 배경의 사회 맥락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진로상담 및 인문융합치료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들의 진로선택이나 준비에 독특한 영향(이아라 외, 2018)을 줄 수 있기에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인 진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인문융합치료는 인문학 기본요소인 자기서사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기법인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영화 및 영상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을 융합 적용한 것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전적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어려움의 해결은 그들의 맥락과 배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이들의 진로상담에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개념과 사회정의 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힘과 자유를 높이며 개인 내적 구조의 성숙과 환경에의 적응을 통한 상호작용인 구성주의 진로상담과의 통합이 요구된다. Savicas(2012)는 진로란 하나의 길을 따라가거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일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진로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진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자기서사와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 적용하여 자신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데 용이한 인문융합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진로상담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개요

1.1. 사례연구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다. 특정 사례에 관한 연구는 질적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김영순 외, 2018:267; 김영천, 2017:108; 유기웅 외, 2012). 양적연구가 대단위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특정한 사례에 관한 연구 관심을 가지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질적연구는 자료수집을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현장연구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환기하거나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김영순 외, 2018:269). 본 연구에서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단일 또는 복잡한 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현상을 기술 및 분석하여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김영순 외, 2018).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되는지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0). 즉, 여러 가지 프로그램(다중현장)이나 단일 프로그램(현장 내 연구)를 선택할 수 있다(Creswell, 2010).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대상에 관한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이 나타내는 것을 관찰, 심층 면담, 문서 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모든 정보가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윤정아, 2015). Yin(2014)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왜’와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적절한 연구전략이라고 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설계의 논리, 자료수집 기법과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연구전략이다(김영천,

2017:136).

사례연구 방법은 3가지 특징을 지니는데(Merriam, 1994), 그 중 첫 번째는 특정적(particularistic)이라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상황, 사건, 현상,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정 대상들이 어떻게 대면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기술적(descriptive)이다. 사례연구에 의한 최종 결과물은 조사된 사건이나 요소를 있는 그대로 상태의 묘사 및 기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면담, 관찰, 문서, 보고서, 시청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을 제시하여 입증하여 상황을 분석한다. 세 번째, 발견적(heuristic)이다. 사례연구가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기존의 의미를 재확인하거나 경험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Merriam(1994)은 사례연구가 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절하다고 하였다. 사례연구설계를 통한 과정 탐구는 ‘모니터링’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맥락과 연구집단에 관한 서술,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발견하는 등은 ‘모니터링’이며, 프로그램의 효과 및 의미를 나타내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수의 상담영역에서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과정과 성과를 나타낸 연구들이 있다(김영숙, 2020; 윤정아, 2015; 왕은자, 김계현, 2007).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참여한 연구이다. 이중문화 적응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탐색을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여러 환경적이고 내적인 변수들이 상황 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리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Yin, 2016)로 볼 수 있으며,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에 초점을 두는 사례연구방법의 특정적(particularistic)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연구 문제는 사례연구설계를 통한 과정 중 ‘모니터링’에 해당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연구 문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사례

연구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하여 진로상담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시도로 ‘발견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질적사례연구방법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는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사례는 곧 연구를 진행하는 분석단위가 된다(Yin, 2016). 이 연구에서 무엇을 분석하고자 하는가의 분석 틀은 연구문제인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 수행단계별 경험과 내담자의 진로 관련 변화를 프로그램 주요 목표별로 살펴보고 변화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여러 장점과 더불어 연구자의 성실성과 민감성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례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주요 도구이다. 또한 질적연구는 해석적인 연구로 연구자가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배경, 선행적 이해 등이 주요한 영향을 주기에 본 연구의 연구자의 배경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상담심리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약 5년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하였다.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학습센터, 대학 부설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반청소년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을 개인별 또는 집단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놀이치료사 및 인형심리상담사 기초과정과 감각활용전문상담사 교육을 수료하고 이후 노인복지센터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감각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박사과정 중 예술심리치료 수업을 통해 다양한 치료기법의 융합적 활용을 수강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이야기 융합치료를 활용한 심리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슈퍼비전(supervision)을 받았다.

2017년부터 질적연구방법 캠프를 매년 참여하였고 질적연구 방법론 수업을 수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

한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진선, 김영순, 2020)와 '청소년 대상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김진선, 김영순, 2021)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박사과정 중 '인문융합치료 콜로키움' 수업과 '다문화교육 철학' 수업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 진로상담과 인문융합치료 관련 발표를 수행하였고,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본 연구를 발전시켰다.

1.2. 연구 절차

사례연구의 절차는 사례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준비, 자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선형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Yin, 2016).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절차 개요

사례연구절차	절차별 내용
1. 사례연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탐색⁴ • 연구 문제 정의 • 분석 범주 설정 • 연구프로그램 구성 • 지도교수 슈퍼비전 진행
2. 자료수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B 심의 준비 및 승인 •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3.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다양한 자료원 수집(전 녹음파일에 대한 전사록, 참여자 회기별 결과물, 연구자 참여일지 및 성찰일지 등)
4.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자료분석 및 범주화 • 사례 내 분석 • 사례 간 분석
5.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의의 도출 •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모색

본 연구는 <표 3>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례연구 설계단계에서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연구, 청소년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연구, 다문화 진로상담 관련 연구 등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문제를 정의하였고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연구프로그램 구성을 시작하였다. 모든 과정은 지도 교수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되었다. 두 번째, 자료수집 준비단계이다. 본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및 안전 문제를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0년 9월에 1차 승인을 받고 연구방법 보완으로 2021년 4월 최종 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 200824-7AR). 하지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계속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5월에 기관을 통하여 I시의 G 여자중학교로부터 참여 의사를 받아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총 4명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학교 담당자에게 본 연구 과정을 신청하였다. 세 번째, 자료수집 단계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90분씩 총 8회기로 진행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자료원(전 녹음파일에 대한 전사록, 참여자 회기별 결과물, 연구자 참여일지 및 성찰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네 번째, 자료분석단계이다. 사례연구 설계는 연구조건인 사례 수에 따라 단일 사례연구(single-case design)와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design)로 구분할 수 있고, 분석의 단위에 따라 전체 분석과 내재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Yin, 2016). 다중사례연구는 단일 분석단위나 복합적인 분석단위 설계가 가능하다(김영순 외, 2018:273).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진 4명의 청소년의 사례를 4개의 개별사례로 보고, 개별사례에 대한 사례 내 분석을 하였고, 각 개별사례가 동일한 연구과정을 거쳤기에 4개의 사례를 다중 사례연구로 보고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즉, 각 개별사례에 관해 사례 내 분석과 개별사례들 사이 간의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하였기에 복합적인 분석단위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개별사례의 사례 내 분석은 초기, 중기, 종결의 변화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은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코딩 작업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1차 코딩으로 수집된 원자료

들에서 주요코드를 도출하였다. 1차 코딩작업은 질적분석의 뼈대를 생성하는 작업(김영천 외, 2017:127)로 경험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요코드로 12개의 하위범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차 코딩작업으로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는데 2차 코딩작업은 개념들과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연결시키는 단계(김영천 외, 2017:132)로 6개의 핵심범주화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차 코딩작업은 분석의 최종 결과물로 사례들의 공통의미를 3개의 상위범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보고서 작성 과정은 동료 연구자들의 점검과 지도교수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추가적 연구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하였다. 다섯 번째, 보고서 작성 단계이다. 본 연구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며 변화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의미를 도출하며 다문화 진로상담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자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향후 인문융합치료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사례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진로상담에 관심 있는 자발적 신청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I 지역의 G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로 해당 학교 사회복지사가 본 상담프로그램을 해당 학교에 공지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다.

둘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중학생은 Super의 발달이론 단계 중 진로 탐색기(14~24세)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다(김봉환 외, 2016).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진로에 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셋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하였고 연구참여자 본인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발적 연구참여자 4인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기호로 기록하였다. 4명의 연구참여자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

구분	나이 (세)	국적	출생	부모	국내 거주 기간(년)	한국어 능력	다문화가정 유형
연구참여자 A	18	중국	한국	한국인 계부 조선족 친모	3년	말하기, 듣기 가능, 쓰기, 읽기 어려움	국제결혼가정 중 중도입국자녀
연구참여자 B	16	한국	한국	한국인 친부 필리핀 친모	16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가능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출생자녀
연구참여자 C	16	한국	한국	한국인 친부 베트남 친모	16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가능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출생자녀
연구참여자 D	16	중국	한국	중국인 친부 중국인 친모	13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가능	외국인가정 가정 중 국내출생자녀

<표 4>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여학생들로 연령대는 16세에서 18세이다. 출생지는 모두 한국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3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1명은 말하기와 듣기는 가능하지만 쓰기와 읽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통역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고 의사소통에 불편하지 않았다.

집단상담을 진행하기 전 집단리더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지각과 기대 및 우려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Corey, 2016)가 있기에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각각의 연구참여자들과 개별 면접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별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A(이하 A로 표시)

A의 친부와 친모는 모두 중국인으로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거주하다가 결혼하

였고 한국에서 A를 출산하였다. 하지만 A의 부모님은 A가 생후 1살 때 이혼하였고 A는 중국인 친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A는 중국에서 친모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와 함께 살았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 친부가 A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여 중국인 친모와 15세 A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후 엄마가 한국인 새아빠와 재혼하여 A는 중국인 친모, 한국인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A는 중국에서 한국 유치원을 다녔고 A가 12세 때 한국에 사는 중국인 친부가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 와 본 경험이 있다. 그러다 A가 15세 때 중국인 친부는 A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권유하여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중국인 친부와 A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A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하고 싶어하기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A는 15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공부를 한 후 16세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고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또래들보다 2살이 많은 18세이다.

A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는 어려워하지 않지만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일상생활은 어렵지 않으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A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나 한국어로 글을 쓰고 읽는 것이 어려워 다른 진로를 찾고 있었다. A는 매 상담 시간 전 상담 장소에 도착하여 상담을 기다렸고 회기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잘 정리하여 이야기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로 번역하여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4회기 시작 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해당 회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큰 아쉬움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다음날 줌(ZOOM)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B(이하 B로 표시)

B는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그리고 7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21세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고교 시절에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면서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B에게 신체 및 언어폭력으로 풀었다. B는 친언니의 폭력으로 단기 쉼터에 두 달 거주한 경험이

있다. 현재 B의 언니는 집에서 독립하였고 고등학교에 다시 편입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B는 자주 집으로 오는 언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한다. B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고 진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특성화고 체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막연히 특성화고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B의 외모와 한국어 사용 능력은 국내 가정 학생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B는 상담 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자신의 낮은 학업능력으로 진로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보였고 망설임을 나타냈다. B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나 의논할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회기를 참석하였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 B는 누구보다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보였다.

(3) 연구참여자 C(이하 C로 표시)

C는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인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C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내담자는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 C는 낮은 학업성적과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C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 단정하며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C의 외모와 한국어 사용 능력은 일반가정 학생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C는 상담 시간 내내 진중한 표정과 낮은 어조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상담회기 중 다리를 수술해야 했기에 다음 회기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상담에 대한 강한 참여 의지를 보이며 휠체어를 타고 상담에 참여하며 모든 회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C는 낮은 학업성적과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자신의 재능과 그것에 관련한 직업에 관한 탐색을 원하였다. C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4) 연구참여자 D(이하 D로 표시)

D의 중국인 아빠와 중국인 엄마는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와서 만나 결혼하고 내담자를 낳았다. D와 D의 부모님, 그리고 5세 남동생 모두 중국인으로 중국적이다. D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7세 때 중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왔다. 중국에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생활은 엄격한 중국식 교육으로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D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중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의 학교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D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어려움이 없으나 학업 수행은 높지 않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으나 성적 향상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D의 외모와 한국어 사용 능력은 비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상담 시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관심받기를 원하였다. 때로는 전문가적인 솜씨로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회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상담 시 핸드폰을 사용하며 산만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집단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내용들은 잘 수행하였다. 6회기 때 개인사정으로 해당 회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줌(ZOOM)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3. 연구 대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상담 현장에서 인문 융합치료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상담 과정을 기술하고 상담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진로 집단상담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실행 경험의 상담적 의미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한 최종 프로그램을 실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하고 상담사례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와 사례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1.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김창대 외(2019:43)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근거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 개발과정 단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 개발과정

구분	내용	세부내용
1단계	프로그램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를 통한 요구분석 • 전문상담사들의 자문
2단계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 단계 모형제시 • 프로그램 내용분석 • 초기프로그램 제시
3단계	프로그램 검증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증 • 프로그램 수정
4단계	최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내용 출처 제시 • 최종 프로그램 제시

<표 5>와 같이, 1단계는 프로그램 목표 수립,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 3단계는 프로그램 검증 및 수정, 4단계는 최종 프로그램 설정으로 총 4단계를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1.1. 프로그램 목표 수립

본 연구에서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진로 관련 변인 선행 연구들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프로그램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찾고자 하였다. 양계민 외(2018)의 분석기준을 분석틀로 삼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자기이해,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의식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배경변인, 가정 내, 외의 지지, 개인 특성,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등이 진로장벽, 진로결정성,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정도에 개인배경 변인(성별, 지역, 부모 학력, 가구소득, 학교유형 등)이 대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소라, 2020; 김정은, 2020; 박동진 외, 2020; 성윤희, 장은영, 2020; 양계민 외, 2018; 이혜미, 김유미, 2019). 즉, 자신들이 사는 지역, 부모의 학력과 가구의 소득, 또는 학교유형이 자기를 이해하여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성별에 따라 인식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양계민 외, 2018). 또한 이들의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 요인인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이해에 대한 진로장벽 인식의 수준이 낮아졌다(박동진 외, 2020; 양계민 외, 2018). 반면 우울감은 진로장벽을 강화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기 위해 진로장벽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미, 현안나, 2020; 성윤희, 장은영, 2020; 정나은, 김원영, 2020; 김자경, 오혜정, 2021; 양계민 외, 2018). 그러나 외국인 부모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진로선택의 폭을 확장하며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회기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가정 내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는 진로장벽을 낮추고(김영미, 현안나, 2020; 양계민 외, 2018), 진로간섭 및 관여 부족은 진로장벽을 강화한다(김영미,

현안나, 2020; 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가정 내 부모의 지지가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가정 외의 지지(교우, 교사,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을 높인다. 특히 가정 외의 지지는 부모의 진로간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서 집단원과 리더의 지지를 통해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참여하기에 진로장벽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학과 학과체험, 직업 실무 체험, 현장 견학, 직업인 멘토링 참여는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와 직업’ 수업의 만족도는 낮았다. 특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직업체험 활동, 진로 캠프 등)에 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요구도가 높았다. 높은 요구에 비하여 만족도가 미치지 못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진로 집단프로그램 구성 시 좀 더 세밀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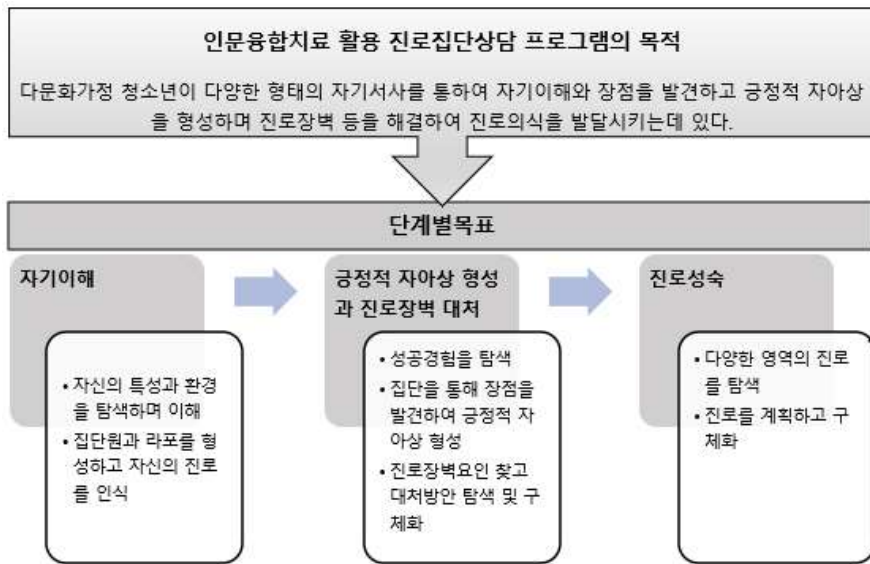
문헌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의 다음 단계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상담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요 정보제공자인 전문가를 통한 자문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가장 질 높은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다(김창대 외, 2019).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한 전문상담사들로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받았다. 프로그램의 목표 수립을 위한 자문 단계에 참여한 전문상담사는 총 3명이다. 다음 <표 6>은 프로그램 자문에 참여한 전문상담사의 일반적 사항이다.

<표 6> 프로그램 자문에 참여한 전문상담사의 일반적 사항

구분	다문화 상담경력	자격증	학력	소속기관
전문상담사 A	5년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석사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전문상담사 B	5년	H 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석사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진로학습센터
전문상담사 C	5년	청소년상담사 2급 놀이치료상담사	석사	교육청 다문화상담지원단

<표 6>과 같이 이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상담경력이 5년 이상 된 전문상담사로 청소년상담사 및 상담학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단은 프로그램의 홍보를 듣고 자원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1명 및 지원단 1명, 그리고 다문화 관련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 질문을 중심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진로상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서 자기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성공 경험을 찾아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탐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집단 프로그램이 7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는 데 비하여 언어적 소통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깊이 있는 이해를 고려할 때 4명에서 5명의 소집단 운영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한다고 하여도 이해가 쉽지 않은 진로 검사도구의 사용은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치료기법의 적용을 추천하였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서사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인문융합 치료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그림 3]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이다.



[그림 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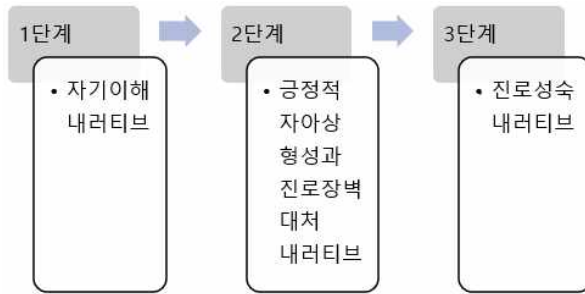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자기서사를 통하여 자기이해와 자신의 장점 발견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며 진로장벽 등을 해결하여 진로의식을 발달시키는 데에 있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자기이해,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 대처, 진로성숙이다. 또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를 세우고 인문융합치료기법을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3.1.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는 데 필요한 이론적 구인을 추출하고 그것을 구성요소로 삼아 구체적 활동 요소로 조직한다(김창대 외, 2019:45). 다음은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는 프로그램의 기대와 효과를 정의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대하게 할 수 있게 한다(김창대 외, 2019). 본 연구는 진로상담의 접근을 이론적으로 근거하되 인문융합치료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진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진로상담에는 개별인종과 민족 집단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주목받는 사회인지진로이론(김봉환 외, 2018)과 이주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의 다양한 맥락과 배경 및 정체성(종교, 성별, 계층, 장애, 나이 등)을 고려한 다문화적 관점과 사회정의 입장의 이론(김태선, 신주연, 2020)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첫 번째 자기이해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사진, 동작, 미술, 영화, 음악, 게임 등 치료기법을 융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에 관한 통찰을 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환경변인이 진로탐색과 계획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인형치료카드를 통한 가계도 구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와 가정 외의 지지 체계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긍정적 자아상 형성으로 진로장벽을 대처하고자 한다. 장점카드 게임을 활용하여 집단원의 지지를 통한 자존감 증진과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인 차별이나 소외에 대한 경험 등 맥락적 사회구조적 제약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일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완득이>와 <마당을 나온 암탉>을 활용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탐색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동작치료, 그림치료 등을 활용하여 진로장벽 극복 및 대처방안 습득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진로성숙이다. 다양한 인문융합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계획 및 실천내용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정보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여 왔는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직업세계에 대한 영상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프로그램 모형은 [그림 4]과 같으며, 모형은 인문융합 치료를 활용한 진로상담의 단계를 나타낸다.



[그림 4] 인문융합치료활용 진로상담 단계

[그림 4]와 같이 본 연구를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치료기법을 다루는 인문융합치료와 진로상담을 맥락적으로 다루기 위해 내러티브 방식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방식은 구조주의 진로상담(Savickas, 2012)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자신의 서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진로 관련 인문융합치료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문융합치료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이다. 미술 활용(구자경, 2012; 김경신, 김미경, 2013; 윤지은, 강영배, 2014; 이혜금, 2017), 영화 활용(구자경, 2012; 임은미, 구자경, 2019; 한정아, 2010), 게임 활용(이혜금, 2017), 동작 활용(김현영, 2017) 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회기 구성은 매회기 90분을 기준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다음 <표 7>은 초기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다.

<표 7> 초기프로그램

구성요소		회기	회기별 목표	회기활동내용
대주제	소주제			
자기이해	관계형성과 자기탐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의의를 알고 자기소개를 통해 관계형성을 한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안내하기 집단구성원 소개, 별칭(불리고 싶은) 짓고 나누기 비긴어게인(길) 시청, 투사적 사진 선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여 자기를 객관화시켜 이해하도록한다. • 자신의 장점과 직업적역량을 연결시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그림을 선택하여 채색한 후 집단원에게 소개하기 • 직업카드와 장점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신체, 성격, 흥미, 학습 등)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후 집단원에게 이야기
	자신의 환경 이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도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직업도 이해한다. • 모델이 되는 다문화인물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가능성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인형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가계도를 그려보고 각 각 직업이미지도 그려본다. • 동물인형카드를 활용하여 친구나 선생님, 또는 중요인물을 매칭하고 각 직업이미지도 그려본후 집단원에게 이야기 • 모델이 되는 다문화인물영상을 보며 카드를 이용하여 그들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꾸어진 것을 찾고 이야기하기
긍정적 자아상	성공 경험 탐색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본다. • 성공경험탐색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크리스마스캐럴>를 보고 자신의 과거, 현재를 탐색하기 • 살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나 성공했던 경험(어떤 노력이 원인이 되었는지)을 탐색한 후 그림그리기
	강점 찾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집단원을 통하여 공감과 지지를 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찾기(강점카드) • 서로 가장 어울리는 강점선물하고 선물받은 강점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 자신의 단점을 탐색하고 맥락속에서 강점을 발견하여 강점으로 바꾸어보기 • 집단원의 강점을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기
진로장벽	진로장벽요인 및 대처방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장벽요인을 찾고 대처방안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생각과 진로장벽을 대변하는 투사적 사진활용하여 진로장벽찾고 감정카드로 매칭하기, 이미지로 그려서 표현하기 • 자신의 진로장벽요인들을 풍선에 적은 후 풍선터뜨리기를 통한 진로장벽깨뜨리기 • U자모양 옹덩이안에 자신을 그리고, 옹덩이안에 있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역할극하기
진로계획	진로 흥미 및 탐색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통하여 긍정적 직업가치관을 알아간다. • 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생각해보고 직업카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관 경매하기 • 영화(루이암스트롱의 트럼펫)를 보고 적성의 의미에 대해 나누기 • 직업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직업, 원하지 않는 직업, 잘 모르는 직업 찾아서 이미지 그리기
	진로 계획 및 정리 활동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자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계단만들기(자신에게 맞는 직업선정 후 삶의 전반 계획하기, 5년후, 10년후...) • 미래 명함만들기(000한 000) • '말하는대로'영상보며 함께 노래부르기

<표 7>과 같이 초기프로그램은 다문화교육관점의 진로상담의 단계에 따른 자기이해,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 대처, 진로 성숙을 목표로 인문융합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3.1.3. 프로그램 타당도 검토

문헌연구를 통한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와 전문상담사의 자문 내용 통해 구성된 프로그램 시안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구성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프로그램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의 일반적 사항

구분	직위	학력	경력	전문분야
전문가 A	대학교수	박사	20년	가족상담
전문가 B	대학교수	박사	15년	진로상담, 심리상담
전문가 C	대학교수	박사	18년	미술치료

<표 8>과 같이 전문가집단은 상담 전문분야 15년 이상 된 현직 대학교수이고, 현재 가족상담과 진로상담 및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전문가집단에게 프로그램 시안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들을 직접 면담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집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총 세 가지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짜임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다문화 배경 이해를 위해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하여 적용하려는 시도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기이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사항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전문가집단의 평가분석과 수정 및 보완내용

전문가집단의 평가분석과 수정 요구	수정, 보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구현이 인문융합적으로 영화, 그림, 음악 등의 활용이 더 필요하다. • 자기이해영역 중 2 회기에서 직업카드와 장점카드사용은 자기이해에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맞지 않기에 다른 기법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인문융합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인문학 활용이 더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진로장벽이 개인 장벽뿐 아니라 환경적 맥락을 통한 진로장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긍정적 자아상 영역 중 자신의 장점을 탐색한 후 강점을 발견하여 진로탐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영화 매체를 활용할 때 그 영화의 문화적 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회기 마무리할 때 그들이 자신을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영역 중 2회기 자기탐색에서 도화지 앞면에는 외적인 나, 뒷면에는 내적인 나를 그려보고 색으로 표현하여 본다(구자경, 2012). • 3회기 자신의 환경이해 영역에서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등장인물의 차별과 억압 경험에 대해 공감하고 등장인물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을 선택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여 본다(구자경, 2012). • 6회기 진로장벽 영역에서 영화 <완득이>를 보고 개인적 진로장벽 뿐아니라 사회환경 맥락적 장벽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여 본다(구자경, 2012). • 긍정적 자아상 영역 중 5 회기에서 게임을 통하여 자신의 장점을 탐색하고 집단을 통하여 강점을 발견하도록 한다(김미화, 김미옥, 2017). • 진로계획 영역에서 5 회기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로탐색 및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이혜금, 2010). • 7회기에서 활용되는 영화의 문화적 배경도 고려하고 진로정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인 영상(최봉주, 김희정, 2010). • 각 회기 마무리 시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표 9>의 전문가 검증에 따라 연구자는 처음 구상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초기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화를 주었다. 첫 번째, 영화 및 영상치료, 미술치료, 음악 치료 등의 인문융합치료기법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다문화 관점의 진로상담에서 중요한 개인의 다양한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영화활용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매체 활용 시 그 매체 도구가 가지는 문화적 배경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3.2. 최종 연구프로그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최종 연구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참고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프로그램 구성에 활용된 인문융합치료기법과 참고한 선행연구

회기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치료기법	근거 내용	내용 출처
1	자기 이해	• 관계 형성	-비긴어게인 (길) 영상 시청 -투사적 사진선택	-그룹 음악과 심상 -심상적 투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 이해	-정현주 외(2020) -소희정 외(2021)
2		• 자기 탐색	-‘나는 나비’ 뮤직비디오 영상 시청 -동물 이미지 그리기 -외적인 나, 내적인 나 그리기 -보드게임 ‘덕싯’	-음악을 통한 심상(시각적 심상, 느낌, 신체적 감각 등) 체험하고 상징적 이미지 이해 -자신의 이미지를 동물로 표현 -그림으로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를 표현 -보드게임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 탐색	-정현주 외(2020) -이근매, 장성숙(2015) -구자경(2012) -김보라, 손현동(2016)
3		• 자신의 환경 이해	-인형치료카드 활용하여 가계도 구성 -인형치료카드 활용하여 가정 외 지지체계 탐색 -‘마당을 나온 암탉’애니메이션	-이미지나 형태로 나타난 상징을 통해 가족 이해 -이미지나 형태로 나타난 상징을 통해 가족 외지지 체계 탐색 -종이 다른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협력	-이영하, 최광현(2015, 2016) -임은미, 구자경(2019)
4	긍정적 자아상 형성 과 진로 장벽	• 성공 경험 탐색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기뻐던 순간이나 성공 경험 그리기	-영화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을 상상하며 자기수용과 자기실현을 모색	-한정아(2010) -김경신, 김미경(2013)
5		• 강점 찾기	-박지성 ‘장점’ 영상 시청 -장점카드 게임	-자신의 긍정적 자원탐색	-김미화, 김미옥(2017) -김민경(2015)
6		• 진로 장벽 요인 및 대처 방안	-영화 <완득이> -진로장벽 요인 도식화 -진로장벽 풍선 터뜨리기 -U자 모양 웅덩이화	-영화를 통해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이해하고 공감 -진로장벽 탐색 -진로장벽 극복의지 다짐 -절망감을 느낄 때, 주위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식	-구자경(2012) -김현영(2017) -윤지은, 강영배(2017)
7	진로 성숙	• 진로 흥미 및 탐색	-다양한 직업인들의 영상 시청 -직업가치관 경매	-영상을 통해 직업의 다양성 이해하고 관심있는 직업정보탐색 -내게 중요한 직업가치 탐색	-최봉주, 김희정(2010) -이혜금(2017)
8		• 진로 계획 및 정리 활동	-인생계단 그리기 -미래 명함 -‘말하는 대로’영상보며 함께 노래부르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정 후 삶의 전반적 계획 -인생목표탐색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자긍심 증진을 통해 수용되고 반영되는 경험	-김경신, 김미경(2013), -이혜금(2017) -정현주 외(2020)

위의 <표 10>은 각 회기별 활용된 인문융합치료기법과 활용된 근거 내용이 다. 또한 활용된 인문융합치료기법의 출처도 기술하였는데, 음악치료에 활용된 정현주 외(2020)은 회기 주제에 맞추어 참고하였고, 인형카드치료에 활용된 이영하·최광현(2015, 2016)은 가족치료와 동물상징을 주제에 맞추어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보드게임 ‘딕싯(Dixit)’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특성의 게임으로 교육이나 심리치료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김보라·손현동(2016)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 최종 연구프로그램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최종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단 계	회 기	구성		회기 활동 내용
		대주제	소주제	
초 기	1	자기 이해	관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하기 • 집단구성원 소개, 별칭(불리고 싶은) 짓고 나누기 • ‘길’ 음악 영상 시청 • ‘길’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기 • 현재 나를 표현하는 사진과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진 고르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 줄 쓰기
	2		자기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도현 ‘나는 나비’ 뮤직비디오 영상을 통해 자기 탐색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 동물 그림 이미지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선택하여 채색한 후 집단원에게 소개하기 • 도화지 앞면에는 외적인 나, 뒷면에는 내적인 나의 얼굴을 그려서 표현하여 보고 이야기나누기. • 보드게임 ‘딕싯’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 탐색과 공감하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줄 쓰기.
	3		자신의 환경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치료 카드를 활용하여 가족 가계도를 완성하여본다. • 인형치료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어른들을 매칭하고 집단원에게 이야기 •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를 보고 차별과 억압 경험에 대해 이야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줄 쓰기
중 기	4	긍정 적자 아상 과	성공경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캐럴’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감정 변화 이미지를 그려 보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도 탐색하고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야기. • 살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나 성공했던 경험(어떤 노력이 원인이 되었는지)을 탐색한 후 그림그리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한 줄 쓰기

	5	진로 장벽 대처	강점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지성 '장점' 영상을 시청한다. • 게임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선물하고 선물받은 장점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강점발견하기 • 자신의 단점을 탐색하여 이야기를 하고 집단원들은 이야기 맥락 속에서 강점을 발견하여 알려준다. • 집단원의 강점을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 줄 쓰기
	6		장벽 요인 및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완득이'를 보고 사회적 장벽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들을 탐색한 후 풍선에 적은 후 풍선 터뜨리기를 통한 진로장벽 깨뜨리기 • 진로장벽 대처 방법을 탐색해보기 • U자 모양의 웅덩이 안에 자신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탐색해보며 이야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 줄 쓰기
후 기	7	진로 성숙	진로흥미 및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인'들의 영상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한다. • 카드를 사용하여 직업가치관 경매하기 • 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직업, 원하지 않는 직업을 찾아서 배열하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 줄 쓰기
	8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계단 만들기(자신이 원하는 직업선정 후 삶의 전반 계획하기, 5년 후, 10년 후...) • 미래명함 만들기(000한 000) • '말하는 대로' 영상을 보며 함께 노래 부르기 • 회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 줄 쓰기

<표 11>과 같이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초기 3회기, 중기 3회기, 후기 2회기의 총 8회기로 구성되었고 각 회기당 90분씩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미술, 영화, 음악, 영상, 동작의 활동이 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다문화 관점 진로상담 이론에 따라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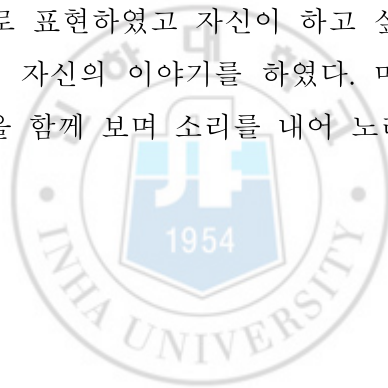
초기단계는 자기이해 단계로 상담자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그리고 집단원인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기탐색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1회기는 관계 형성 단계로 연구참여자들 각자는 스스로 자신의 별칭을 만들고 소개하며 집단의 긴장을 완화하고 정서를 완화하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국내 음악프로 비긴어게인의 '길' 영상 시청을 통해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

하고자 하였다. 이 영상은 여러 명의 가수가 함께 부르는 것으로 참여한 가수들 각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외국인 가수가 한국에서 ‘가수라는 길’을 어떻게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길’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현재 상황, 감정 등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별하고 이야기하며 자기서사를 내러티브로 표현하였다. 2회기는 자기탐색 단계로 가수 윤도현의 ‘나는 나비’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며 자기 탐색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자신을 동물로 표현하며, 자신을 객관화시켜 탐색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 외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스스로를 이해하게 하였고, 이야기 보드게임임 ‘딕싯(Dixit)’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경험하며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3회기는 자신의 환경이해 단계로 인형치료카드를 활용하여 자기의 가족 가계도와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를 만들어보고 이야기하게 하였다. 이 단계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환경도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을 통해 그들 자신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기단계는 긍정적 자아상 형성 진로장벽 대처 단계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는 경험 중 성공했던 경험과 자신의 장점 및 단점 탐색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진로장벽 대처 단계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 내용을 찾아보고 대처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회기는 성공경험 탐색 단계로 디즈니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를 감상하고 성공한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였던 기뻐던 순간이나 성공했던 경험을 탐색하고 이미지로 표현하여 그리고 이야기하였다. 5회기는 축구선수 박지성의 ‘강점’ 영상을 시청하여 강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장점카드 게임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장 알맞은 장점을 선물하여 각자는 자신이 받은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집단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집단원들은 경청한 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서로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공감하여주고 지지해주었다. 이 활동은 앞선 자기이해단계에서 충분한 라포형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잘 형성되었을 때 진행해야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6회기는 진로장벽

대처 단계로 영화 <완득이>를 보고 주인공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장벽에 대해 탐색하였다. 탐색한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화지에 도식화하여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장벽요인들을 풍선에 적어 터뜨리는 동작 활동도 하여보았다.

후기단계는 진로성숙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를 구상하여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회는 진로흥미 및 탐색단계로 영상 ‘아무튼 출근’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인들의 직업 활동과 이야기를 통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와 흥미를 유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가치관 경매하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을 탐색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탐색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8회기는 진로계획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모습을 인생 계단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의 명함을 만들어 집단원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말하는 대로’ 음악 영상을 함께 보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불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4.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의 인터뷰, 프로그램 회기별 녹음자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작품, 사진, 소감문,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성찰 일지 등을 포함한 상담기록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사례연구의 강점으로 복잡한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김영순 외, 2018:358; 김영천, 2017:593).

자료수집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집단으로 진행되기에 프로그램 진행 전에 개별 내담자의 적응 정도와 현재 심리상태 및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인터뷰를 30분씩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은 G 중학교 상담실에서 1회 90분씩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시 동료 상담사이며 연구자인 인문융합치료 박사 1인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해당 학교 담당 교사도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관찰하며 기록하여 연구자와 공유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경험으로 인한 진로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연구참여자와 30분가량 줌(ZOOM)을 활용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내용과 상담내용은 내담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인 반응의 행동 관찰이나 상담자의 성찰 등을 상담기록으로 남겼다. 상담 이후 녹음자료는 상담내용과 행동 관찰 등을 포함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에 나타난 고유명사와 개인정보 그리고 내담자의 신상을 할 만한 정보는 모두 기호로 처리한 후 평정자들과 공유하였다. 각 회기별 연구참여자의 미술 및 사진 작품, 소감문 등의 자료도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각 회기에 연구참여자의 행동 관찰을 기록한 기록물과 연구자의 성찰을 기록 정리하여 수집하였다.

4.2. 자료분석

질적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수행되며 상호보완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김영천, 정상원, 2017:111).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의 개별 인터뷰와 프로그램의 각 회기가 종료되자마자 당일 즉시 녹음 전사와 작품분석 등 회기 시 도출된 자료들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모인 자료들을 분석하며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프로그램 진행 중의 참여관찰과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까지의 자료원들이 모두 수집되었을 때 전체적인 자료 분석을 시작하였다. 이때, 본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인터뷰 내용에 관한 분석에 사용된 문장은 ‘연구참여자 #의 본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와 ‘연구참여자 #의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본 프로그램 진행 당시 참여관찰에 의해 전사된 문장은 ‘연구참여자 #, #회기’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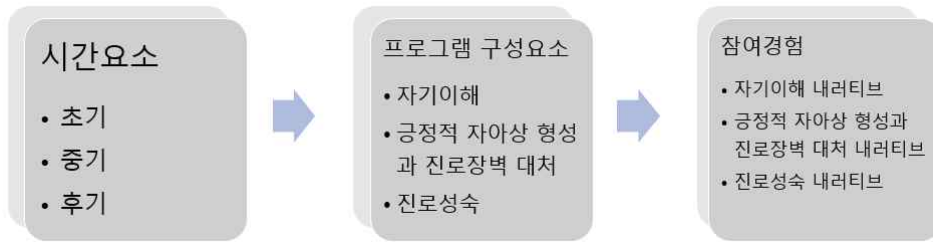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문제인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은 다음 다섯 가지와 같다(Yin, 2009). 첫째, 패턴매칭이다. 이는 자료수집 전과 실제 결과에서 보인 패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에서 도출한 범주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아서 나타난 공통점을 결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인과적으로 설명하기로, 사례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예측했던 현상이 실제로 그러한가를 인과적으로 밝히거나, 무엇이 ‘어떻게’와 ‘왜’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설명은 현상의 발생과정을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연구의 증거를 살피고 설명적 명제를 수정하는 등의 새로운 관점으로 증거를 검토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셋째, 시계열분석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단순 시계열과 복잡한 시계열 그리고 연대기적 분석이 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 간의 관계나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넷째, 논리모델이다. 사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조직화한다. 원인과 결과의 패턴을 순환하여 성과를 평가하며 패턴 매칭과 시계열분석을 동시에 적용한다. 다섯째, 사례통합이다.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조합하거나 여러 개의 사례로 구성된 동일한 연구에서의 사례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다중사례연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적인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통합분석은 연구사례가 반복된 것인지 대조적인 것인지 밝혀낼 수 있다. 각 사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표로 제시하여 한 개 이상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사례통합으로 분석된 표는 수치적 합계보다 논쟁적 해석이 더 중요하다.

위의 다섯 가지 분석기법 중 인과적으로 설명하기와 논리모델로 분석하는 기법은 패턴매칭 분석기법 중 특수한 기법에 속한다(Yi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기법으로 크게 패턴 매칭, 시계열분석, 사례통합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절차는 먼저 기술적 측면으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관찰하며, 참여 및 성찰일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1차에서 3차까지의 코딩작업으로 코드와 범주들 사이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즉, 각 연구참여자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경험을 분석하고, 다중사례들 사이에서 일치 및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범주화하고 사례연구 결과들을 조합하여 분석을 통하여 특징을 종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므로 이들의 참여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은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삼았다. 즉, 자기이해 내러티브,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 내러티브, 진로 성숙 내러티브는 자료분석기준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회기 진행에 따라 도출된 내러티브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료분석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자료분석틀

[그림 5]에 제시된 자료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각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간요소와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분석을 통한 사례 내 분석을 한 후, 모든 사례를 종합한 후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반복하여 읽은 후에 각 사례에 언급된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 사례의 자기이해, 긍정적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대처, 진로성숙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 단계를 분석하였다.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사례를 유형화하고 그것들의 공통점 및 특징을 찾아 명명화하였다. 분석 자료들에 관한 결과에 대해 지도교수와 동료 점검(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및 과정생)과 함께 평정 작업을 진행하며 점검받았다. 사례 간 분석에 관한 기술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에 사용된 전사록은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 A4 28장, 프로그램 진행 시 관찰 전사록 A4 80장,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A4 19장으로 총 A4 127장이고 글자 수(공백 제외)는 총 89,765자이다. 또한 그림은 16장, 사진은 15장, 소감문(한 줄 쓰기) 32장,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29장이다. 이들 모든 자료를 통해 자료분석을 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발견, 해석, 주관적 통찰을 중심으로 연구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질적연구의 신뢰성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이 얼마나 엄격한 타당도 작업을 하였는지에 따른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에 대한 검증으로 Lincoln &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 현장에서의 자료수집과 해석이 생생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잘 드러내야 한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으로 관찰과 현장학습, 공식적 자료 등을 포함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제안된다. 본 연구프로그램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프로그램 실행 전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개별 인터뷰, 청소년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관찰 활동을 해왔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중 연구참여자들의 행동이나 감정표현 등에 대한 상담자의 관찰기록이나 연구참여자들의 미술작품 및 사진 자료 등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전사 자료와 함께 비교 검증하며 사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를 기술한 내용과 분석한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지각과 경험을 연구자가 왜곡 없이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는지 피드백을 받았다. 둘째, ‘적용가능성’은 연구 결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다른 집단에도 적용가능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본 연구자는 지도교수, 전공교수 그리고 동료 등이 연구 결과를 읽고 본인의 경험 세계에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셋째, ‘일관성’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자료원을 제시하고 일관된 진술을 기록하는 것이다. 김영천(2017)은 제시된 연구 절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서 수행할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나 연구자의 시각, 연구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일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전사본과 연구참여자들의 작품과 한줄쓰기 메모, 사진자료, 연구자의 성찰일지 및 관찰일지 등의 분석을 통해 일관성을 기록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의도된 결과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

의 모든 과정에 판단중지와 괄호치기 기법을 사용하여 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이 필요하다(Guba, 1981). 본 연구에서 전사록을 작성할 때에 연구참여자들의 행동이나 표정, 집단의 분위기, 등을 괄호치기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삼는 질적사례연구이며, 본 연구 설계상 연구자가 상담자와 연구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진행하는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IRB 심의승인(200824-7AR)을 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의견 및 권고사항은 연구대상자, 타인 혹은 사회에 대한 직, 간접적 이익 여부의 기술과 연구참여자의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최종심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국가 과학기술인력개발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들에게 IRB 승인받은 설명문을 제공하였고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절차, 연구에 수반 될 수 있는 위험과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수집된 자료들의 보호 방안, 비밀보장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했더라도 연구 진행 중에 언제라도 연구참여 중도 포기를 요구할 수 있고,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중단된 참여자의 자료는 중단 즉시 폐기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의 상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IRB가 승인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후에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연구 진행 시 상담 녹음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지하였다. 녹음된 상담내용은 한글파일로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와 상담 중 획득한 기타 자료들에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록 가명이나 기호로 기록하였다. 평정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도 개인정보는 가명이나 기호로 변경하여 전달하였다. 연구자가 활용 중인 참여자 자료들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고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서만 사용 중이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기록들은 연구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생명윤리법에 의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IV.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

IV장은 연구문제 1인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과로 연구참여 자별 참여 경험을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사례를 초기(1~3회기), 중기(4~6회기), 후기(7~8회기) 단계로 분류하고 상담 과정 시 수집된 작품들과 내러티브를 자기서사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회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실제적 경험과 감정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대면하고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서사이다(박혜숙, 2002).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 동작, 글, 말 등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는 ‘자기이해’ 영역으로 1회기 관계형성, 2회기 자기탐색, 그리고 3회기 환경탐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이해의 단계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간의 라포형성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서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그들의 작품이나 동작, 언어, 글을 듣고 이해하고자 서로에게 집중하였다.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별칭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영상을 볼 때, 사진을 선택할 때, 그림 및 글로 표현할 때 충분히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며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하여 들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 보드게임을 통하여 서로의 시선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며 존중하여주는 태도를 나타냈다.

중기는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의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긍정적 자아상’ 관련 내용은 4회기와 5회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 관련 내용은 6회기에 진행되었다 초기에 진행했던 자기와 환경탐색을 기반으로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초기에 형성된 집단의 라포로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각자

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갔다. 다음으로 각자 경험하는 진로 장벽에 대한 서사를 통해 각자가 경험하는 장벽의 요인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벽임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장벽을 낮추는 방법 등을 생각해 내고 있었다.

후기는 ‘진로성숙’ 영역으로 7회기 진로탐색과 8회기 진로계획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초기에서 이해한 자신에 대한 서사와 중기에서 형성한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 극복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기서사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해 응원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서사를 요약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참여자의 자기서사

구분	초기(1-3회기)	중기(4-6회기)	종결(7-8회기)
A	<p>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이다. 홀로 있을 때가 많고 내면에서는 혼자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한다. 엄마가 걱정되고 새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은 나무처럼 안정감이 느껴진다.</p>	<p>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과 긴장감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장점을 발견하였다. 낮은 성적, 어려운 가정경제,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실력이 장벽으로 연습으로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p>	<p>자신이 법 관련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 메이크업아티스트, 번역가, 요리사 등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길 원한다.</p>
B	<p>어느 길로 가든지 힘들 것 같다. 혼자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부모님은 항상 무섭고 두렵다. 담임선생님이 좋다.</p>	<p>과거에는 친구가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 현재는 친구가 있어서 재밌고 미래에는 더 많은 친구가 생길 것 같아 기대된다. 긍정적이고 친밀함을 가지고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재다능하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낮은 성적, 어려운 가정경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부족이 장벽으로 특히 용기를 갖기 위해 학습을 해 보려 한다.</p>	<p>활력을 가지고 활동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잘 가르치는 체육교사가 돼서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고 싶다.</p>
C	<p>뛰기는 길도 있고 헛갈리는 길도 있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 한다. 부모님이 무섭지만 나는 가족을 지키려 한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는 어른들이 많다.</p>	<p>현재는 눈은 웃으나 슬프기도 하다. 미래는 화나지도 즐겁지도 않을 것 같다. 끈기가 있고 배려심이 있으며 타인을 잘 돕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어려운 가정경제, 낮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장벽으로 특히 모르는 문제는 바로 해결하며 공부를 해야겠다.</p>	<p>헌신, 즐거움, 성취, 리더십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중에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p>
D	<p>하고 싶은 길과 그만둔 길이 있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부모님은 무섭다. 담임선생님은 나비처럼 예쁘다.</p>	<p>초4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학을 와서 왕따로 힘들었다. 현재는 친구가 있어서 많이 웃는다. 미래는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매력이 있고 강인하며 독립적이나 친구들과의 친밀하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낮은 성적, 어려운 가정경제, 의지 부족이 장벽으로 특히 부족한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p>	<p>책임감과 성실함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신뢰감을 주는 키지노딜러가 되고 싶다.</p>

1. 연구참여자 A: 꿈이 많은 내담자

1.1. 초기단계

연구참여자 A(이하 A로 표기)는 다양한 진로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느끼어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A의 활동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3>과 같다.

자신의 ‘길’ 그림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속상함과 진로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에 대해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에는 햇빛처럼 좋은 기회들이 올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사진에 대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야기였다.

“(현재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 뭔가 앞으로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서 뭔가 속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햇빛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1회기)

“(소망하는 사진) 이거는 집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자.” (1회기)

A는 혼자서 있는 것을 즐기며 생각이 많고 공상적이며 내향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1회기 별칭을 지을 때 자신을 슬픈 과거가 있는 게임 캐릭터 ‘케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코알라’로 표현하며 혼자서 있는 시간을 즐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딕싯’ 보드게임에서 자신이 선택한 그림카드를 ‘행복’이라고 하였고 이유로 그림이 같이 사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A는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 때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화나는 감정, 우는 감정 등을 자신 얼굴 그림에 표현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케이라는 주인공 만화 캐릭터를 찾아서 모두에게 보여주며) 케이.. 아, 나쁜 사람은 아니고 조금... 과거 조금 슬픈.... 아니, 과거가 조금 슬픈...” (1회기)

“그리고 대부분 친구랑 같이 사는 시간 별로 없어요.” (2회기)

“(자신의 얼굴 그림에 무늬를 그려 넣는다) 뭔가 표정, 감정 그런. 감정 그런 것... (중략) 화나는 것, 우는 것 그런 감정...(중략)... 혼자서는 제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잡고 스스로 제가 저 혼자서 대화를 해요.” (2회기)

자신의 한국인 새아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으나, 새아빠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가서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표현하였다. 새아빠를 표현할 인형치료카드를 선택하는 데 오래 고민하였다. 고민 끝에 새아빠를 불곰으로 표현하였는데 무서운 이미지보다는 자신과 엄마를 지켜주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소중해요. 약간 뭐 든든하고 지켜주고 이런, 이런, 무서운 거는 아닌데...” (3회기)

엄마는 토끼로 표현하였으나 이모들과 삼촌들은 불곰, 호랑이, 버팔로, 악어 등의 크고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였고 친척들이 타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담임선생님을 나무로 표현하며 선생님에 대해 의지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책임감도...” (3회기)

이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A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신에 대한 탐색에 집중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 왔던 진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철조망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내향적 성향을 별칭과 동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였고, 자신의 상황 및 가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주위에 누가 있는지와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새아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불곰’으로 표현하며 힘이 세고 가족을 지켜줄 분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A는 외국인 가정의 국내출생자녀였으나 친부모의 이혼과 친모의 한국인 남자와의 재혼으로 국제결혼자녀가 되었다. 현재 A의 가정은 재혼가족으로, 재혼가족

은 가족생활주기의 분열인 동시에 새로운 가족생활주기의 시작이다(김유숙, 2017:40). 즉 이전의 가족생활주기 중 일부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가족생활주기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A는 새아빠의 잦은 출장으로 만나지 못하여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정환경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위축된 정서가 나타나게 한다(김연정, 2015). 그러나 A는 새로운 가정환경의 심리적 불안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표 13> 연구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자기 이해	관계 형성 (1회기)	음악 (그림)	비긴어게인 '길'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고민 중이다.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포기한 것도 있다.
		사진		앞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속상할 수 있지만 뭔가 햇빛도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가득히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소감문	재미있고 더 꿈을 펼치 고민해 봐야 된다.	
	자기 탐색 (2회기)	음악 (그림)	윤도현 '나는 나비' 	코알라는 혼자있을 때가 많은 것 같고. 나랑 비슷하다.
		그림		얼굴 옆에 무늬들은 행복한 감정이다. 내면에서는 혼자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화나는 감정도 있다.
		보드게임		행복했다. 이유로는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다.
		소감문	재미있다. 생각을 따르다. 더 이해한다.	
	환경 탐색 (3회기)	인형치료 카드		아빠는 무섭기보다 힘이 세시다. 든든하시다.
				담임선생님은 나무이다. 안정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영화 (이야기)	'마당을 나온 암탉' 차별에 관한 이야기 같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여자라고 거절당한 적이 있다.
	소감문	관계를 정리하면서 여러 더 잘 이해하고 재미있다.		

1.2. 중기단계

중기단계의 참여경험은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의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자아상”에 대한 것으로 A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4>와 같다. A는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가 꿈을 꾸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그 변화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에 나의 행동이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과 관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뭔가 나비효과인가 있잖아요. 긍정적 미래처럼 또 나쁜 미래가 있을까?” (4회기)

A는 긍정적인 과거 경험을 웃는 표정으로 표현하였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한 현재를 붉은색 땀방울로 이미지화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의 의지로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자신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해외여행 가는 내용을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18살로 학교 친구들보다 먼저 조만간 어른이 될 것이고 지금은 어른이 되기 전 단계로 긴장과 불안이 있지만 기대감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기의 말과 행동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네. 뭔가 조금 어느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제가 조금 긴장되는 느낌.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으로 가고..” (4회기)

“지금 어른이라고 볼 수 있어. 진짜 사실 나이가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올라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느낌” (4회기)

또한 집단상담에서 진행된 강점찾기 프로그램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집단원인 친구들이 발견하여 줘서 놀랍고 고마워하였다. A가 항상 열심히 생활했던 것을 친구들은 성실함과 열정으로 이해하였으며 어른들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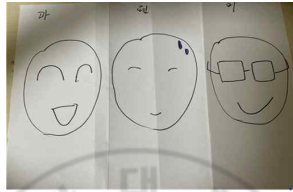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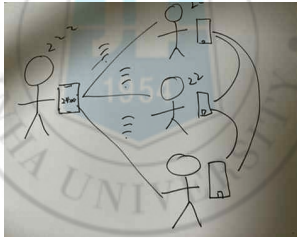
사하고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A 모습에서 예의가 바르고 생각이 깊다는 것을 집단원인 연구참여자들이 발견하여 주었다. A 자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긴장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스스로 자신을 바보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집단원이 이런 모습이 신중하며 진중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은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적을 것이라며 장점을 발견해 주었을 때 놀라움을 느꼈다.

“조금 좀 긴장됐어요 한국에 와서도 뭔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있고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제가 제가 선택 때문에...(중략)..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괜찮네.” (5회기)

이와 같이 A는 초기단계에서 나타났던 자신의 신중하고 성실한 성향을 중기 단계에서 장점으로 발견하고 발전시켰다. A는 스크루지의 행동 변화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주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향적 성향이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집단친구들이 자신이 단점에서 신중함과 진중함을 발견하고 이야기하였을 때 A는 스스로에 대해 신뢰함을 얻은 것으로 보였다.

A는 집단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며 자기수용과 자기존중을 가지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또래 관계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있으며(장연주, 신나민, 2015), 자기유능감 및 만족감을 경험하게 한다(박선희, 2010).

<표 14>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경험 탐색 (4회기)	영화 (그림)	<p><크리스마스 캐롤></p>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미래장면에서 나비효과가 생각났다.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꾸면 나의 다른 주변의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혹 그들에게는 안 좋은 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림		<p>과거는 환하게 웃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녀서 즐거웠다</p> <p>현재는 기분이 좋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있다.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다.</p> <p>미래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해외로 여행 갈 것이다. 바다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해변에 친구들이랑 누워있을 것 같다.</p>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밤새 SNS로 연락할 때 행복하다고 느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유지를 위해 배려하려 하고 그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소감문	나의 미래가 있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강점 찾기 (5회기)	영상	<박지성의 나만의 장점 찾기>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을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서 고맷다. 특히 나의 강점은 성실하고 열정적이며 예의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점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실한 2. 열정적인 3. 예의바른 4. 독창적인 5. 생각깊은 6. 지식이 많은 7.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낯을 많이 가려서 많이 긴장하고 스스로 바보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단점에서 장점을 찾아주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놀라워하였다.	
		소감문	단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4회기 작품은 ZOOM상담으로 진행되어 A가 집에서 작업한 작품을 SNS 통해 받음

두 번째는 ‘진로장벽’에 관한 것으로 다음 A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표 15>와 같다. A는 중국에서 아빠가 없이 엄마, 이모와 이모의 딸과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엄마가 의지했던 외할머니의 죽음은 자신에게도 큰 슬픔과 어려움의 사건으로 기억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나 연락이 없는 무관심한 친아빠로 힘들었던 자신과 엄마의 생활을 이야기하였다.

“(영화 <완득이>를 보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 원래는 같이 사는 것이 나랑 엄마랑 그리고 우리 이모, 언니가 같이 살아요. 아빠가 없어요, 제가. 아빠는 계속 한국에 계시는데 연락 없어요.” (6회기)

A는 초기 단계에서도 엄마를 토끼로 표현하였는데 엄마의 슬프고 힘든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A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낮은 성적, 부족한 그림 실력, 아티스트로서는 작은 손. 그리고 어려운 가정 경제력을 장벽으로 꼽았다. 그중에서 부족한 그림 실력 향상을 통해 장벽을 낮추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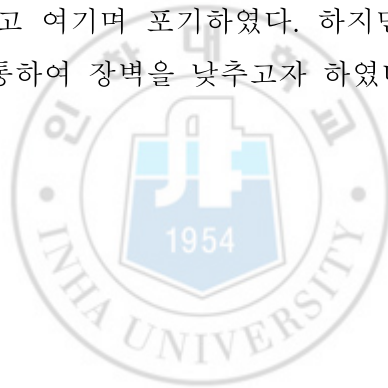
“성적... 그림 못 그려요. 경제가 안 돼요. (중략)손이 작아요...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중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 그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수업받고... 제가 어디 안 되는 방법을...” (6회기)

A는 응딩이화를 통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험했던 슬픈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슬픈 비밀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였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은 자신에게 힘들었던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엄마와 친구가 달려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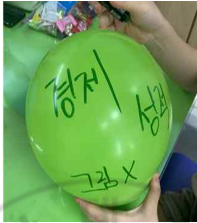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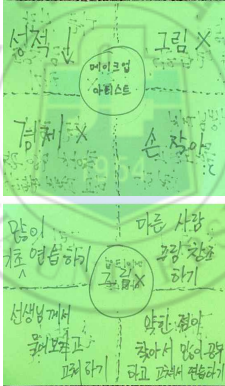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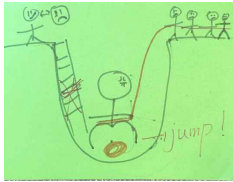
“제가 여기 있는데 나쁜 사람이 왔어요. 사다리를 주는데 안 돼요. 못 가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친구랑 엄마랑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밧줄로 했어요. 친구였는데 이거는 조금 슬픈 그런... 비밀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중략).. 오래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원래는 친구예요.. 웃었어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웃었어요. 아... 완전 친한 친구였는데...” (6회기)

이와 같이 A는 친부와 친모의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풍선 터뜨리기 활동 시 A는 자신의 어려움을 풍선에 적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터뜨리고자 하였다. 잘 터지지 않는 풍선을 여러 차례 밟으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터트린 후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또한 A는 현재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게 되면서 시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A는 국제결혼가정 중 재혼가정으로 환경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어의 구사능력 부족과 가족의 부족한 지지 환경은 A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은 개인적 요인인 자신의 학습능력부족과 낮은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갈 수 없다고 여기며 포기하였다. 하지만 A는 주변의 사회적지지(학교선생님, 친구들)을 통하여 장벽을 낮추고자 하였다.



<표 15> 연구참여자 A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장벽	진로 장벽 요인 및 대처 방안 (6회기)	영화 (이야기)	<완득이> 엄마가 없어서 어려웠을 것 같다. 소리를 지르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다. 완득이는 체력이 좋은 것 같다. 운 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 은 것 같다.	중국에서 아빠없이 엄마, 이모랑 같이 살았다. 엄마가 의지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 들어하셨다.	
		동작/풍선 터뜨리기		처음에 잘 안 터졌는데 터뜨리 니 뿌듯해요	
		그림	진로 장벽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인데 성 적이 낮고 부족한 그림 실력과 경제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아티 스트로는 손이 작은 편이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극복을 위 해 기초를 많이 연습하고 다른 사람 그림을 많이 참고하며 선 생님께 많이 물어보면서 배워야 겠다. 또한 약한 부분들을 찾아 서 공부하고 연습해야겠다.
			옹 덩 이 화		처음에는 나 혼자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사다리를 내려주었 는데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런데 엄마랑 친구가 와서 밧줄을 내 려주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친구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 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 의 슬픈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웃었다. 너무 슬픈 이야기다.
소감문	언제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는 거야				

1.3. 후기단계

후기단계에서 A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6>과 같다. A는 다양한 직업인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특히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었기에 화장품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런데 직업 카드 작업 시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인 법 관련 일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연구참여자 A는 오래전부터 법 관련 영역의 일을 하고 싶었고, 특히 판사, 변호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며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이 분야의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고 다른 분야에서 진로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직업카드를 찾는데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도 괜찮아요? (중략) 판사, 변호사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 좋아해요.” (7회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 자신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서 법률적 분야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성장하며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만 자유롭게 다양한 여러 분야의 일도 해 보고 싶은 포부를 나타냈다. A는 5년 후에는 법대를 다니고 10년 후에는 변호사 일을 하며 메이크업을 취미로 배우고 20년 후에는 영양사 공부도 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어책을 한국어로 번역도 하고 자신의 책을 써 보고 싶다고도 하였다. A가 자신의 인생계획을 이야기할 때 함께 한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하였다. A는 무엇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펼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였다.

“조금 자유... 자유롭게. 그리고 성장은 천천히 요렇게 하다가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변호사.” (8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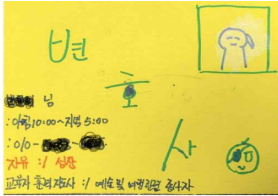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A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

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이같이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장벽들, 특히 언어로 인해 자신이 가진 다양한 소망들을 좌절하고 포기했었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그 소망들을 다시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였다.

A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새로운 가족형성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A는 집단을 통한 신중함, 성실 등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해하며 이미 포기했던 진로들과 오래 전부터 꿈꾸고 있던 진로까지 발견하며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나타냈다.



<표 16> 연구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성숙	진로 탐색 (7회기)	영상	다양한 직업군 영상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																								
		게임(직업 가치관 경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가치</th> <th>투자 금액</th> <th>낙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항공</td> <td>5530</td> <td>30</td> </tr> <tr> <td>2</td> <td>도전</td> <td>705</td> <td></td> </tr> <tr> <td>3</td> <td>게임</td> <td>7035</td> <td>35</td> </tr> <tr> <td>4</td> <td>과학</td> <td>8510</td> <td></td> </tr> <tr> <td>5</td> <td>법학</td> <td>20</td> <td></td> </tr> </tbody> </table>		가치	투자 금액	낙찰금액	1	항공	5530	30	2	도전	705		3	게임	7035	35	4	과학	8510		5	법학	20		계약이나 틀에 매이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또한 발전하고 좋아지는 성장하는 모습이 좋다.
			가치	투자 금액	낙찰금액																							
		1	항공	5530	30																							
	2	도전	705																									
	3	게임	7035	35																								
	4	과학	8510																									
	5	법학	20																									
	직업카드	법/사회	법/사회	법/사회-평가 분석 판단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과학 분야는 하고 싶지 않다. 원리나 개념 파악이 어려워 과학 과목이 싫다.																								
	소감문	신기한 직업을 알았다.																										
진로 계획 (8회기)	그림	인 생 계 단		5년 후에는 법대를 다니고 10년 후에는 메이크업을 해 주는 일, 20년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학교 영양사도 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어 번역하는 책도 써 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많다.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 보고 싶다.																								
		미 래 명 함		자유롭게. 그리고 성장은 천천히 요렇게 하다가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음악(노래 부르기)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환경적 어려움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소감문	많이 생각하고 정리하니까 자기 길을 어느 모양인지 알게 되었다.																										

2. 연구참여자 B : 활기찬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내담자

2.1. 초기단계

연구참여자 B(이하 B로 표기)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B의 활동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7>과 같다. B는 자신의 길 주위를 검은색으로 표현하였다. B는 어느 길로 가든지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별칭을 ‘부자’라고 짓고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부자’로 불러주길 원하였다. 계속해서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을 조금...” (1회기)

“(자신의 길 그림) 그냥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린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1회기)

“(소망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저는요 돈 많은 백수가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닐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1회기)

현재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을 통해 자신은 평소에 에너지가 많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특히 B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더 에너지가 생기고 신이 난다고 하였다. 자신을 ‘펭귄’으로 표현하며 펭귄이 서로 모여서 무리 지어 생활하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보드 게임에서 선택한 그림 카드를 ‘혼자만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외롭고 고독을 이야기하였다. 자신 얼굴 그림에서 집에서는 잘 웃지 않는 무표정이지만 친구들과 이랑 함께 있거나 카톡을 할 때는 항상 웃고 있다.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을 함께 친구들과 하여 더 기쁘다고 하였다.

“무리 지어 다니고 항상 무리가 붙어 있어요. 약간 친구들 좋아하고 같이 있는 것 좋아하고.” (2회기)

“(현재 자신을 표현한 사진 설명)그냥 평소에 긍정적이고 텐션이 높은 제 모습입니다. (즐거운 표정으로)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신나 있는.” (1회기)

자신과 동생을 제외한 아빠를 호랑이, 엄마를 코뿔소, 그리고 언니를 뱀과 같이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며 집을 무서운 곳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가정 외에 B를 지지하거나 공감해주는 유일한 어른으로 담임선생님을 이야기하였고 선생님을 귀여운 여우로 표현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B는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를 통하여 초록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집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응원하였다. 또한 외모로 차별하는 사회를 비판하였다.

“아빠는 무서워요... 엄마는 어, 그냥 평소에는 조금... 세요.” (3회기)

“차별! 생김새가 다른다는 이유로만으로도 웃었어요.” (3회기)

“(초록이가 떠나는 거에 대해) 좋아요.” (3회기)

이와 같이 B는 자신의 가정환경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현재 자신의 가정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였다. 가정에서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친구들이 채워준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리생활을 하는 펭귄이나 늑대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재 B를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고 있는 어른은 담임선생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호하게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초록이 독립을 이야기하며 자신도 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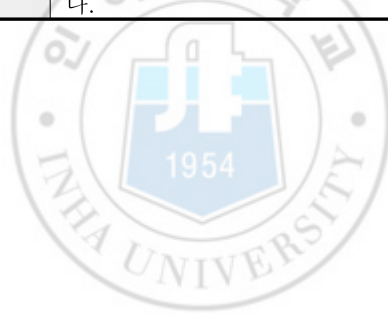
B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로 한국인 친부와 필리핀 친모와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 부는 나이가 많기에 적극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적지위가 낮은 다문화가정의 이주민인 모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최가희, 2020). B는 가정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부모를 무섭게 인식하며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B에게 부정적 환경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B는 또래관계를 통해 관계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표 17> 연구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자기 이해	관계 형성 (1회기)	음악 (그림)	비긴어게인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던지 힘들 것 같다. 아직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다.
		사진		평소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면 그냥 신이 난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소감문	재미있었다	
	자기 탐색 (2회기)	음악 (그림)	윤도현 '나는 나비' 	펭귄은 무리지어서 서로 붙어 다닌다. 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함께 는 것이 너무 좋다.
		그림		친구들이랑 함께 있거나 카톡할 때도 웃고 있다. 학교에 있으면 계속 웃는다. 집에서는 무표정이다.
		보드게임		혼자만 다르다
		소감문	작고 귀여운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들이랑 함께 보드게임하여 더 재밌었다.	

환경 탐색 (3회기)	인형치료 카드		<p>늑대는 무리지어 다니고 크기도 작은데 나 같다. 부모님은 항상 무섭다. 엄마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세시다. 동생이랑 좀 친하고 다른 식구들은 서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p>
			<p>담임선생님은 여우이다. 나는 여우가 귀엽다. 선생님과 관계가 좋다.</p>
	영화 (이야기)	<p>‘마당을 나온 암탉’ 생김새가 달라서 차별한 것 같다. 초록이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p>	<p>이건 차별이에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비웃었어요</p>
	소감문	<p>가족관계도를 하면서 누가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알게 됐다.</p>	



2.2. 중기단계

중기단계의 참여경험은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의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자아상’에 대한 것으로 B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8>과 같다. B는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의 과거 모습을 공격적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화난 표정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 얼굴 변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단 화나 있고.. 말투도 날카로웠어요. 공격적으로..(중략).. 약간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모두들 떠나가고. 돈? 일만 열심히 하고.” (4회기)

B는 과거에는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친구가 있는 현재는 즐겁고 앞으로 미래에도 친구가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또한 어른이 되면 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옛날에는 과거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이...” (4회기)

“성인이 되면 제한이 많이 풀려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4회기)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였을 때 자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다. 행복했던 경험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잠시 후 집단 친구들이 작업하는 것을 한참 본 후에야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전 학교에서 학급별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자신의 반은 밴드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싱어를 지원하였다. 반 친구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열심히 연습했더니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경험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B가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였거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연구참여자들은 B가

얼마나 잘했는지 멋있었는지 칭찬해주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앞에서 B의 노래를 들었다며 B를 자랑스러워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B가 노래 외에도 잘하는 것이 많다고 B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1등 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잘 불렀어요.” (C, 4회기)

“춤도 잘 춰요.. 친밀감.. 친하고 가까워요.” (D, 4회기)

연구참여자들은 B의 장점이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긍정적이고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다재다능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B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하게 웃었다. 반면 자신의 큰 목소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단점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집단 친구들로부터 활발하게 느껴지며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는 이야기에 놀라워하며 고마워하였다.

“(자신의 단점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목소리가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B, 4회기)

“목소리가 크니까 기운 넘쳐 보여요. 기운 넘쳐 보이니까 되게 활발해 보이고...” (D, 4회기)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발표 같은 것 할 때 목소리가 크면 장점이예요.” (C, 4회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아, 너무 좋아요.” (B, 4회기)

무엇보다 B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장점을 찾아줄 때 지난 회기 중 자신이 들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였고 적절하게 그들의 장점 근거로 말하였다.



B는 스크루지가 잠을 자기 전 사람들에게 했던 말투나 표정 등을 ‘화난’, ‘공격적으로’, ‘차갑고’, ‘냉정하고’, 단어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단어를 말할 때 본인도 화가 난 듯이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이 보였다. B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도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표현해왔다. 반 대항 장기자랑 대회에서 1등 했던 경험조차도 빨리 떠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 기뻐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

다. 또한 B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가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였고 그렇기에 B는 연구참여자들의 칭찬과 공감에 더욱 고마워하였다.

B는 자신의 가정을 무서운 환경으로 인식하며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며 공감받고 지지받고자 하였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이규미 외, 2001). 특히 B는 집단을 통해서 자신이 긍정적이며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자신의 활발함이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는 장점을 발견하며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들의 다양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장연주, 신나민, 2015), B의 영어발음, 가창실력 등에 대한 집단원들의 지지는 B의 자기효능감을 높였다.



<표 18>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경험 탐색 (4회기)	영화 (그림)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롤’ 	주인공은 과거의 차갑고 냉정한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던 것 같다. 주인공은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을 중요시했던 것 같다.	
		그림		과거에는 표정이 없었다. 친구가 없었기에 재미가 없었다. 현재는 웃고 있다. 요새는 친구가 있어 즐겁다. 미래는 더 많이 웃고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어른이 되면 지금 제한된 것들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던 순간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얼마 전 학교에서 학급별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우리 반은 밴드를 하였는데 나는 싱어였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여 1등을 하였다	
		소감문	내가 어느때에 행복한지 알게 되었다.		
	강점 찾기 (5회기)	영상	<박지성의 ‘나만의 장점 찾기’>		나의 강점은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긍정적이며 다재다능한 것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난 원어민이다. 내 발음은 멋있다’ 라고 스스로 암시를 하는 편이다. 큰 목소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큰 목소리가 활발해 보이고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는 친구들의 말에 놀라웠고 고맷다.
		장점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긍정적인 2. 우정을 나누는 3. 친밀한 4. 다재다능한 5. 모범적인 6. 순수한 7. 열정적인 8. 공동체적인 9. 호기심 많은 		
			소감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두 번째는 ‘진로장벽에 관한 것으로 B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19>와 같다. B는 영화 <완득이>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경에서도 삶을 책임감이 있게 끈기로 살아가는 완득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완득이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완득이의 강점 기반을 발견하였다. 자신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시다. 식구는 많은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B는 자신도 완득이와 비슷한 진로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크게는 경제적 어려움이고 다음으로 낮은 성적이다.

“(영화 <완득이>를 보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저는 제가 늦둥이인 편이고 아래 더 늦둥이인 막내가 있는데 약간 부모님, 늦둥이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는데... 식구는 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중략) 낮은 성적이랑 가정형편이랑...” (6회기)

B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것 같으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좀 더 수업에 집중해 볼 것을 이야기했다. B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한 현실의 어려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생님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범한 거...” (6회기)

“낮은 성적이랑 가정형편이랑 그리고 취업난이랑 용기.” (6회기)

하지만 연구참여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친구들이 많이 있기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랑 엄마.. 뱃줄이요.” (6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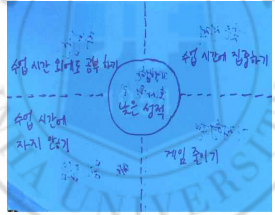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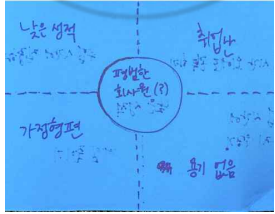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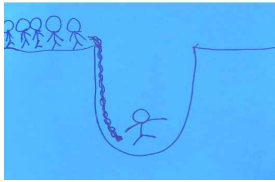
이와 같이 B는 본 프로그램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경제 및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완득이가 자신의 재능에 대한 노력과 끈기 그리고

책임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찾으려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의지하는 친구들이 함께 도와줄 것을 믿고 있었고, 무섭고 두려운 엄마지만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B가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은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이다. 학업성취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학습과제를 해결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으로 부모의 학력,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현지영, 김경근, 2015). 경제적 어려움은 환경적 요인이고 학업성취는 개인적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이 개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B는 사회적 지지인 또래집단의 공감과 응원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개인적 요인인 학업성취를 높이려고 하였다.



<표 19> 연구참여자 B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장벽	진로 장벽 요인 및 대처 방안 (6회기)	영화 (이야기)	‘완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 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완득이는 끈기와 책임감 이 있다. 완득이에겐 선생님이 있 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식구 는 많은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시다. 그래서 경 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동작/풍선 터뜨리기		여러 장벽들이 생각났기에 적는 데 오래 걸렸다. 풍선을 터트리 기 위해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 고 가슴으로 안아보기도 하고 발로 밟아 보기도 하였다. 하지 만 잘 터지지 않는 풍선을 터트 리고자 여러 번 시도했고 결국 터트렸다.
		진로 장벽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다. 하 지만 낮은 성적과 취업난과 가 정형편이 어려워 걱정이 되고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 용기 가 부족한 것 같다. 그중에 성적 이 낮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 았다. 극복을 위해 수업 시간 외에 도 복습이 필요한 것 같고 무엇 보다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집 중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을 줄여 야 할 것 같다.
		그림		
		응 딩 이 화		친구들이랑 엄마가 와서 나를 꺼내줄 것 같다. 나는 여기를 나 갈 수 있을 것 같다
		소감문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2.3. 후기단계

후기단계에서 B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0>과 같다. B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은 없지만 다양한 직업인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흥미롭게 집중하였다. 자신은 활동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며 일을 하며 삶에 활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직업가치관 경매 활동 시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선택하여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는데 B는 미리 선택한 다른 가치관들은 포기하면서도 오직 ‘활력있는’ 이라는 가치관 카드만을 큰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웃으며 활력카드를 보여주며) 저는 이게 1순위라서요. 저는 다른 건 원하는 게 없어요.” (7회기)

특히 B가 직업카드 활동에서 ‘체육교사’카드를 발견하고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누구보다 크게 기뻐해 주며 연구참여자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었다. 연구참여자는 집단 친구들의 큰 호응과 공감에 놀라며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계속 고민해 오던 것을 해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며 만족하였고 즐거워하였다.

“(직업카드를 보며) 어.. 체육교사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B, 7회기)

“와아!!! (집단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울릴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모든 연구참여자, 7회기)

이것은 진로계획에서도 나타났는데 자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였다. 또한 체육교사라는 미래명함을 만들면서 자신이 정말 체육교사가 되어 즐겁게 일을 할 것을 상상하였다.

“학교 체육교사...(중략) 좀 멋져야. 돼요. 그 분야에 관련해서 잘하는 사람...(중략)..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가지고 즐겁게 하는...” (8회기)

마지막으로 B는 집단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누구보다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였다.

B는 본 프로그램의 초기단계부터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며 진로에 대해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친구들과 즐겁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보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유쾌하고 활력있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던 B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였고 기뻐하였다.

“(진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함께해서 재미있었나 되게 같이 놀 수 있어서...(진로에 대한 생각이)..바뀌었어요. (웃으며) 너무 긍정적이죠.” (8회기).

B는 초기에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낮은 학업성취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하지만 집단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며 집단의 지지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외적, 내적 장벽보다 진로발달 과정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Blustein, 2018:144).

<표 20> 연구참여자 B의 후기단계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성숙	진로 탐색 (7회기)	영상	다양한 직업군 영상	특별히 관심 있는 직업이 없었지만 다양한 직업관련 영상이 재미있었다.																														
		게임 (직업가치 관 경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개체</th> <th>투자 금액</th> <th>낙찰금액</th> <th>주인순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불력</td> <td>35</td> <td>35만</td> <td>1</td> </tr> <tr> <td>2</td> <td>흔들</td> <td>20</td> <td></td> <td>2</td> </tr> <tr> <td>3</td> <td>5년</td> <td>10</td> <td></td> <td>5</td> </tr> <tr> <td>4</td> <td>성찰</td> <td>20</td> <td></td> <td>3</td> </tr> <tr> <td>5</td> <td>성취</td> <td>15</td> <td></td> <td>4</td> </tr> </tbody> </table>		개체	투자 금액	낙찰금액	주인순위	1	불력	35	35만	1	2	흔들	20		2	3	5년	10		5	4	성찰	20		3	5	성취	15		4	활동적인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낄 때 좋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개체	투자 금액	낙찰금액	주인순위																												
		1	불력	35	35만	1																												
	2	흔들	20		2																													
	3	5년	10		5																													
	4	성찰	20		3																													
	5	성취	15		4																													
	직업카드	• 스포츠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피구를 잘한다.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 수학/통계 분야는 하고 싶지 않다. 원리나 개념 파악과 공식이 어려워 수학 과목이 싫다.																															
	소감문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 것 같다.																																
진로 계획 (8회기)	그림	인생 계단		5년 후에는 대학교 체육과를 다니고 있을 것 같다 10년 후에는 체육 교사가 될 것 같다.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래 명함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가지고 즐겁게 하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																														
	음악(노래 부르기)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갑자기 다 같이 노래를 불러서 웃겼어요 원래 안 하던 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부르니까 새롭고 좋았어요																															
	소감문	다 같이 노래 불러서 웃겼는데 원래 안 하던 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부르니까 새롭고 좋았다.																																

3. 연구참여자 C : 남을 돕고 싶은 내담자

3.1. 초기단계

연구참여자 C(이하 C로 표기)는 본 연구프로그램에 참여 전에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자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 단정하며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C의 활동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1>과 같다.

C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싶어 하였다. C는 첫 회기에 자신의 별칭을 ‘돈 많은 백수’라고 지으며 돈을 많이 갖고 싶으나 자신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흐릿한 사진을 고르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C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화려한 ‘거북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요 돈 많은 백수가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닐 거예요.” (1회기)

“(조용한 목소리로)그냥 사람들이 맨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빠르게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갈 길만 가잖아요. 저도 맨날 학교 왔다가 집 가는,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중에 빨리 지나가는 한 명...” (1회기)

“(자신을 표현한 동물이미지 그림을 소개하며)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해서요.” (2회기)

C는 현재 자신 앞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어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선택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끊어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도착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자신을 거북이로 표현하면서 느리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C의 이야기는 함께 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회기 과정 중에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길 그림을 소개하며) 길이 한 가지 길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계속 건다가 끊겨서 잘 못 가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어느 길을 가든지 마지막에 목적지에는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믿고 길을 가다 보면 어쨌든 목적지에는 도착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이를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요.” (1회기)

“거북이가 물에서 자기한테 맞는 데서는 빠르고 약간 땅에서는 느리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빨리하는데 안 맞는 거는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땅에서 걸으려고 느리기는 한데 노력을 해서 정상, 자기가 주어진 곳까지 가기는 하잖아요. 저도 느리기는 한데 한 번 주어진다면 느려도 노력을 해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2회기)

무서운 아빠를 ‘버팔로’, 엄마를 ‘사자’, 고모는 ‘표범’, 작은엄마는 ‘불곰’, 사촌 언니는 ‘악어’, 큰아빠는 ‘호랑이’로 표현하면서 무서운 가족 분위기를 이야기하였고 가족에서는 자신을 거북이가 아닌 ‘개’로 이야기하였다. 싸움이 잦은 부모님 사이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자신을 가족 중에서는 개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개가 지 좋은 사람한테 잘하는데 어떤 소리 이런 것을 짓지 않게 하고 또 싸울 땐 싸우니까.” (3회기)

보드게임 중 자신의 그림 카드를 ‘어지럽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연구참여자 중 아무도 맞추지 못하였다. C는 환경이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움을 어지러움으로 표현하였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이 흐리고 얼떨떨한 상태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C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가정환경을 어지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C는 가족 외의 주변 어른들은 주로 양, 코알라, 염소, 다람쥐, 병아리, 강아지, 고래, 나무, 거북이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많은 어른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C는 초기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였고 특히 현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을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의미가 없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주위에는 자신을 염려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에게는 무서운 부모님들이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개’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또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초록이가 엄마 잎씩

을 떠나는 장면에 슬피하였다. 또한 초록이의 엄마 앞썩이 그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 의해 앞마당에서 쫓겨 난 일은 차별이라며 분개하였다.

“어이 없어. 뭐가.... 제일 어이 없어... 자기랑 다르게 생겼다고 그렇게...” (3회기)

C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로 한국인 친부와 베트남 친모와 살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및 환경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같은 문화와 환경요인을 가진 비다문화가정보다 부부갈등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이명자, 2010). 부모의 갈등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김애경, 2003).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낮아지게 되고(이명자, 2010),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최효인, 2017). C는 보드게임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환경이 어지러움을 이야기하며 주변인으로부터 공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21> 연구참여자 C의 초기단계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자기 이해	관계 형성 (1회기)	음악 (그림)	비긴어게인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살다 보면 끊기는 길도 있고 월 해야 할지 몰라 헛갈리는 길도 있다. 계속 나를 믿고 가다 보면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마지막에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다. 빨리 지나가는 저 중에 한명이 나이다. 아무것도 몰라서 웃던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소감문	오늘 수업을 하면서 내가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느꼈다. 역시 나는 최고다.	

자기 탐색 (2회기)	그림	윤도현 '나는 나비'		무엇보다 느리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나와 비슷한 것 같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웃으려 한다.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무시할 때 집에 있을 때 주로 이런 표정	
	보드게임		어지럽다	
	소감문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환경 탐색 (3회기)	인형치료 카드		아빠는 버팔로이고 엄마는 사자이다. 나는 집에서는 '개'인 것 같다. 순하지 않다. 내 편은 잘 지키나 그 외에는 방어한다.	
			어른들이 많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다. 가족 외에는 따뜻한 분들 이시다..	
	영화(이야기)	'마당을 나온 암탉' 다르게 생겨서 차별을 하는 것 같다.	외부인을 거부하는 모습이 어의없었다. 특히 자기랑 다르게 생긴 모습만으로 거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초록이가 엄마 잎싹을 떠나는 장면이 슬펐다.	
	소감문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2. 중기단계

중기단계의 참여경험은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의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자아상”에 대한 것으로 B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2>와 같다. C는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인 스크루지가 자기의 행동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거라 생각한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말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화가 나 있는 스크루지의 표정에서 “화가 있거나 울상이에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라며 스크루지의 우울함을 발견하였다. C가 본 인상적인 장면은 처음에는 험상궂었던 인상의 스크루지가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그냥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할 때가 많다. 또한 미래는 웃는 것도 아닌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로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어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야기하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웃는 표정.. 다 좋았어요..(중략).. 미래요? 그냥 뭘 하든 덤덤하게...그냥 뭘 해도 화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별로 웃고 싶지는 않은데...” (4회기)

“(자신이 되고 싶은 어른에 대해서)기댈 수 있고 믿음직한 사람...(중략)..별로... 다른 사람한테 제 마음을 안 줄 것 같아요. (중략).. .별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4회기)

C는 성공했던 경험으로 두 가지 경험으로 그렸다. 첫 번째로 자신이 용돈을 모아선 산 만화책을 택배로 받았을 때와 두 번째로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행복했던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게 행복했어요” (4회기)

C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여러 번 이야기 하였다. 특히 강점 찾기 회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C가 끈기가 있고 친구들을 배려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도와준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2 회기 중 C가 거북이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며 C가 끈기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 ‘끈기 있는’ ... 하하하하. 아니, 그냥 저번에 자기랑 닮은 동물 그거 말할 때 거북이라고 했는데 그 자기는 느려도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도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간다고. ” (B, 6회기)

“ ‘경청하는’ 이거는 조금 친구 이야기 같은 것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B, 6회기).

“ ‘우정을 나누는’.. 조금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D, 6회기)

C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만족해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그런 생각이 위험을 잘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놀라며 고마워하였다.

“(자신의 단점에 대해) 하나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것...어떤 애가 너는 이거 못하냐고 하면 보통은 내가 더 노력해서 잘하면 되지 하는데 ‘그래, 나는 이거 못해. 영원히 못할 거야.’ 그리고 애들이 한 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나를 싫어하나..” (6회기)

“어디 가서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냥 경계할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연구 참여자 B, 6회기)




“그냥 바로 수긍하는 것. 바로 수긍하는 게 안 좋을 수 있기도 한데 바꿀 수 있게...거기에서 화 내면서 말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수긍하는 것으로 좋게.”(연구참여자 D, 6회기)

C는 본 프로그램 참여 초기부터 자신의 환경과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회기에서 잘 웃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우울한 표정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영상이나 영화 속 인물의 세심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렸고 본인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관심을 받길 원하였다.

C는 어린 시절 이후 느끼고 있는 가정의 불안감으로부터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속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사회적지지로 낮출 수 있고, 특히 친구, 교사, 주변인의 심리적 지원은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서보준, 2018). C의 경우 집단을 통해 배려심, 사려깊음, 도움을 주는 등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관한 관심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표 22>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경험 탐색 (4회기)	영화 (그림)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럴’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도 바뀔 거라 생각이 들었다. 공격적인 말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지막에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그림		과거에는 그냥 다 좋았던 기억이 있다. 현재는 눈은 웃으나 입은 화도 있고 슬프기도 하다 미래는 덤덤해질 것 같다. 화나지도 않고 웃지도 않을 것 같다. 어른이 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마음은 안 줄 것 같다. 사실 별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택배를 뜯을 때 행복하다. 얼마 전 만화책을 받았는데 행복했다 (그동안 아빠가 비상금으로 주신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주문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하다.
		소감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강점 찾기 (5회기)	영상	<박지성의 나만의 장점 찾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경청을 잘 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요소도 잘 생각할 것 같다. 항상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날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줘서 놀랐고 고맙다.
		장점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려하는 2. 사려깊은 3. 명랑한 4. 도움을 주는 5. 에너지 넘치는 6. 우정을 나누는 7. 경청하는 8. 끈기있는 9. 순수한 	
		소감문	단점이 있어도 안 좋은 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진로장벽에 관한 것으로 C의 활동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3>과 같다. C는 영화 <완득이>의 주인공 완득이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 C는 완득이가 부모의 돌봄이 없었기에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완득이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누구보다 많이 발견하였는데, 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완득이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

“(영화<완득이>의 환경에 대해서)음...(낮은 목소리로) 아무래도 주위가 그렇게 밝은 게 아니었잖아요. 집 들어가면 혼자 있고 라면만 먹고 학교에서도 혼자 있고..(중략)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닫혀 있어서 친구들도 없고.” (6회기)

“(완득이의 강점에 대해서)음...(작은 목소리로)그래도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요. (중략)...잘 들어줘요..상대방...(중략)..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엄마도 갑자기 찾아와서 미울 수도 있는데 (확신있게)마음을 금방 열어요...” (6회기)

C는 자기의 가족은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같지 않고 각자 살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완득이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해하였다. 자신은 남을 도와주는 심리상담사가 꿈인데 낮은 성적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공부 방법을 생각해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습 부족을 깨닫게 되었고 공부 방법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장벽에 부딪힐 때 현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었다. ‘옹덩이화’에서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어른과 친구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고 그냥 자신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먼저 도움을 주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특히 C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자신을 도와주려 하지만 자신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과는 다른 분야의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같이 사는 데 같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각자 사는 느낌.” (6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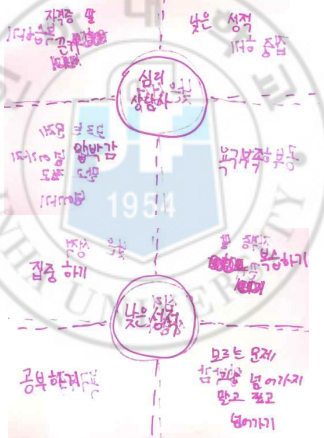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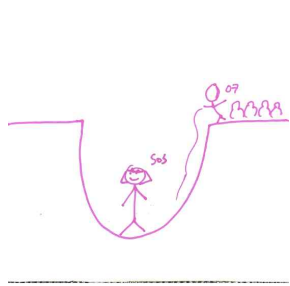
“자격증 딸 끈기.. 낮은 성적...압박감...뭘 할 때 욕구가 별로 없어요...(중략)..낮은 성적이요.. 그래서 집중하기...복습하기...공부하기..., 모르는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짚고 넘어 가기.” (6회기)

“(웅덩이화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안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6회기)

C는 영화 주인공 완득이가 경험하는 환경적 어려움을 동일하게 자신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완득이의 어려운 마음에 집중하며 공감하였다. C는 엄마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엄마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주위에는 자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직 자신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도 자신처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C는 낮은 학업성취,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감, 끈기 등 개인요인을 진로장벽으로 언급하였다.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가정의 부정적 정서적 환경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23> 연구참여자 C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장벽	진로 장벽 요인 및 대처 방안 (6회기)	영화 (이야기)	‘완득이’ 부모는 돌봐주지 않았다. 완득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 기를 잘 들어 준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다.	가족이 같이 사는데 같이 사 는 것 같지 않고 각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동작/풍선 터뜨리기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앉아서 활동을 해야 했기에 풍선을 터뜨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치 지 않은 발로 여러 번 시도하 여 풍선을 터뜨렸다.	
		그림	진로 장벽		심리상담사가 꿈인데 자격증 을 따려면 필요한 끈기가 부 족하다. 낮은 성적에 대한 압 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 중에 낮은 성적이 장벽으로 느껴진 다. 극복을 위해 공부에 집중 하고 복습하고 공부를 해야겠 다. 특히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짚고 해결해야 하겠다.
			응 덩 이 화		나는 그냥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구덩이 안에서 그냥 있을 것 같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 렸을 때 도와달라고 할 것 같 다.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 지는 않을 것 같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소감문	재미있었다.		

3.3. 후기단계

후기단계에서 C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4>와 같다. C는 다양한 직업들을 궁급해했고 직업인 영상 중 영화 마케터에 관심이 생겼으며 영화 홍보 및 관련 굿즈(goods) 제작에 흥미를 보였다. C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을 구매하는데 가장 열정적이었고, 모든 집단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가치를 획득하였다. ‘헌신’, ‘즐거움’, ‘성취’, ‘리더십’을 경매로 구입하였는데, 무엇보다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계속해서 자신은 사람을 돕는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양한 직업 관련 영상을 본 것에 대해)저는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 그 영상을 봤었잖아요.” (8회기)

“사회복지사요..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얻는 행복감도 좋은데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느끼는 것도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7회기)

하지만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생각했을 때 당장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기보다 느리더라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선 취직하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은 다음에 공부하여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런 마음은 명함을 만들면서도 표현하였는데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받고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자신도 그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이걸 하면서 도움 받는 사람이... 제 도움 받고 좋아졌으면.. 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도와주고 싶어요..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을 바쳐서...” (8회기)

집단원들과 ‘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처럼 정말 자신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C는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현실적인 방법을 통

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가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고 모든 회기 동안 계속 언급해왔던 남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음을 이야기하였다. C는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사회복지사를 명함에 적고 꾸며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정말 자신이 이 꿈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명함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C는 집단의 지지를 통하여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얻게 되었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표 24> 연구참여자 C의 후기단계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성숙	진로 탐색 (7회기)	영상	다양한 직업군 영상	영화마케터에 관심이 생겼다. 홍보하는 일과 영화 굿즈 제 작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다																								
		게임 (직업가치 관 경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가치</th> <th>투자 금액</th> <th>낙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실</td> <td>75</td> <td>35</td> </tr> <tr> <td>2</td> <td>즐거움</td> <td>25</td> <td>25</td> </tr> <tr> <td>3</td> <td>행시</td> <td>15</td> <td>20</td> </tr> <tr> <td>4</td> <td>리더십</td> <td>15</td> <td>15</td> </tr> <tr> <td>5</td> <td>현실</td> <td>10</td> <td></td> </tr> </tbody> </table>		가치	투자 금액	낙찰금액	1	현실	75	35	2	즐거움	25	25	3	행시	15	20	4	리더십	15	15	5	현실	10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가 치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가 지게 되었다.
			가치	투자 금액	낙찰금액																							
		1	현실	75	35																							
	2	즐거움	25	25																								
	3	행시	15	20																								
	4	리더십	15	15																								
	5	현실	10																									
	직업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심리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수학/통계분야는 하고 싶지 않다. 처음에는 수학이 어렵 지 않았으나 중 2때부터 어려 웠다.																									
	소감문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 것 같다.																										
진로 계획 (8회기)	그림	인 생 계 단		5년 후에는 대학보다 일하고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사회복 지사가 되고 싶다																								
		미 래 명 합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 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자신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도와주 고 싶다.																								
	음악 (노래 부르기)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혼자 불렀으면 부끄러웠을 텐 데 같이 불려서 좋았다.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다 이 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소감문	명함 만들 때 재미있었다.																										

4. 연구참여자 D :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싶은 내담자

4.1. 초기 단계

연구참여자 D(이하 D로 표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어려움이 없으나 학업 수행은 높지 않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으나 성적 향상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단체로 참가했던 특성화고등학교 설명회에서 카지노학과를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겼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다. 초기단계에서 D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5>와 같다.

D는 자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그만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새롭게 가고 싶은 길이다. 그동안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배웠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학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D는 메이크업을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메이크업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 설명회에서 카지노학과에 대한 소개를 받으며 관심이 생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D는 현재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진으로 가면을 쓴 사람들의 사진을 선택하며 자신을 누군가가 무섭게 찌려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D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는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들에게 괜찮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자신을 표현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냥 조금 찌려보는 것... (중략)...무섭게.. 뭔가, 뭔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조그만 목소리로)시선이... 나는 여기에 없어요.” (1회기)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동물로 ‘고양이’를 선택하며 주인의 돌봄 속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는 스스로 길도 잘 찾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알며 독립적으로 잘 살 것 같은 점이 자신과 닮은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도 길을 잘 찾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였다.

“고양이들은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결국 다 마지막에 가는 곳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니까.. (중략)...강아지? 조금 뭔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고양이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혼자 오니까.” (2회기)

보드게임에서 자신의 그림카드를 처음에는 ‘작다’로 표현하였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추가 설명을 원할 때 ‘다르다’는 단어로 설명하였다. D는 그림에서 소년과 곰 중 소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가 보드게임에서 고른 자신의 그림카드를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때, D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림이 ‘행복하다’에 해당하는 카드로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행복하다’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여주며) 전 이 카드가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2회기)

자신의 가계도 설명에서 건축일을 하시는 아빠는 상어, 식당 일을 하시는 엄마는 불곰으로 표현하면서 무섭다고 하였다. 자신의 삼촌은 베트남에 사시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중국에 사시고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있다. 자주 뵙지는 못하나 왕래는 가끔 하고 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다른 친척들은 순하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7살짜리 어린 동생을 코알라로 표현하며 잘 자고 느리다고 하였는데, 나이 어린 동생을 자신이 돌봐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느껴지고 또한 자신도 어른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 즉 상어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 가계도를 보여주며) 조금 조용한데... 무서워요.” (3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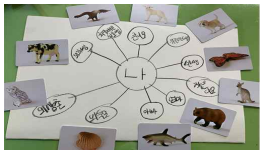
D는 다양한 인형치료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 어른들과 카드를 연결하였고, 그들의 특성을 하나씩 떠올리며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하였다. 특히 외숙모를 ‘조개’로 표현하며 이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담임선생님은 ‘나비’로 표현하며 주변인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D는 자신의 부모님을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며 경직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외부 및 내부 환경에서 무서운 시선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웃음의 가면을 쓰고 괜찮아 보이려는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더욱이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며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고양이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느끼고,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보다 보호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을 잘 살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D는 외국인 가정의 국내출생자녀로 국내에서 출생 후 바로 중국으로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학교생활 적응(오영섭, 2019)이지만, D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에 한국으로 돌아왔기에 현재는 한국어 실력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D는 동급생들의 따돌림 대상이 되었고 아직도 그때 경험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경험은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자신이 가면을 쓰든지, 남에게 가면을 씌우든지 하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연구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자기 이해	관계 형성 (1회기)	음악 (그림)	<p>비긴어게인 '길'</p> 	두 가지 길 중 하나는 하고 싶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그만둔 길이요. 메이크업을 배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다니지 못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졌다.
		사진		누가 나를 찌러보는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소감문	재밌었다.	
자기 탐색 (2회기)	그림	윤도현 '나는 나비' 	고양이는 보호받기보다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길을 잘 찾고 많이 의지하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
			친구랑 대화할 때 웃고 있다. 주제없고 의미없는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정이다.
			게임할 때 표정. 집에서는 거의 이런 표정이다
	보드게임		작다. 다르다
	소감문	게임을 해서 재밌었다	
환경 탐색(3 회기)	인형치료 카드		부모님을 제외하고 대부분 순하하다. 동생은 코알라, 잘자고 느리다. 나는 크면 아빠같은 동물이 될 것 같다. 무서워질 것 같다.
			담임선생님은 나비이다. 좀 세 보이신다. 외숙모는 조개이다. 이쁘다.
	소감문	가계도를 그리고 인형치료카드를 놓았던 것이 재미있었다.	

4.2. 중기단계

중기단계의 참여경험은 ‘긍정적 자아상’과 ‘진로장벽’의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자아상”에 대한 것으로, D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6>과 같다. D는 영화<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를 공격적이고 화도 많지만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외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하였다. D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스크루지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자신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D는 스크루지의 잘못된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외로움을 공감하였다.

“(스크루지의 유령을 만나기 전과 후의 얼굴표정 그림을 보여주며) 잠자기 전의 스크루지는 되게 공격적이고 화도 많고.. (중략) 그리고 조금... 보니까 뭐지,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고..(중략) 그리고 거리를 두었어요.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중략) 그 여자,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4회기)

D는 앞선 1회기에서도 현재 자신의 주위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나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자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D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얼굴 그림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전학을 오면서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웠고 잘 웃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다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다시 웃게 되었다. 특히 D는 성공 경험 그림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오면서 소식이 끊긴 중국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를 근래에 엄마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SNS로 연락을 했던 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D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친구와 연락하게 되어 많이 행복했다는 점을 성공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D에게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친구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줄 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D의 존재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D가 무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멋진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D는

놀라며 환하게 웃었다.

“독립적이에요. 약간... 장기자랑 연습할 때 다른 친구도 있는데 저 말고 그냥 자기는 집에서 연습해도 된다고 그런식으로...그래 가지고요.” (B, 5회기)

“말하는 것을 보면 밝고 즐거워 보여요... (중략)...매력..사람 자체가. (중략)... 그냥 있어요 아우라가.” (C, 5회기)

D는 무엇보다 엄마에게 자주 짜증을 부려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것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D는 그러한 이야기가 새로웠다고 하였다.

“자기 기분 나쁜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보낼 줄 아는 거예요.” (B, 5회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들이 애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안 싸울 수 있게.” (C, 5회기)

“장점, 단점을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는 게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다 새로웠어요.” (D, 5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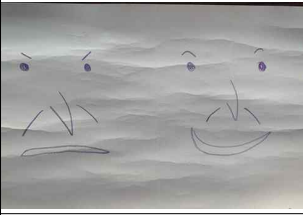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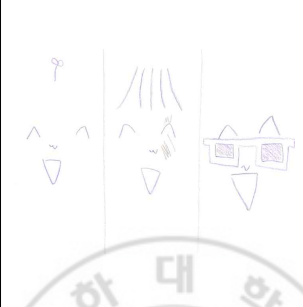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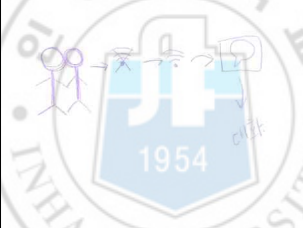
하지만 D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표현에 대한 긍정성을 인정하고 엄마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마음이나 상황을 표현하여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스크루지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D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때 집단 친구들에게 매력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인정과 관심에 대해 만족하였다.

집단에서 발견된 D의 장점은 솔직한 감정표현이다. 하지만 D는 자신의 엄마에게 감정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그림에서도 표현되었듯이, 또래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표현방법을 사용하나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좀 더 솔

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을 통해 D는 감정의 표현방법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표 26>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중 ‘긍정적 자아상’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경험 탐색 (4회기)	영화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럴’ 	주인공은 공격적이고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자신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가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초 3 때까지는 많이 웃었던 것 같다. 초 4 때는 한국에 돌아와 전학 와서 친구들과 사이가 힘들었다. 그때부터 잘 안 웃었던 것 같다. 현재는 다시 친구들을 사귀면서 웃을 때가 많다.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랑 연락이 되어 문자를 하게 되었다. 그때 행복하다고 느꼈다. 초 4 때 헤어진 친구였는데 근래 연락이 되었다. 그 친구는 중국인인데 일본에 살고 있다.
		소감문	영화도 보고 재미있었다.	
	강점 찾기 (5회기)	영상	<박지성의 나만의 장점 찾기>	고양이를 표현할 때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에게 세심하고 친밀함을 표현할 줄 알며 사이 좋게 지내려는 것이 있다.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다. 엄마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당황스럽기도 하였고 하지만 엄마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점 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력적인 2. 솔직한 3. 명랑한 4. 친밀한 5. 자주적인 6. 사이좋은 7. 에너지 넘치는 8. 세심한 	
소감문		장점, 단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재밌었다.		

두 번째는 ‘진로장벽’에 관한 것으로 D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7>과 같다. D는 영화 ‘완득이’를 보며 완득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가난과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D는 완득이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성장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노력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미안해하며 돌아왔을 때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완득이의 모습에 놀라워하였다. D는 자신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자신에게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주는 엄마가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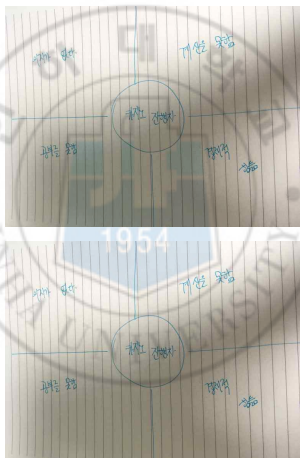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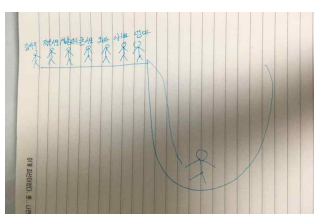
D는 카지노 딜러가 꿈인데 계산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공부 장벽에 대해 탐색하였다. 자신이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중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게임하지 않을 때 공부하기.. 수학이 어렵고 온라인 집중이 어려워요.. 학교 전체 수업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약간 조금 진짜 쪼끔..” (6회기)

사실 D는 평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을 도와줄 엄마, 아빠, 큰이모, 사촌 언니, 작은이모, 사촌 오빠, 그리고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D는 자신이 하고 싶은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D는 부족한 계산 능력과 열심히 하지 않는 공부 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장벽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D는 문제상황이 닥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표 27> 연구참여자 D의 중기단계 중 ‘진로장벽’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장벽	진로 장벽 요인 및 대처 방안 (6회기)	영화 (이야기)	<p>‘완득이’ 도움을 잘 받지 못했다. 완득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했을 때 노력을 했 다. 완득이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엄마가 미안해하며 돌 아왔고 완득이는 그런 엄마 를 이해하며 받아들였다.</p>	<p>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시 는 엄마가 계시다.</p>
		그 림		<p>카지노 진행자가 꿈인데 의자 가 없고 계산을 잘 하지 못하 고 공부도 못한다, 그리고 집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중 에 공부를 못하는 장벽에 대 해 생각을 해 보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특히 수학이 어렵다.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 게임도 줄여 야겠다. 틈나는 대로 공부해 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p>
			응 답 이 화	
		소감문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보고 재미있었다.	

※6회기는 ZOOM상담으로 진행되어 D가 집에서 작업한 작품을 SNS 통해 받음

4.3. 후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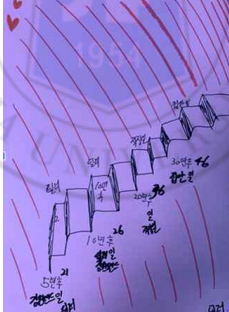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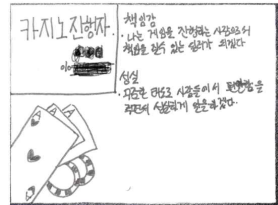
후기단계에서 D의 활동 결과물과 자기서사는 다음 <표 28>과 같다. D는 다양한 직업군 영상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영상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 D는 ‘책임감’과 ‘성실’이 직업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D는 오랫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아왔다. 얼마 전 반대 향 장기 자랑에서도 밴드의 반주를 맡아서 연주하였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D가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은 악기 연주자이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래머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D는 이번 진로탐색 회기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영상으로 만나고 직업 카드로 탐색하며 여러 직업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D는 5년 뒤에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딜러를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에게 게임을 안내하고 진행하여 게임을 즐기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카지노 딜러로 게임을 진행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하였다. D는 카지노 딜러가 되어 게임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D가 핸드폰에서 카지노 이미지를 찾아 미래명함에 그려 넣는 모습을 볼 때 카지노 딜러가 되고 싶은 소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8회기 명함에 작성한 글)

D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카지노 딜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회기 내내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며 자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또한 책임이 있고 성실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카지노딜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28> 연구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대주제	소주제	인문융합	작품	자기 서사																								
진로 성숙	진로 탐색 (7회기)	영상	다양한 직업군 영상	초등학교 교사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다. 신기했다.																								
		게임 (직업 가치관 경매)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가치</th> <th>투사 금액</th> <th>낙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럽기</td> <td>15</td> <td></td> </tr> <tr> <td>2</td> <td>자유</td> <td>15</td> <td></td> </tr> <tr> <td>3</td> <td>선장</td> <td>20</td> <td></td> </tr> <tr> <td>4</td> <td>채움감</td> <td>20</td> <td>20억여</td> </tr> <tr> <td>5</td> <td>성실</td> <td>30</td> <td>30억여</td> </tr> </tbody> </table>		가치	투사 금액	낙찰금액	1	럽기	15		2	자유	15		3	선장	20		4	채움감	20	20억여	5	성실	30	30억여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가치	투사 금액	낙찰금액																							
		1	럽기	15																								
	2	자유	15																									
	3	선장	20																									
	4	채움감	20	20억여																								
	5	성실	30	30억여																								
	직업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미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악기 연주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머도 되고 싶다. 수학/통계 분야는 하고 싶지 않다. 수학이 어렵고 싫다.																									
	소감문	오늘 직업에 대하여 알아 가는게 재미있었다.																										
진로 계획 (8회기)	그림	인 생 계 단		5년 후에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딜러를 할 것이다. 10년 후에도 딜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리드하여 안내하고 게임을 즐기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행복하다.																								
		미 래 명 함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딜러가 되고 싶다. 성실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일을 하고 싶다.																								
	음악(노래 부르기)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불러서 재미 있었다.																									
	소감문	오늘 명함 만들고 재미있었다..																										

5. 소결

연구참여자들이 총 8회기 동안 하였던 이야기, 다양한 활동, 미술작품, 한글 쓰기 등의 자료와 연구자의 참여관찰일지 및 성찰일지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하여 초기, 중기,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자기서사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연구참여자의 자기서사 단계별 특징

	공통점	차이점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느 길로 가야할지 고민이다. 부모님은 무섭게 느껴진다. 학교담임 선생님은 의지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아버지의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 갈등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에서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며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낮은 성적과 어려운 가정경제를 진로장벽으로 느끼고 있다. 진로장벽 중 내적요인(낮은 성적, 낮은 실력 등)을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이해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로장벽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방법을 탐색하였다.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와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은 다양하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진로계획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르다.

<표 29>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중기, 후기 전 단계의 활동을 통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여러 방향의 길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대부분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신 그들의 담임선생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인식

하며 긍정적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각기 다른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A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한국어 구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다. B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낮은 학업 능력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탐색조차 해 본 경험이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B의 경우 부모 외에 자신의 주변 어른으로 단 두 명을 이야기하였는데 큰아빠와 담임선생님이었다. 큰아빠는 북극곰으로 표현하며 무서운 분으로 이야기하였고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여우로 표현하며 좋으신 분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B가 현재 의지하는 어른은 담임선생님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담임선생님은 긍정적인 존재로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B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고, 주변의 누구도 B의 진로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다. 빠른 취업으로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는 B의 생각은 특성화고 진학과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B는 단지 ‘바이오 식품학과’가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곳으로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특성화고의 다양한 학과에 대한 탐색보다는 취업을 빨리할 수 있을 것같은 기대감만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C는 다문화가정 중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환경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정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D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중도입국의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언어 구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중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가정 내 문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 있다. D는 가족과 가족 외 지지체계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진로 또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가기에는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기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자기서사를 보면 집단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집단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며 공감

과 지지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공 경험을 떠올릴 때도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던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각자의 장점을 서로에게 이야기해줄 때도 또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나 행동 등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낮음(임경희, 2013)을 알 수 있었다. 집단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가정 외의 지지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을 높인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는 선행 연구와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집단의 지지를 통해 자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집단의 지지는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집단의 지지는 부모의 진로 간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낮은 성적과 어려운 가정경제를 진로장벽으로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장벽인 낮은 성적과 하고자 하는 분야의 부족한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각자 자신만의 진로장벽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A는 집단원들을 통해 자신이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성실하다는 것과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신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림 실력이 부족하기에 그림 연습과 지도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B는 집단원들을 통해 항상 긍정적이고 친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과 영어발음이 좋으며 노래를 잘 부르는 등의 다재다능하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과 낮은 성적으로 인해 진로를 계획하는 것을 시작조차 못 하였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용기를 가져보고자 하였다. C는 집단원을 통해 자신이 끈기가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으며 타인을 잘 돕는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C는 낮은 성적을 향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선 공부를 시작해 보고 모르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전하고자 하였다. D는 집단원들을 통해 존재만으로도 매력이 있고 강인하다는 점과 독립적이지만 친구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수학 과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시작조차 안 했는데 공부를 시작해 보려는 마음을 보였다.

하지만 저소득과 빈곤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친다(Blustein, 2018:144)는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이 느끼는 외적 진로장벽의 한 요소이다. 김태선·신주연(2020)은 이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자신의 책임으로만 인식될 경우에는 스스로를 비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기에서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완득이>를 통해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경험하는 장벽이 사회구조적 제약이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인지 탐색하도록 하였다. 즉, 참여자가 경험하는 장벽이 자신을 비난하게 하는 원인으로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짧은 회기로 다루어지기에는 부족하였다

후기단계에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자기서사를 보면 자기이해와 새롭게 발견된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회복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등을 통해 각자의 진로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진로결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박동진, 김송미, 2021; 양계민 외, 2018)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은 다양하게 구별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A는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꿈만 꾸며 해보고 싶다고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변호사’라는 직업과 ‘법’ 관련 분야의 일에도 도전해 보고자 하였다. B는 회기 내내 가장 낮은 자존감과 낮은 효능감을 보였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B는 ‘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체육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집단을 통해 B를 이해하게 된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B의 소망에 대해 큰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여 주었다. 그것은 B가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였다. C는 부모님 사이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돌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온전히 집단에서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을 주

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C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주기도 하였다. C는 ‘사회복지사’의 명함을 만들었다. C는 연구참여자 중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는 C가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D는 초기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독립적이며 혼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담을 통하여 집단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D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중요한 직업적 가치로 생각하며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였다.



V. 진로 집단상담 참여 경험의 의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것으로 IV장에서는 ‘연구 문제 1.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연구문제 2.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진로상담 과정에서 사례 간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프로그램 회기 내의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전사록, 수집된 작품 등 외에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인터뷰 전사록,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미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진로는 발달이론과 접목되어 개인의 흥미와 열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과 함께한다. 개인의 다양한 맥락과 배경은 자기의 삶을 설명하려는 개별 내러티브에 의해 이해된다(Blustein, 201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코딩작업을 통해 원자료에서 주요코드를 도출하였고, 2차 코딩과 3차 코딩작업으로 16개의 주요범주와 5개의 진로상담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때 5개의 진로상담 영역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 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이다. 분석된 영역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틀인 ‘자기이해 내러티브’와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 내러티브’ 그리고 ‘진로성숙 내러티브’와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결과에서 도출된 범주는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상담에 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의식 변화과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30>은 3차례의 코딩작업으로 범주화된 진로상담 영역의 주요코드들로 연구참여자 경험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0> 연구참여자의 주요코드 변화

구분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 및 기대감
주요코드	돈, 부자, 현금 인출기, 어려움, 고민, 특성화고, 직업정보 부족, 진로 체험 부족, 여러 가지 길, 모름, 어려움, 고민, 포기	창의성, 다양한 감정, 주목, 관심, 독립적, 활발함, 좋아함, 무표정, 불곰, 호랑이, 코뿔소, 사자, 비팔로, 상어, 무서움, 베트남, 중국에 사는 친척, 무서움, 북극곰, 호랑이, 사자, 담임선생님, 나무, 나비, 여우, 안정감, 따뜻한 분	친구, 긴장, 불안, 무시, 슬픈, 힘들었음, 친구, 연락, SNS, 도움, 이해, 노력, 시도, 이해, 배려, 지지, 공감	차별, 억압, 거절, 어려움, 낮은 성적, 수학 및 과학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 연습, 도움, 집중, 복습, 끈기, 공부, 친구, 가족, 선생님	성장,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 즐거움, 재미, 하고 싶은 일, 관심, 대학, 취업, 즐겁게, 기대, 긍정적인

<표 30>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첫 번째,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돈’, ‘어려움’ 등으로 표현하며 진로 선택에 대해 ‘포기’, ‘하고 싶은 거’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로 ‘독립적’, ‘무표정’, ‘무서운 가족’, ‘타국에 사는 친척’을 떠올렸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친구’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임선생님’을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긍정적 또래 관계를 위해 ‘연락’, ‘이해’, ‘배려’, ‘도움’으로 ‘친밀감’과 ‘우정’을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감도 긍정적으로 회복하였다. 네 번째, ‘차별’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직업가치로 ‘성장’, ‘성취’, ‘성실’ 등을 이야기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수학’과 ‘과학’은 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분야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를 소망하였다.

다음으로 코드들의 의미를 범주화시켜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16개의 주요범주로 도출하였다. 주요범주는 다음과 같이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 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의 5가지 진로상담 영역으로 나누었다.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참여 경험의 의미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진로 집단상담 참여경험의 의미

진로 상담영역	주요범주	주요코드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경제적 어려움	돈, 부자, 현금인출기, 어려움, 고민
	진로정보의 부족	특성화고, 직업정보 부족, 진로체험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	여러 가지 길, 모름, 어려움, 고민, 포기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해 이해	자신의 특성 이해	창의성, 다양한 감정, 주목, 관심, 독립적, 활발함, 좋아함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집에서는 무표정, 불곰, 호랑이, 코뿔소, 사자, 비팔로, 상어, 무서움
	해외에 사는 친척	베트남, 중국에 사는 북극곰, 호랑이, 사자, 무서움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 나무, 나비, 여우, 안정감, 따뜻한 분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친구, 긴장, 불안, 무시, 슬픈, 힘들었음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	친구, 연락, SNS, 도움, 이해, 노력, 시도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	이해, 배려, 지지, 공감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	차별, 억압, 거절, 어려움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낮은 성적, 수학 및 과학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	연습, 도움, 집중, 복습, 끈기, 공부, 친구, 가족, 선생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성장,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 즐거움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재미, 하고 싶은 일, 관심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	대학, 취업, 즐겁게, 기대, 긍정적

1.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집단 상담 참여 경험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은 중요한 첫 단계이다.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을 진로의식이라고 한다(신혜란, 2013). 진로의식 발달에서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고민하는 것은 진로발달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영역에는 세 가지 주요범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 ‘진로정보의 부족’이며 세 번째,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이다. 각 주요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경제적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 어려움은 그들에게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사용될 별칭을 짓는 것과 앞으로 바라는 소망에 대한 사진선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32>의 주요코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32> ‘경제적 어려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어려움, 고민, 열쇠	돈, 부자, 현금인출기	돈, 고민, 현금인출기,	돈, 포기, 고민	돈, 부자, 현금인출기, 어려움, 고민

A와 B가 선택한 사진은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사진이었다. A는 소망하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열쇠’가 많이 있는 사진을 선택하며, 집에 열쇠가 필요한 방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B는 ‘돈 나오는 기계’ 앞에서 끝없이 돈이 나오고 있는 사진을 선택하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면 만족하다고 하였다.

A는 아빠 없이 중국에서 외조부모님,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다시 엄마와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올 엄마가 힘들었고 뭔가 돈도 없고 슬프니까 조금...정신도 없고...(중략) 경제가 안 돼요.” (A, 6회기)

B는 영화 <완득이>에서 주인공 완득이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혼자 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 공감을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된 경험으로 B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경제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자신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영화 <완득이>를 보고)그냥 혼자 산 거 아니에요? 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저는 제가 늦둥이인 편이고 아래 더 늦둥이인 막내가 있는데 약간 부모님, 늦둥이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는데.. 식구는 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B, 6회기)

B와 C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신의 별칭을 정할 때도 드러냈는데 B의 경우 ‘부자’, C의 경우 ‘돈 많은 백수’라고 불리길 원했다. 또한 경제적 여유로움에 대한 소망은 상담 초기부터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도출된 주요코드인 ‘돈’, ‘부자’, ‘현금인출기’, ‘어려움’, ‘고민’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인식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히 외국인 근로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많다(교육부, 2017).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양한 진로영역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진로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1.2. 진로정보의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진로탐색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프로그램의 참여 전 인터뷰에서 진로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업 및 진로정보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러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였다. 다음 <표 33>의 주요코드는 ‘진로정보의 부족’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33> ‘진로정보의 부족’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특성화고, 직업정보 부족	특성화고, 진로체험 부족, 의미없는 진로교육	직업정보부족	특성화고	특성화고, 직업정보 부족, 진로체험 부족

본 연구프로그램 진행 전 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 4명 중 3명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그들은 단순히 중학교 1학년 때 단체로 학교 방문 체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자신들이 무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기회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 쪽... 바이오식품과요... 어... 그냥 대충 찾아봐서... 가 본 적 있어요. 거기 학교에... 1학년 때 단체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B, 본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

“저는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C, 8회기)

“좋아하는 것도 없고...(진로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없었어요. 1학년 때 진로시간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수업시간. 그때도 그때도 그냥 재미있는 것만 하고 .. 진로랑 관계없는..” (B, 본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

특히 8회기의 활동 중 다양한 직업인이 일하는 영상을 감상한 후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이처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A의 경우 상상하지도 못했던 직업도 있었다며 놀라워하였다.

“뭔가 진로를 이렇게 적은 시대가 발전이라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네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었어요.”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도출된 주요코드 ‘특성화고’, ‘직업정보 부족’, ‘진로체험 부족’은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정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기에 다양한 진로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진학과 취업 등의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부, 2017). 또한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업세계에 대한 낮은 이해는 이들의 진로불안을 높게 하며 진로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김혜경, 어윤경,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및 진로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3.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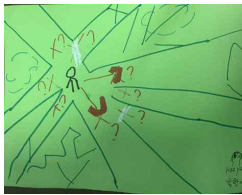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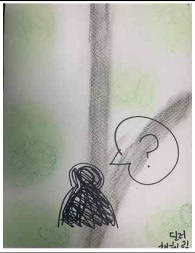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길’ 그림으로 표현하며 진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에 대해 인식하며 표현하고 이야기 하였다. 자신들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진로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포기하기도 했던 상황에 대해 탐색하였다. 다음 <표 34>의 주요코드는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로 범주화되었다.

<표 34>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포기’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여러 가지길, 포기, 고민	여러 가지길, ,모름, 어려움, 검은색	여러 가지길, 모름, 어려움, 끊어짐, 헛갈림	두 가지 길, 포기, 고민	여러 가지 길, 모름, 어려움, 고민, 포기

연구참여자들은 ‘길’ 관련 음악 영상을 시청한 후, 상담자가 제시한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길’ 이미지를 보며,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삶의 ‘길’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미지와 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집단에서 한 사람씩 자신이 표현한 그림을 집단원들에게 보여 주며 길로 표현된 자신의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35>는 연구자들이 표현한 ‘길’ 그림과 자기서사이다.

<표 35> 길 그림과 자기서사

구분	A	B	C	D
길				
자기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고민 중이에요 •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포기한 것도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던지 힘들 것 같다. • 아직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살다 보면 끊기는 길도 있고 뭘 해야 할지 몰라 헛갈리는 길도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길 중 하나는 하고 싶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둔 길이다. • 메이크업을 배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다니지 못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졌다.

<표 35>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길’ 그림을 통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여러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던 길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A는 하고 싶었지만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길,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길, 아니면 잘 모르는 길을 그림에 표현하였다. 특히 B는 길 주변을 검은색으로 칠해서 진로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길 그림) 여기는 하고 싶은 것. 저번에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포기했어요. ..그냥... 잘못 가는 길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 길.” (A, 1회기)

“(길 그림 주위의 검은 색)갑자기 검은색이 떠올라 가지고... 어려워요.” (B, 1회기)

“(자신의 길 그림 중 끊겨있는 길 설명)길이 한 가지 길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계속 걸다가 끊겨서 잘못 가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어느 길을 가든지 마지막에 목적지에는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믿고 길을 가다 보면 어쨌든 목적지에는 도착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1회기)

D는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준비한 진로가 있었으나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움이 중단되면서 포기했던 길 등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길 그림)2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길이 있고...그리고 제가 지금 하다가 만 게 있어서 그걸 다 해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냥 볼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계속 안 나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D, 1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여러 가지 길’, ‘모름’, ‘어려움’, ‘고민’, ‘포기’는 연구참여자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수 없이 고민하며, 포기하기도 하는 등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장임숙, 김희재, 2014)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우울감과 위축감(김영미, 현안나, 2020)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며 진로에 대한 도움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는 진로집단상담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진로상담의 첫 단계는 자기이해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 자신과 지지환경에 대한 이해가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로발달 자원이 적은 청소년,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사회적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이들의 진로발달에서 외적, 내적 진로장벽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Blustein, 2018:144).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지지환경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영역에는 네 가지 주요범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신의 특성 이해’, 두 번째,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세 번째, ‘해외에 사는 친척’, 네 번째,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다. 각 주요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자신의 특성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활동 중 이름 대신 사용될 별칭을 짓는 활동, 현재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는 활동,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물 그림 꾸미기 활동 등 다양한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다음 <표 36>의 주요코드는 ‘자신의 특성 이해’로 범주화되었다.





<표 36> ‘자신의 특성 이해’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창의성, 혼자, 다양한 감정, 좋아함	긍정적, 활발함, 함께, 좋아함	주목, 관심, 무표정, 원함	독립적, 좋아함	창의성, 다양한 감정, 주목, 관심, 독립적, 활발함, 좋아함

연구참여자들은 별칭과 동물이미지,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였다. 이들

은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높은 창의성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함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깨닫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받고 싶거나 독립적인 특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음 <표 37>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를 표현한 동물그림이다.

<표 37> 자기를 표현한 동물그림과 자기서사

구분	A	B	C	D
그림				
자기서사	코알라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다. 나랑 비슷하다.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서로 붙어 다닌다. 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무엇보다 느리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나와 비슷한 것 같다.	고양이는 보호받기보다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길을 잘 찾고 남에게 많이 의지하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

A는 자신의 별칭을 만화주인공 ‘케이야’라고 불리길 원하며 그 캐릭터는 조금 슬픈 과거를 지닌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림 37>과 같이 자신을 ‘코알라’로 표현하며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얼굴 그림에 다양한 감정을 그려 넣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하였다. A는 혼자서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진로탐색을 위한 강점 찾기 활동과 진로 분야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B는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밝고 활기찬 느낌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율동적인 벽화 그림을 보이며 자신은 평소에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표 37>과 같이 자신을 ‘펭귄’ 이미지로 나타내며 펭귄처럼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였다.

C는 <표 37>과 같이 자신을 ‘거북이’ 이미지로 표현하였는데 가장 화려한 색으로 거북이를 그렸다.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느리지만 물에서는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느려도 끝까지 노력하여 완성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거북이를 화려하게 표현하며 누구보다 주목받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느린 거가 비슷... 거북이가 물에서 자기한테 맞는 데서는 빠르고 약간 땅에서는 느리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빨리하는데 안 맞는 거는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땅에서 걸으려고 느리기는 한데 노력을 해서 정상, 자기가 주어진 곳까지 가기는 하잖아요. 저도 느리기는 한데 한 번 주어지면 느려도 노력을 해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거북이를 화려하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들보다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해서요.” (C, 2회기)

D는 현재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표 37>과 같이 자신을 ‘고양이’ 이미지로 표현하였는데 자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출된 주요코드 ‘창의성’, ‘다양한 감정’, ‘주목’, ‘관심’, ‘독립적’, ‘활발함’, ‘좋아함’은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적성이나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아서(김혜경, 어윤경, 2021)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민경, 2015; 최현주, 김희수, 2017)고 하였다. 다양한 치료기법을 통한 자기탐색은 자신의 특성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발견하여 자기의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2.2.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자신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정체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진로발달에도 중요한 영역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족, 특히 부모님을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생태계에서 포식자인 호랑이, 사자, 불곰, 상어 등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표 38>의 주요코드는 ‘불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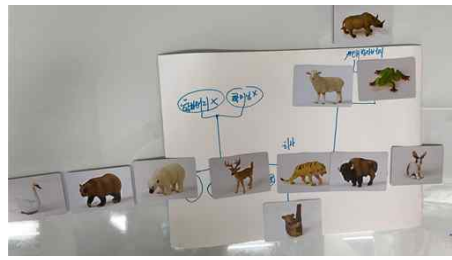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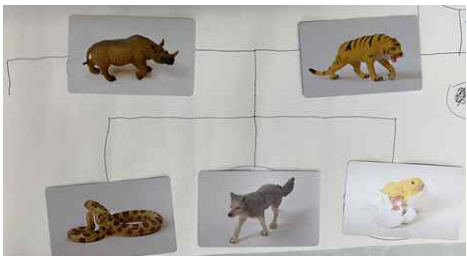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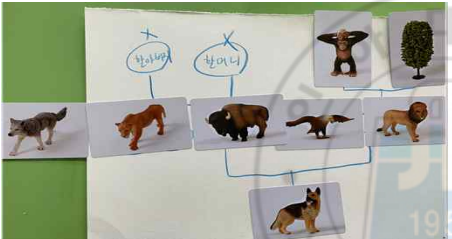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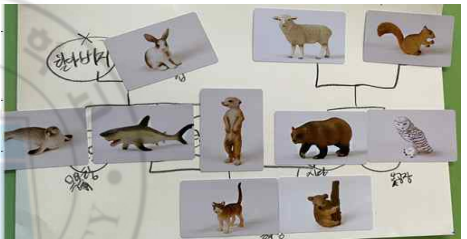
무서운 가족'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38> '불편하고 무서운 가족'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불곰, 잘 만나지 못하는 새아빠	무표정, 호랑이, 코뿔소, 뱀, 무서움	무표정, 버팔로, 사자	상어, 불곰, 무서움	무표정, 불곰, 호랑이, 코뿔소, 사자, 버팔로, 상어, 무서움

인형치료카드를 활용한 가계도 구성 활동에서 B는 아빠를 호랑이, 엄마를 코뿔소, 언니를 뱀으로 나타냈고 가족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였다. C도 아빠를 버팔로, 엄마를 사자로 표현하였으며, D의 경우 아빠를 상어, 엄마를 불곰으로 이야기하였다. A는 재혼가정의 자녀로, 한국인 새 아빠는 직장이 지방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다. A는 새 아빠를 표현하는 카드를 고를 때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새아빠를 불곰으로 표현하며 무서움보다 힘이 세며 자신과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39>는 인형치료 카드로 표현한 가계도와 자기서사이다.

<표 39> 가계도와 자기서사

구분	A	B
가계도		
자기서사	아빠는 무섭기보다 힘이 세시다. 든든하시다.	부모님은 항상 무섭다. 엄마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세시다. 동생이랑 좀 친하고 다른 식구들은 서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구분	C	D
가계도		
자기서사	아빠는 버팔로이고 엄마는 사자이다. 나는 집에서는 '개'인 것 같다. 순하지 않다. 내 편은 잘 지키나 그 외에는 방어한다.	부모님이 제일 무섭다. 나는 크면 아빠같은 동물이 될 것 같다. 무서워질 것 같다.

“(엄마를 표현할 동물이미지를 오랫동안 고민하며) 아빠, 호랑이. 엄마, 코뿔소 언니 뱀... 무서워요. 엄마는 어, 그냥 평소에는 조금... 세요.” (B, 3회기)

“아빠, 버팔로 엄마는 사자.” (C, 3회기)

“조금 조용한데... 무서워요.” (D, 3회기)

“아빠는 소중한데요. 약간 뭐 든든하고 지켜주고 이런, 이런, 무서운 거는 아닌데.. 그 제가 아까 사실 아빠랑 만난 시간 별로 없어서 고민했어요.” (A, 3회기)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과 정서적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특히 B는 스스로를 밝고 명랑하며 활발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집에서

는 감정과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지내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C도 학교에서는 시끄럽고 활발한데 집에서는 무표정하며 가족들과 대화가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아, 집에서는 안 웃어요. 집에 있을 때... 무표정...” (B, 2회기)

“무표정 집에 있을 때요..” (C, 2회기)

A는 보드게임에서 자신의 카드를 설명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한국인 새아빠가 경제활동을 이유로 먼 지방에서 떨어져 살기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에 대한 걱정을 보이며 아빠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행복하다.’ 전 이 카드가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A, 2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무표정’, ‘불곰’, ‘호랑이’, ‘코빨소’, ‘사자’, ‘버팔로’, ‘상어’, ‘무서움’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와 상호작용이 어렵고 긍정적 관계형성이 쉽지 않다(류성창, 2015)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정 내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김영미, 현아나, 2020; 양계민 외, 2018), 비해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가족관계는 진로장벽을 높이고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3. 해외에 사는 친척

연구참여자들의 친척들은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주로 외가 친척은 타국에서 살고 있고, 친가 친척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친척 어른들을 무섭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 <표 40>의 주요코드는 ‘해외에 사는 친척’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0> '해외에 사는 친척'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외가는 중국, 많은 이모, 친가는 한국	큰 아빠, 북극곰, 무서움	외가는 베트남, 친가는 한국, 호랑이, 사자, 싸움	베트남, 외가는 중국	베트남, 중국에 사는 친척, 무서움, 북극곰, 호랑이, 사자

연구참여자들은 인형치료카드를 통하여 가계도를 구성할 때 외가와 친가 친척들을 함께 표현하였다. 주로 이들의 친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가는 타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과의 관계가 부족하거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인형치료카드를 매칭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보였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이 가계도를 구성할 때 친척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이미지를 동물카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친척들과 잦은 왕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친척 어른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는, 여기는 한국에 계시고 여기는 외할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중국에 계시고.” (A, 3회기)

“엄마는 형제 9명 다 베트남, 아빠 형제분들은 한국, 맨날 싸워요.” (C, 3회기)

“외삼촌 저희가 밤이면 삼촌은 낮이에요. 베트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국.. 친가 쪽은 다 한국” (D, 3회기)

“큰아빠는 북극곰. 무서워요.” (B, 3회기)

“작은엄마, 큰아빠, 호랑이, 사자.” (C, 3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베트남’, ‘중국에 사는 친척’, ‘무서움’, ‘북극곰’, ‘호랑이’, ‘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과 해외에 사는 친척들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어른임을 보여 준다. 해외에 사는 친척은 가족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성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학교, 또래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랑, 존중, 인정 격려 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이다(신명

주, 2018).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해외에 사는 친척을 그들의 가족으로 인식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4.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외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를 인형치료사진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주변 어른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체계의 구성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인드맵의 형태로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에게 의미있는 주변 어른을 적은 후에 각 어른들과 매칭되는 인형치료사진을 놓았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특히 그들의 담임선생님을 의미있는 어른으로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41>의 주요코드는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1> ‘의지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담임선생님, 나무, 안정감	담임선생님, 여우, 귀여운	담임선생님, 나무, 따뜻한 분	담임선생님, 나비	담임선생님, 나무, 나비, 여우, 안정감, 따뜻한 분

모든 연구참여자는 담임선생님을 ‘나무’, ‘나비’, ‘여우’로 표현하며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었다. 다음 <표 42>는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가족 외의 어른들에 대한 관계도이다.

<표 42>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와 자기서사

구분	A	B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		
자기서사	담임선생님은 나무이다. 안정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자신의 주변에 의미가 있는 어른들이 거의 없다. 담임선생님은 여우이다. 나는 여우가 귀엽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다.
구분	C	D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도		
자기서사	주변에 어른들이 많다. 담임선생님은 나무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다. 가족 외에는 따뜻한 분이시다.	부모님이 제일 무섭다. 담임선생님은 나비이다

<표 42>에서 담임선생님을 A와 C는 나무로, B는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여우로, D는 예쁜 나비로 표현하였다. 특히 C의 경우 그가 만나는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태권도 사범님, 복지관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 이웃 아줌마까지도 긍정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담임선생님이 나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책임감도.” (A, 3회기)

B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의 관계도에 담임선생님과 큰아빠만을 표현하였다. B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아빠는 자주 만나지만 북극곰으로 표현하며 두려움을 나타냈다. B는 현재 자신에게 긍

정적으로 의지하는 어른으로 담임선생님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이게... 여우...어... 약간 제 생각에는 여우가 귀엽거든요.” (B, 3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담임선생님’, ‘나무’, ‘나비’, ‘여우’, ‘안정감’, ‘따뜻한 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들의 담임선생님이 긍정적인 가족 외 지지체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정 외 지지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정 내 부모의 진로간섭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한 강화된 진로장벽(김영미, 현안나, 2020; 김정은, 2020)을 경험할 때 가정 외 지지체계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지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은 담임선생님이 될 수 있다.



3.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과 시도는 그들의 성공경험과 연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공경험을 성공적인 또래관계에서 찾으려 하고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이다(Erikson, 1968).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특히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형성되고, 이는 자기성장을 하도록 조력하게 한다(Marcia, 1966).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으로 자아정체감 회복’ 영역에는 세 가지 주요범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두 번째, ‘긍정적 친구관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경험’, 세 번째,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이다. 각 주요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연구참여자들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가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고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 <표 43>의 주요코드는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로 범주화되었다.

<표 43>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과거’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친구, 긴장, 불안	친구, 표정 없음, 슬픈	친구, 무시, 힘들었음	친구, 따돌림, 힘들었음	친구, 긴장, 불안, 무시, 슬픈, 힘들었음

B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과거에 친구가 없이 혼자 있었던 시간을 슬픈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D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겪었던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C는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렸다. C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공감받지 못하여 서운했던 기억으로 회상하였다. A는 자신의 단점으로 내성적 성격을 이야기하였는데, 한국으로 이주할 때 자신의 내성적 성격이 새롭게 형성되는 친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냥 옛날에는 과거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과거에는 조금 표정이 없었어요...” (B, 4회기)

“초4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아, 전학을 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D, 4회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말도 없고.... 많이..... 조금 좀 긴장됐어요. 한국에 와서도 뭔가 친구들에게 말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있고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마음도 조금 걸렸어요. 제가 제가 성격 때문에....어떻게 해야 하지.” (A, 5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친구’, ‘긴장’, ‘불안’, ‘무시’, ‘슬픈’, ‘힘들었음’은 연구참여자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음을 보여 준다. 교육부(2016)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의 부모를 둘수록 따돌림, 구타, 불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낮은 학교급으로 재학하면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표현된 자기서사는 사건들을 단순화시키고 의미를 제공(Savicas, 2012)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탐색하게 할 수 있다.

3.2.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

발달단계가 비슷한 시기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시도한 노력을 통해 성공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또래관계에서 경험했던 성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표 44>의 주요코드는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4> ‘또래관계 속에서의 성공경험’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친구, SNS, 배려, 이해, 노력	친구, 권유, 함께	친구, 도움, 노력	친구, 연락, 문자	친구, 연락, SNS, 도움, 이해, 노력, 시도

A는 자신이 노력했던 성공 경험 그림을 중국에 있는 세 명의 친한 친구들과 SNS로 연락하는 장면을 그렸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D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헤어졌던 중국인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 노력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D는 엄마를 통해 친구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그 친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고, 현재 일본에 사는 그 친구와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된 것을 자신의 성공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이야기를 일단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되어 가지고 문자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난 것은 초4 때 연락이 끊겼는데... 지금 연락되어 가지고. 그게 그 다른 나라 사람인데 개네 엄마가 저희 엄마 친구여 가지고 연락을 받아 왔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연락처 받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일본이요. 엄마는 중국인이요. 아, 개가 중국인인데 일본에 살고 있어요. 엄마 친구요. 엄마 친구인데 한국에 놀러와 가지고. 음, 연락처를 받은 것? 먼저 친구한테 연락을 한 것.” (D, 4회기).

B는 자신이 시도하고 노력해 봤던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어려워 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며 고민하였지만, 한참을 고민한 후 생각이 났다며 기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다. 가운데 한 친구가 앉아있고 주위로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림이었다. B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기자랑 대회를 준비

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신이 먼저 반 친구들에게 밴드를 결성해 대회에 나가자고 권유했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여 1등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항상 자신은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던 B는 이 성공 경험을 떠올리면서 많이 들뜬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집단의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B의 이야기를 지지해주고 B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와 그들이 얼마나 B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야기하였다.

“장기자랑 그거 준비하려고요. 저희 약간 미니 밴드부 해 가지고... 저 노래 불렀어요... (중략).. 장기자랑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같이 악기 연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B, 4회기)

“1등 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잘 불렀어요.” (C, 4회기)

“춤도 잘 춰요.. 친밀감.. 친하고 가까워요.” (D, 4회기)

C는 성공경험으로 첫 번째는 자신이 갖고 싶었던 만화책을 용돈을 모아 주문하여 택배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였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행복했던 경험을 성공경험으로 이야기하였다. C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을 노력하여 이룬 경험이 행복했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게 행복했어요.” (C, 4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친구’, ‘연락’, ‘SNS’, ‘도움’, ‘이해’, ‘노력’, ‘시도’는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 친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성공경험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보다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시도들을 성공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올바르지 않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장연주, 신나민, 2015)하기도 하는데, 연구참여자의 긍정적 관계를 위한 시도와 노력은 관계적 성공 뿐 아니라 긍정적 사회성 발달을 기대하게 한다.

3.3.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을 시청하면서 주인공 스크루지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45>의 주요코드는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로 범주화되었다.

<표 45> ‘긍정적 관계를 위한 배려와 지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이해, 지지, 배려	우정, 이해, 공감, 지지, 배려	경청, 배려, 공감, 지지	친밀한, 지지	이해, 배려, 지지, 공감

연구참여자들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 차갑고 냉정한 말투와 화내고 울상인 표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스크루지의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결국은 혼자 남게 된다고 하였다.

“일단 화나 있고 약간 이렇게 해줬는데 울고 있는. 말투도 날카로웠어요. 공격적으로. 화도 안 내고 도와주고 직원을. 친절하고 밝게. 단 과거랑 미래를 보고 후회해 가지고. 약간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모두들 떠나가고.” (B, 4회기).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줄 때 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하였다. 장점 찾아주기 게임에서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었는데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적인’, ‘배려하는’, ‘사려 깊은’, ‘도움을 주는’, ‘경청하는’, ‘사이좋은’, ‘예의 바른’ 등의 대부분 관계 형성에 관련된 장점 카드가 선택되었다.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좋아하는 게 보여서...” (C가 발견한 B의 장점, 4회기).

(경청하는) “이거는 조금 친구 이야기 같은 것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B가 발견한 C의 장점, 4회기).

(친밀한) “어... 카카오톡 방이 친구들끼리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시끄럽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B가 발견한 D의 장점, 4회기).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행동이나 말투 등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같은 맥락을 보였다. A는 자신이 낮을 많이 가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으며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B도 자신은 목소리가 커서 혹 수업 중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였다. C는 자신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느꼈다. 특히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잘 못 하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장점들을 집단에서 발견해 주고 공감하며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각자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모든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과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서로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B는 지난 회기 때 C가 그렸던 자신을 표현한 동물 그림과 이야기를 기억하고 C의 장점으로 이야기하여 주었다. C는 프로그램 진행 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단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해주고 장점카드로 선물해주어 놀랍고 고맷다고 하였다.

“(끈기있는) 아니, 그냥 저번에 자기랑 닮은 동물 그거 말할 때 거북이라고 했는데 .. 그 자기는 느려도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도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간다고...” (B가 발견한 C의 장점, 4회기).

“제가 원하던 게 있었는데... 원하던 걸 애들이 뽑아줘서 신기했어요. 좋았어요. 저는 상대방한테 밝고 배려심있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웃음)” (C의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A는 서로에게 장점 찾아주기 게임을 통해 친구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도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신기하였다고 하였다.

다. B는 목소리가 큰 것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집단의 연구참여자들은 B의 큰 목소리가 B를 활기차 보이게 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며 지지해주었다. 이에 B는 자신의 단점에서 장점을 찾아주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D의 경우 상담 초기에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 것 같은 독립적인 검은 고양이로 자신을 표현하였는데, D의 이야기를 들은 A는 검은 고양이는 밤에 잘 안 보여서 잘 보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C도 D의 그런 성향을 매력적이라고 장점으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C는 서로 장점을 찾아주는 활동으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매력적임)사람 자체가 그냥 있어요 . 아우라가...” (C가 발견한 D의 장점, 4회기)

“약간 이거 하기 전에 좀 자존심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이 장점 찾아주면서 너는 이렇다고 말해줬는데 좀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C,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도출된 주요코드 ‘이해’, ‘배려’, ‘지지’, ‘공감’은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지와 공감을 보여 주는 행동은 서로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갖고 싶어 하였다. 또래의 공감과 지지는 가족 외 지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을 높일 수 있게 한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따라서 집단을 통한 집단원의 공감과 배려 및 지지적 태도는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한국어 구사 능력의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 다른 사람들의 편견, 다른 외모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김현영, 2017; 박진우, 장재홍, 2014).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대처하는 것은 진로 계획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영역에는 세 가지 주요범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차별과 억압의 인식’이고, 두 번째,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세 번째,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이다. 각 주요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구조적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비판적 의식 개입을 위해 영화 등을 활용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많이 활용되는데(김태선, 신주연, 2020), 본 연구에서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완득이>를 활용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주인공인 엄마 ‘잎싹’(암탉)과 자녀 ‘초록이’(청둥오리)의 이야기이다. <완득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인 ‘완득이’의 이야기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영화를 보며 영화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46>의 주요코드는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6>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차별, 거절, 슬픔, 어려움	차별, 어려움, 고민, 걱정	차별, 억압	차별	차별, 억압, 거절, 어려움

A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인 엄마 잎싹과 자녀인 초록이가 다른 종이어서 마당의 다른 동물에게 차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도 있는데, 자신이 포함된 여자팀이 다른 남자팀과 게임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팀이 여자팀이어서 게임 상대로 거절당했음을 이야기하였다. B는 ‘잎싹’과 ‘초록이’가 생김새가 다르기에 마당의 다른 닭들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족 차별!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웃었어요.” (B, 3회기)

연구참여자들은 영화 <완득이>에서 주인공 ‘완득이’가 분노의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것을 보며, 완득이의 환경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A는 완득이가 엄마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청소년으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A는 중국에서 아빠없이 살면서 자신과 엄마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이야기하며 슬펐다고 하였다. B는 자신은 나이가 많은 부모님의 늦둥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부모님의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정경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B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를 탐색하기보다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였다. C는 자신의 가족은 집이라는 공간에 같이 살고 있지만, 식구들이 각자 생활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원래는 같이 사는 것이 나랑 엄마랑 그리고 우리 이모, 언니가 같이 살아요. 아빠가 없어요, 제가. 아빠는 계속 한국에 계시는 데 연락 없어요. 외할아버지 아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울 엄마가 힘들었고... 뭔가 돈도 없고 슬프니까 조금...정신도 없고...” (A, 6회기)

“저는 제가 늦둥이인 편이고 아래 더 늦둥이인 막내가 있는데 약간 부모님, 늦둥이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는데.. 식구는 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B, 6회기)

“선생님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범한거 평범한 회사원..” (B, 6회기)

“저는 같이 사는 데 같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각자 사는 느낌...” (C, 6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차별’, ‘억압’, ‘거절’,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이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완득이>를 통해 발견한 사회구조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다. 주요코드들은 소수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무시와 철저한 외면을 보이는 주류민의 폭력을 문제화(박혜숙, 2012)하여 발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억압 및 차별 이야기를 접목하게 하여 자기서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내면 통합이 어려웠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타문화 배경의 타인과 소통하여 삶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임은미, 구자경, 2019:226).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사회정치적 장벽이 그들의 직업적 기대와 성취를 제한하지만, 사회정치적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과 동기는 사회적 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Blustein, 2018:144). 연구에 활용된 영화들은 김영순 외(2020:68)에서 논의된 비판적 리터러시로 활용가능하다. 그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해, 인종, 민족, 언어, 성별 등 다양성의 요소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요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과 동기가 정의되는 사회정치적 발달과 함께 비판적 리터러시를 활용한 다문화교육과 사회정의 상담이 필요하다.

4.2.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장벽으로 학습 능력 부족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의 학습이 어렵고 싫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47>의 주요코드는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7> ‘수학과 과학 등 학습의 어려움과 두려움’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한국어 구사 어려움, 과학 어려움	낮은 성적, 학습능력 부족, 수학 및 과학 어려움	낮은 성적, 수학 어려움	낮은 성적, 수학 싫음	낮은 성적, 수학 및 과학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

A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나 학교급에 따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배우는 학습량에 비해 이해할 수 있는 학습습득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B도 자신이 진로를 고민하는 이유로 낮은 성적을 이야기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에서 특성화고 ‘바이오 식품과’로 진학할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 식품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나 자신의 낮은 성적과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습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C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학업성적이 낮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인문계는 선생님들이 약간 수학이 되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못 하면 인문계에 가서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B, 본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수학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과목 학습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진로분야 중에서 모두 수학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A는 과학 과목이 어려워서 싫다고 하였다. B는 과학과 수학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수학 자체가 싫다고 하였다. 자신은 처음부터 수학이 싫었다며 수학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C의 경우 수학이 어려운데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중 2학년부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과학과목을 싫어해요.. 어려워요.” (A, 7회기)

“과학공식 같은 게 어려워서, 수학공식에 약하고 그냥 싫어요 공식이...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싫

있어요.” (B, 7회기)

“수학 어려워요 평생 더하기 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중 2때 부터 어려웠어요.” (C, 7회기)

“저는 수학 자체가 싫어요.” (D, 7회기)

도출된 주요코드 ‘낮은 성적’, ‘수학 및 과학 어려움’, ‘학습능력 부족’은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보여 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낮은 성적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자신의 학습역량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영권(2016)은 이들의 학습부진이 일반적인 기초학력부진 학생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적 특성(낮은 지적 수준), 정서적 특성(낮은 통제력), 행동적 특성(학습활동 부족), 그리고 환경적 특성(불편한 물리적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구영산 외(2014)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부진에 한국어 구사 능력, 부모 문화에 대한 이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2016)에 따르면 한국어의 미숙함은 소극적 수업참여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신감 결여 등 심리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학습에 필요한 언어적 이해능력 부족은 국어과목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수학과 과학 등의 학습 어려움은 학습 능력에 대한 낮은 효능감으로 이어지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한 진로장벽이 된다.

4.3.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진로장벽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방안을 이야기하며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낮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구와 의지를 보였다. 다음 <표 48>의 주요코드는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48>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 도움 필요 인식'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기초연습, 도움받기, 공부, 친구, 엄마	수업 집중, 게임 줄임, 친구, 엄마	끈기, 집중, 복습, 도움	집중, 끈기, 공부, 게임 줄임, 가족	연습, 도움, 집중, 복습, 끈기, 공부, 친구, 가족, 선생님

A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지만, 장벽으로 낮은 성적, 경제적 어려움, 손이 작은 것,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A는 그림 실력 향상을 위해 기초연습을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 따라 그리기,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 부족한 점을 찾아 공부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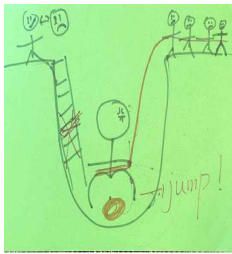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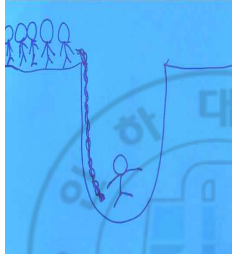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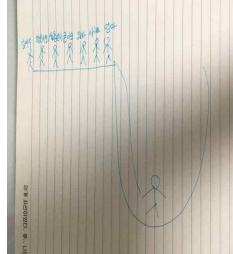
“성적..그림 못 그려요. 경제가 안 돼요 .손이 작아요 .그게 뭔가... 조금 커야 돼요. 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거 그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수업받고... 제가 어디 안 되는 방법을. 기초, 기초. 어디에다가 또 다른 것 찾아서 공부하고 연습하기.”
(A, 6회기)

B는 돈을 벌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B가 느끼는 장벽은 낮은 성적,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부족한 용기이다. 그중 낮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즐지 않고, 평소에 즐겨 하는 게임을 줄이기로 하였다. C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지만 낮은 성적, 압박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끈기의 부족이 장벽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중 낮은 성적 향상을 위해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하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D는 카지노진행자가 되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특히, 계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성적 향상을 위해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꾸준히 공부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계산능력 향상을 위해 수학공부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수업에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 D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게임하지 않을 때 공부하기... 수학이 어렵고 온라인 집중이 어려워요. 학교 전체 수업이 끝나면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약간 조금 진짜 조금..” (D, 6회기)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웅덩이에 빠진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하였다.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표 49>는 연구참여자들의 웅덩이화 그림이다.

<표 49> 웅덩이화와 자기서사

구분	A	B	C	D
웅덩이화				
자기서사	처음에는 나 혼자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사다리를 내려주었는데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런데 엄마랑 친구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친구들이랑 엄마가 와서 나를 꺼내줄 것 같다. 나는 여기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냥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웅덩이 안에서 그냥 있을 것 같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도와달라고 할 것 같다.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 같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다.	엄마, 아빠, 오빠, 큰이모, 사촌언니. 작은이모, 000친구가 어려움에 빠진 나를 도와줄 것이다.

<표 49>의 ‘웅덩이화’를 통해 A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와 친구가 와서 자신에게 밧줄을 내려주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B는 친구들이랑 엄마가 와서 웅덩이에 빠진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드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C는 어려움의 상황에 있으면 자신이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나가는 누군가, 나를 모르

는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C는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D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웅덩이에 빠지면 엄마, 아빠, 오빠, 큰이모, 사촌언니, 작은이모, 000친구 등 여러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A, 6회기 한 줄 쓰기)

도출된 주요코드 ‘연습’, ‘도움’, ‘집중’, ‘복습’, ‘끈기’, ‘공부’, ‘친구’, ‘가족’, ‘선생님’은 연구참여자들이 탐색한 자신의 진로장벽을 극복하려는 대처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또래, 교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지지는 이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성과 진로의식을 높인다(김정은, 2020; Blustein, 2018). 특히 가정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 외 지지체계에 의한 도움과 자신의 내적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각자의 진로장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진로를 탐색하고 알맞은 진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진로분야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 영역에는 세 가지 주요범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두 번째,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세 번째,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이다. 각 주요범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직업가치를 경매하는 게임을 통해 자신들이 직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 <표 50>의 주요코드는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로 범주화되었다.

<표 50>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성장, 성실, 도전, 책임감, 자유	성장, 도전, 성취, 즐거움, 활력	성장, 성취, 즐거움, 헌신, 리더쉽	성장, 성실, 책임, 자유	성장,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 즐거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5가지씩 적고 경매를 통해 가치를 구매하였다. 다음 <표 51>은 참여자들이 처음 자신의 경매지에 구매하고자 기록한 가치들이다.

<표 51>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

구분	성장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	즐거움	활력	헌신	리더쉽	탐구
A	0	0		0	0	0					
B	0		0		0		0	0			
C	0		0				0		0	0	
D	0	0		0		0					0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 5가지 중 한 가지로 ‘성장’을 선택하였다. A는 ‘성장’, ‘성실’, ‘도전’, ‘책임감’, ‘자유’를 선택하였고, B는 ‘성장’, ‘도전’, ‘성취’, ‘즐거움’, ‘활력’을 선택하였다. C는 ‘성장’, ‘성취’, ‘즐거움’, ‘헌신’, ‘리더쉽’을 선택하였고, D는 ‘성장’, ‘성실’, ‘책임’, ‘자유’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중요한 직업가치로 ‘성장’을 가지길 원하였고, 다음으로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의 가치를 원했다. 또한 각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가치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치들을 이야기하였다. A는 ‘자유’를 가장 비싸게 구매하였다. 자신도 자유롭게 성장하며 발전하고 싶고,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B는 자신에게 ‘활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즐겁고 재미나게 일하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C는 ‘헌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고 하였고,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성장은 뭔가. 일 할 때 뭔가 상대방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느낌점을 줄 수 있어서.. 점점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고.”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게 행복했어요.” (C, 4회기)

D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 같으며 ‘성실’과 ‘책임’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환경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낮은 성적으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도 어렵다고 느끼며, 진로 선택에 대해 낮은 기대를 나타

냈다. 그러나 도출된 주요코드는 ‘성장’, ‘성실’, ‘성취’, ‘책임감’, ‘도전’, ‘자유’, ‘즐거움’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성장이란 인간의 성품, 능력, 신념, 태도 등이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향상되고 내적으로 통합을 성취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이희용, 2015:35). 연구참여자들은 현재는 다양한 진로장벽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내, 외적으로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순(2017:88)은 청소년들이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다문화교육은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교육을 기초로 한 진로상담은 자기개발과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2.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본 프로그램 참여 전 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성적이 낮다는 것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진로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관심을 표현하였다. 다음 <표 52>의 주요코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52> ‘다양한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법 분야, 판사, 변호사, 하고 싶은 일, 재미	체육교사, 스포츠분야, 재미	심리와 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하고 싶은 일	게임문화와 음악 및 미술 분야, 관심, 재미	재미, 하고 싶은 일, 관심

다양한 직업인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실제로 일하는 영상을 보고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에 호기심을 보였다. A는 ‘화장품마케터’, C는 ‘영화마케터’ 그리고 D는 ‘초등학교 교사’에 관심을 보였다. A는 법관련 분야의 진로에 관한 생

각을 이야기하였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실력과 환경적 어려움으로 A가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한참을 머뭇거리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도 괜찮아요? 판사, 변호사 재미있을 것 같아요.” (A, 7회기)

특히 B의 경우 앞선 회기 내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장점 찾기와 진로 가치 경매를 통해 자신은 즐겁고 신나며 활력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B가 ‘체육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B의 고민을 알고 있던 집단 연구참여자들은 즉시 B가 그 직업에 어울리며 잘할 것이라고, B를 공감하며 지지해주었다. B의 표정이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하였으나 곧 크게 웃으며 기뻐하였다.

“저는 스포츠요... 스포츠는 운동을 통해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일어요.. (중략) 어.. 음... 운동선수?.. 체육교사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B, 7회기)

“(연구참여자들은 와!!! 크게 박수를 치고 웃으며) 어울릴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연구참여자들, 7회기)

C는 심리와 복지 분야에 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 사회복지사요.” (C, 7회기)

D는 게임문화와 음악 미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자신은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보였으나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진로장벽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수학과 과학 과목 학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도출된 주요코드 ‘재미’, ‘하고 싶은 일’, ‘관심’은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 준다. ‘재미’와 ‘관심’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흥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에서 흥미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진로에 관련된 흥미는 청소년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나 환경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조절된다(김봉환 외, 2017).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흥미발달은 학습경험에 의한 연속적 개념으로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Lent et al.(1994)은 흥미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제한되는 것을 ‘장벽’이라 하고, 촉진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하였다. 이때 작용하는 ‘장벽’과 ‘지원’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장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흥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진로탐색과 집단의 지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장벽을 낮출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5.3.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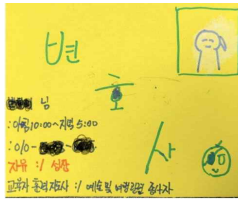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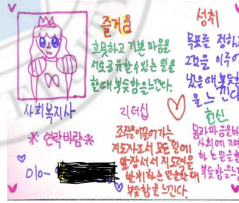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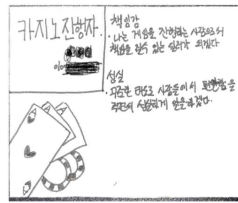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은 앞선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 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신들에 대한 이해와 직업가치 탐색을 통하여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53>의 주요코드는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53> '구체적 진로설계와 기대감' 범주에 나타난 주요코드

구분	A	B	C	D	주요코드
코드	법과대학, 메이크업 아티스트, 학교영양사, 중국어 번역가, 성장, 발전, 이루어짐	체육대학, 체육교사, 즐겁게, 긍정적	취업, 사회복지사, 즐겁게, 도움, 자신감, 기대	취업, 카지노딜러, 성실, 편안함	대학, 취업, 즐겁게, 기 대, 긍정적

미래명함 꾸미기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들로 명함을 꾸몄다. A는 성장하며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 B는 즐겁게 활력이 넘치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C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적었다. D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감이 있으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카지노딜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 <표 54>는 연구참여자들의 미래명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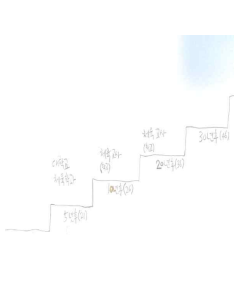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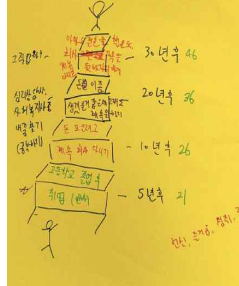

<표 54> 미래명함과 자기서사

구분	A	B	C	D
명함				
자기서사	자유롭게. 그리고 성장은 천천히 요렇게 하다가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가지고 즐겁게 하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나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도와주고 싶다.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딜러가 되고 싶다. 성실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일하고 싶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나누어 진로설계를 하였는데, 해당시기에 자신이 기대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드러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5>와 같

다.

<표 55> 진로설계와 자기서사

구분	A	B	C	D
진로설계				
자기서사	5년 후에는 법대를 다니고 10년 후에 메이크업을 해 주는 일을 하고 20년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학교 영양사도 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어 번역하는 책도 써 보고 싶다.	5년 후에는 대학교 체육과를 다니고 있을 것 같다. 10년 후에는 체육 교사가 될 것 같다.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일하고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5년 후에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딜러를 할 것이다. 10년 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A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A는 다양한 탐색을 통해 자신이 낮은 성적과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미지로 도식화하면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부족한 점을 이렇게 써보니까.. 뭔가 성적이 조금 안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또한 A는 영화 <완득이>를 통해 자신의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안에는 자신이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직업인들의 영상을 보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자신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직업도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고 하였다.

“상상하지 못한 직업도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B는 1회기 때 ‘길’에 대한 노래 영상을 들으며 위로를 받아서 좋았고, 가사에 감정이입이 되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진로에 대한 마음은 네 바뀌었어요. 너무 긍정적이죠” (B, 8회기)

또한 1회기의 ‘길’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바탕을 검은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장점찾기를 통해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일반고에 진학해서 체육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였다. B는 ‘체육 교사’ 명함을 만들 때 신기했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앞으로는 자신의 진로가 기대됨을 이야기하였다.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이 바뀌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이제 생겼고”(B,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C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길’ 그림에서 장애물, 험갈린 길, 끊어진 길도 있지만 꿈을 찾아가면서 끊어진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화려한 거북이’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도 튀는 아이 가운데 하나가 돼서 아이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싶고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다. C는 평소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줄 기대했는

데 집단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하였다. 이후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낮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제시했던 방법들을 실제로 시도해 볼 생각을 나타냈다. C는 사실 프로그램 중간까지는 마음이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많이 웃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명함을 만들어 서로에게 주는 활동 후 자신이 진짜 사회복지사가 돼서 친구들에게 진짜 명함을 다시 주고 싶다는 기대를 이야기하였다.

“약간 커서.. 그 직업 가지고 명함.. 진짜 그 직업이 돼서 다시 명함을 주고 싶었어요.” (C,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D는 ‘길’ 그림에서 두 가지 길을 그렸는데 한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길은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다. 부모님은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걸으려는 반대를 안 하시지만, 다른 길을 원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얼 원하시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그동안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알게 되었고, 자신도 친구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발견한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냥 친구들이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친구들한테 친구들 장점이 뭔지도 알려주고...” (D,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특히 D는 온라인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인적 사정으로 프로그램 중 5회기를 온라인인 줌(ZOOM)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집중을 잘 할 수 있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친구들한테 받은 명함을 책상 위에 잘 올려놓았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모두 함께 불렀을 때, 처음에는 노

래를 부르는 것이 속스러웠지만, 가사가 마음에 남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A는 막상 뭔가를 해 보려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장점으로 노력해 본다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느껴졌다.

“뭐... 하는 대로 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가... 막상 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행동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 내가 장기가 있는데 그게 자기 노력해서 마음대로 하는 뭔가 말하는 대로 하고 이루어지는 느낌...”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도출된 주요코드 ‘대학’, ‘취업’, ‘즐겁게’, ‘기대’, ‘긍정적’은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삶을 그릴 수 있었다. 진로란 각 개인이 자신 일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다(Savicas, 2012). 다양한 치료기법을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자기서사를 만들어 간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으며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상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며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 및 영상치료, 사진치료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문융합치료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하고 적용하여 내담자가 자기서사를 구성하게 하며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적응적이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게 한다(김진선, 김영순, 2021).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의 자기서사를 다양한 치료기법을 사용하여 구성하게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에 다양한 비판적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김영순, 2017), 사회적 지지인 집단의 지지와 다양한 진로탐색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긍정적 기대감으로 재구성하게 하였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참여 경험의 의미를 진로 상담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틀로 사용한 진로상담의 세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기이해, 두 번째,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진로장벽 대처, 세 번째, 진로성숙이다. 본 V장에서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을 진행하고 도출된 자료들을 통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의식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5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두 번째,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세 번째,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네 번째,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다섯 번째,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이다. 진로상담 영역을 중심으로 참여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 모두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본 연구 공지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를 보였다. 개인별로 본 프로그램 진행 인터뷰 시에도 미리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와서 본 연구자를 기다리며 그들이 얼마나 진로상담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 진행 인터뷰 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진로는 각자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진로를 여러 가지 길로 표현하였다. 사전인터뷰 당시 그들 모두는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염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길 그림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가지의 길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다양한 길이 주어질 수 있으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B는 1회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함께 보았던 ‘길’ 관련 음악 영상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B가 얼마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단 노래가 좀.. 많이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약간 감정 이입도 좀 됐던 것 같아요.“ (B,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프로그램 초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포기했던 진로들과 그 이유들에 대해 집단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능력 부족, 불안정한 가정환경,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도전조차 포기해버린 길, 중단해 버린 길, 어두운 배경의 길로 표현하였다.

두 번째, 자신과 주변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특징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집단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긍정적 라포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딕싯(Dixit)’이라는 이야기 보드게임을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 중 하나로 꼽았다. 그림 카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예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A는 ‘같이 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B는 ‘밝음’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빠를 호랑이, 버팔로, 상어 등으로 커다랗고 무섭고 사나운 동물로 표현하였다. 엄마를 코뿔소, 사자, 불곰 등으로 역시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며 무섭다고 하였다. 하지만 A의 경우 아빠를 ‘불곰’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국인 새 아빠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직업상 지방에 계셔서 자주 보지 못하여 새 아빠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마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담임선생님이 의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B의 경우 자신 주위의 존재하는 가족 외의 어른에 대한 탐색하는 활동에서 담임선생님과 큰아빠만을 이야기하였다. 그중 큰아빠는 무서운 불곰으로 표현하였지만,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귀엽다고 여기는 ‘여우’로 표현하였다. 현재 B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른은 담임선생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는 담임선생님, 태권도 사범님, 복지관선생님, 위클래스선생님, 이웃집 아줌마 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정 외의 긍정적 지지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와 삶에 대한 인식을 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장점을 알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장점은 또래 관계의 탐색을 통해 발견되었다. 연구 초기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였던 연구참여

자들은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점이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갖고 싶었던 장점들을 집단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 때 더 기뻐하였다. D의 경우에는 이 활동을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경험하였다. 장점 찾기 게임은 앞선 회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성공 경험은 또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A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 배려심을 가지고 했기에 그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B는 친구들에게 함께 대회에 나가자고 권유해서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을 성공 경험이라고 하였다. C의 경우 어려움에 놓이게 된 친구를 도와준 것을 성공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했었다고 하였다. D의 경우에도 연락이 끊긴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였고 다시 관계가 유지된 것을 성공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더욱이 서로에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은 대부분 관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었다. ‘우정을 나누는’, ‘활발한’, ‘긍정적인’, ‘친밀한’, ‘명랑함’ 등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C의 경우 자신을 ‘거북이’로 표현하며 자신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관심받고 싶음을 이야기하였다. B도 가정에서는 무표정으로 지내지만,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었다. B는 자신을 ‘여우’, ‘펭귄’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유로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네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초기 진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그들이 진로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습능력 부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영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첫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A의 경우 오랫동안 중국에서 아빠없이 엄마와 함께 살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엄마가 홀로 경제적 책임을 지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현재 엄마가 한국인 남편과 재혼하여 가정을 이뤘지만 새 아빠의 직업도 역시 불안정하여 가정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B의 경우 한국인 친부와 필리핀 친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가정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낮은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개념과 원리가 이해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수학과 과학 분야의 진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며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그들이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 주위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A의 경우 예전에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어렵게 이야기하였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도와줄 엄마와 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B는 엄마를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친구들뿐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고 있었다. C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어른들과 친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D의 경우에도 무서운 부모님이지만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인식 및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들을 발견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진로장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들로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성장하고자 하였다. 7회기에서 다양한 진로 관련 영상을 본 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돼서 좋았다는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진로 관련 영상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어떤 분야의 직업들이 있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뭔가 진로를 이렇게 찍은 시대가 발전이라서. 다양한 직업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었어요.”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원래 다양한 직업들이 무슨 일은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대충 이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게 됐어요.” (B,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연구참여자들을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직업들만 소개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다양한 직업 세계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려웠다. B의 경우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그냥 재미만 있고 진로랑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때 그냥 재미있는 것만 하고 .. 그냥 활동으로 끝난.. 진로랑 관계없는..” (B,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또한 진로를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음으로 ‘성실’, ‘성취’, ‘도전’, ‘자유’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특성에 따른 가치를 선택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계획을 구성하였다. 상담 초기 자기 진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였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A의 경우 13살에 우리나라에 중도 입국하여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내용 이해가 어려워 소통이 잘 안 되었다. 사실 처음에 진로고민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지원했으나 한국말을 조금 못하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한국어가 부족해도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고 하였다.

“제가 처음에 조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한국 말. 제가 원래는 뭔가 그렇게 어느 센터에 가서도 이런 활동을 했어요. 한국 말 조금 못해 때문에 조금 어려워.. 그래서 처음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근데 조금 참석을 해 다 보니까 친구들도 같이 하니깐 너무 재미있고요. 참여하니깐요 친구랑 대화도 되고요... 뭔가 미래가 계획을 하게 되고요.. 직업 이래 직업이 어떻게 뭐 있는 직업이 있는지.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계획하는지 어떻게 신경 하는지 이렇게 신경 써 보니까 재미있어요.. 제가 처음에 조금 뭔가 말하

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석 해 보니까 말하는 거 느낌이 없어서. 그 하나까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A,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VI.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참여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 또는 이주 근로자 가정, 그리고 난민 가정 등 다른 문화권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2020년에는 2.8%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교육부, 2021),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진로 분야이다. 진로 문제는 삶과 연관된 것으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수많은 의사결정의 총합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분석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와 진로 교육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정책들이 마련되며 학교 현장에서 진로체험 등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그러한 활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양계민 외, 2018; 312).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은 진로 탐색을 촉진하고 진로 선택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Bardick, Bernes, Magnusson, & Witko,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를 바탕으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들의 참여 경험 탐색을 통해 그들의 진로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는

데 첫 번째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진로에 관련한 것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수는 국내 전체 학생 수 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과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였다. 특히 그들이 경험하는 학교 부적응은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진로 정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진로 관련 요구에 적합한 진로상담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인문융합치료 기법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집단상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상담 내에서 진로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지 않고, 내담자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이해와 성찰하게 하는 인문융합치료 기법과 진로상담을 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는 진로 집단상담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III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절차와 연구참여자, 그리고 연구 대상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연구 대상 프로그램은 문헌 검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뷰자료, 그리고 현재 다문화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사의 자문 내용을 분석 및 통합하여 지도교수님과 함께 구성하였고 가족상담 전문가, 진로 및 심리상담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G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상담회기 녹음자료, 연구참여자들의 작품, 활동사진, 메모, 인터뷰자료,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성찰일지, 등의 자료수집 내용을 밝히고 자료분석틀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연구문제 1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 후, 초기, 중기, 후기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사례 내에서의 참여 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의 각각의 자기서사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다문화가정

구성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인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구사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가정 청소년인 연구참여자는 친부의 노령화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가정의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무섭게 인식하며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에 모두 학교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중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 형성된 집단의 라포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주고 서로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성적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진로장벽으로 느끼고 있었다. 회기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각자의 해결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시도하고자 하였다.

후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이해와 새롭게 발견된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각자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은 다양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로계획을 설계하였다.

V장에서는 연구문제 2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경험을 그림, 동작, 글, 말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는 각 사례의 코드 분석을 통해 주요코드를 도출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의 주요 코드는 ‘돈’, ‘부자’, ‘현금인출기’, ‘특성화고’, ‘슬픔’, ‘어려움’, ‘포기’, ‘고민’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진로 정보에 대한 부족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길 그림으로 표현하며 진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에 대해 인식

하며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그들의 작품이나 동작, 언어, 글을 듣고 이해하고자 서로에게 집중하였다.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별칭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특징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상을 볼 때, 사진을 선택할 때, 그림 및 글로 표현할 때 서로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충분히 기다려 주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하여 들어주었다. 이야기 보드게임(덱시, Dixit)을 통하여 서로의 시선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며 존중하여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기대를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현재 나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진치료(소희정 외, 2021:9) 활동은 나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무섭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담임선생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의 주요코드는 ‘독립적’, ‘무표정’, ‘무서운 가족’, ‘타국에 사는 친척’, ‘친구’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임선생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고, 부모님을 무서운 동물로 표현하며 가족에 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을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으로 ‘나무’, ‘나비’ 등으로 표현하며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분으로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의 주요코드는 ‘연락’, ‘이해’, ‘배려’, ‘도움’, ‘친밀감’과 ‘우정’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집단의 라포로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하여 주었다. 따라서 집단 연구참여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여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 시도하여 성취되었던 자신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의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발견된 자신들의 장점 등을 통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

네 번째,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의 주요코드는 ‘차별’, ‘어려움’, ‘의지’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영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을 발견하였다. 각자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서사를 통해 각자가 경험하는 장벽의 요인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자는 스스로 진로장벽을 낮추는 방법 등을 생각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 번째,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의 주요코드는 ‘성장’, ‘성취’, ‘성실’, ‘다양한 분야 관심’, ‘어려운 수학과 과학 분야’, ‘대학교’, ‘일’, ‘재’, ‘즐겁게’였다. 초기단계에서 이해한 자신에 대한 서사와 중기단계에서 형성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기서사를 이야기하였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에 대한 직업가치를 선택하며 직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여러 가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및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서로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 응원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지금까지 상담가로서 진행해왔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연구자는 연구동기에 밝혔듯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소수민이었다. 현재는 전문상담사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많은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류민에 속한다. 따라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는 힘을 가진 주류민의 위치에 있을 수 있기에 상담과정과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다음과 같이 성찰하였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집단 또는 다양한 학교급별에서의 집단 등 다양한 주제와 대상의 집단상담 경험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전 인터뷰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상담 참여에 대한 간절한 욕구와 기대감을 보며 본 연구자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동안 많은 집단상담에서 비자발적인 학생들을 주로 만나면서 집단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소수에게만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간절한 눈빛과 참여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다문화상담은 상담실 밖에서도 상담자의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진행했

던 집단상담은 학교의 정규시간표에 배정되거나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학생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 진행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어서 학교의 출석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온라인 수업 후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와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의 돌봄과 지지가 부족했기에 회기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상담 시간을 지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연구참여 자 중 회기 중 다리 수술을 크게 하여 반드시 휠체어를 타야 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런 경우 학생이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와야 하는 데 학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다른 학생은 집이 학교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약속된 상담 시간에 참석이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로 찾아오는 상담으로 구성되었지만 학생들의 용이한 참여를 위해 연구자가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거주지역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거주 및 생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그 경험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상황은 상담방식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줌(ZOOM)상담으로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거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기존의 대면 상담방식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집단상담을 운영하는 상담자로서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위해서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A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A는 한국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여러 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가 어려웠고 본인은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없었

다고 하였다. A는 본 프로그램에도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상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즉 자기 서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한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의 참여경험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신과 사회적지지 환경에 대한 이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정체감 회복’, ‘진로장벽 인식과 대처’, ‘진로에 대한 흥미와 탐색 및 기대감’이 주요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현장에 활용되기 적합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상담에 대한 절실함의 원인은 다문화가정의 형성 특성을 이해하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관한 탐색은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로 각기 다른 다문화가정 형성의 특성을 보였다. A는 외국인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였으나 친부모의 이혼과 친모의 한국인 남자와의 재혼으로 국제결혼 자녀가 되었다. 또한 출생 후 1세 때 중국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5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친부모의 이혼과 이주경험, 그리고 친모의 국제결혼은 A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신을 슬픈 과거가 있는 만화주인공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혼란과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B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로 한국인 친부와 필리핀 친모와 살고 있다. 국제부부인 부모의 나이 차이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차이를 가져오며 자녀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B는 가정 내 부모의 공감과 지지의 경험이 부족하고, 가정 외 지지체계 중 어른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B는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며 공감받고 지지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이규미 외, 2001). C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로 한국인 친부와 베트남 친모와 살고 있는데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C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사진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진을 보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자신을 표현하는 동물이미지로 거북이를 선택하여 화려하게 거북이를 꾸미며 관심받고 공감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D는 외국인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로 국내에서 7세 때까지 살다가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중국인 가정의 자녀로 한국에서 살면서 가정 안과 밖의 문화적 환경 차이, 초등학교 시절까지 경험하였던 중국과 현재 생활하는 한국의 국가적 환경차이를 경험하면서 현재 삶의 적응을 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 특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이다. 이들은 가정 내 문화와 가정 밖의 문화가 다르게 형성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언어와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며(신경, 송원일, 2018), 자신의 긍정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송선진, 2007). 또한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교육환경(이래혁, 장혜림, 2018)에 처해있다는 선행연구처럼 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정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에 대해 그들의 가정뿐 아니라 교사들로부터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박진우, 정재홍, 2014)처럼 연구참여자들도 자신이 겪고 있는 진로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이아라 외, 2018), 진로 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진로캠프 등)에 대해 높은 요구를 보였다(양계민 외, 2018)는 선행연구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상담을 받고 싶은 간절함을 보였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지지 역할은 외적, 내적 장벽보다 진로발달 과정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며, 자원이 적은 개인에게는 사회적지지와 관계가 진

로 성공에서의 개인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Blustein, 2018:144).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 외의 지지(교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는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학생생활과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주영아, 김현주, 윤경주, 2014).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여 외모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더라도 다문화가정인 것이 드러나면 이로 인해 심리적 및 행동의 위축이 생기고,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경험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류방란, 오성배, 2012).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또래관계에서의 성공경험이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또래관계는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또래와 자주 접촉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 위로나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다(장연주, 신나민, 2015). 긍정적 또래관계는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 노력도 요구되지만, 사회정치적 발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장벽은 개인 내부나 외부환경 속에서 진로 진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이다(선곡유화, 서우석, 2021).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선택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 실현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요인을 진로장벽요인으로 해석하였다(Lent et al, 1994). 일의 심리학이론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사회정치적 불평등을 경험하며 교육적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였다(Blustein, 2018:144). 평등한 기회와 실력주의로 과도하게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 및 사회적 억압과 같은 맥락적 요소를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상담자가 이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옹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에게 사회의 억압적 차별 구조를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에 필요하다(김태선, 신주연, 2000). 사회정의에 기반한

진로상담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 및 억압 문제와 관련된 환경적 맥락을 이해하게 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진로의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회구조적 맥락을 분석하여 차별과 억압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김태선, 신주연, 2020). 즉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게 스스로를 비난하여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네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인문융합치료는 이들이 다양한 진로분야에 호기심과 흥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비판적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비판적 의식을 높여 이들의 사회정치적 발달을 돕는다(김영순, 2017:74). 사회정치적 발달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직업적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직업성취에 영향을 준다(Blustein, 2018). 따라서 인문융합치료기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을 경험하고 원하는 진로목표를 세우며 구체적 진로설계를 하여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며 집단 안에서 또래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해 탐색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도 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학습역량 부족의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지만,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탐색하며 도전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진로정보 부족으로 진로결정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이아라 외, 2018).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정보를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검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김현영(2017)은 프로그램 중 Holland 직업흥미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연구참여자들의 평가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설명이 길어지면 집중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도 연구의 설문 분석내용에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진로영역 직업군의 실제 직업생활 영상을 통해 직업과 진로를 관찰하고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며 의미 있는 포부를 추구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진로결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영남, 2017).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청소년은 진로선택을 조기에 포기하거나 직업 및 진로영역에 관한 낮은 결과기대를 갖는다(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직업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임경희, 2013). 김영미와 현안나(2020)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적응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진로결정 수준을 낮추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의의를 다루고 앞으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상담 관련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연구하여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진로문제는 큰 고민거리이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진로 검사, 진로 멘토링, 체험활동 등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진로 관련 연구는 진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진로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단연구(양계민 외, 2018)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연구 현장에서도 진로상담에 대한 높은 요구와 기대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연구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벽 및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미술치료, 영화치료, 음악치료, 사진치료, 인형치료, 동작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기법을 융합한 인문융합치료를 통하여 자기에 관한 이야기, 즉 자기서사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에 적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면서 인문학의 주요 목적인 인간의 인간다움을 탐색하고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김대기 외, 2009)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시작과 마무리는 음악치료가 활용되었다. 음악치료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과 역동성에 중요 영향을 미친다(김봄, 문지영, 2021:56.).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진로 관련 음악 영상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감상하며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적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연구참여자는 음악을 통하여 자신들이 인식하는 진로에 대한 성찰을 자기서사로 표현할 수 있었다. B는 노래 영상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노래의 가사에 감정이입이 되었다고 하였다.

“일단 노래가 좀.. 많이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약감 감정 이입도 좀 됐던 것 같아요.“ (B,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인터뷰)

이는 연구참여자와 본 연구자와의 초기 라포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를 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도 음악 영상을 사용하였는데 이때는 연구자와 모든 연구참여자가 직접 소리를 내어 함께 부르는 활동도 하였다. 내담자는 음악치료를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정신적, 신체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송지선, 2020:2). C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가사처럼 자신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는 C가 노래부르기 활동에서 프로그램 활동 중 얻은 자기 성찰에 대한 의지를 노

래를 부르면서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기마다 활용되었던 미술치료는 미술적 표현활동을 통하여 치료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신분석가인 Rorschach나 Jung도 내담자의 그림을 치료에 적용하였다(정여주, 2019:21). Naumbug는 내담자가 무의식에서 표현한 상징적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심리치료의 발전된 언어표현이라고 하였다(정여주, 2019:2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림의 형태, 구도, 색 등을 통하여 성찰하고 자기서사로 풀어내었다. A는 4회기의 활동 중 현재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에서 얼굴에 빨간 땀방울을 표현하였다. 현재 자신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B는 자신의 길 그림의 배경을 검은 색으로 칠하면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한 표현은 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본 연구프로그램에는 총 3편의 영화가 활용되었다. 내담자가 영화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며 영화를 통해 인간의 삶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영화치료이다(김준형 외, 2021:19). 특히 3회기와 6회기에 활용된 영화는 사회정의 인식을 위한 다문화리터러시이다. 영화를 통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서사에는 비판적 인식의 시도가 나타났다. 3회기에 활용된 영화 <마당에 나온 암탉>을 보고 B와 C는 엄마 ‘앞썩’과 자녀 ‘초록이’가 마당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은 생김새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생김새를 가지고 차별하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독립을 꿈꾸는 B는 초록이가 앞썩이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응원하였고, 현재 부모의 관심을 원하는 C는 초록이가 엄마 앞썩이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슬프다고 이야기하였다. 같은 영화를 보지만 각자 삶의 배경에 따라 성찰한 것을 자신의 서사로 다르게 표현하였다. 6회기에 영화 <완득이>를 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성찰한 것을 자기서사로 나타냈다. A는 중국에서 아빠 없이 엄마, 이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외할머니의 죽음으로 엄마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엄마에 대해 애뜻함을 이야기하였다.

B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많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4회기에 활용된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를 보고 A는 주인공 스크루지가 미래의 유령에게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장면에서 나비효과를 떠올렸다고 하였다.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꾸면 자신의 주변의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혹 그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평소 A는 책을 많이 읽고 작가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동일한 영화를 보지만 적극적 성찰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C는 주인공 스크루지의 공격적인 말투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자기의 행동과 말투를 스스로 탐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편안한 표정을 보여주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D는 스크루지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발견하였다. 자신은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동일한 영화를 보면서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영화치료는 내담자의 생각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며 집단으로 감상할 때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활성화시키고 라포형성에 용이하다(김준형, 유순덕, 2021:54).

마지막으로 김준형과 유순덕(2016)은 사진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를 완화하고 심리적 발달과 치료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진치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삶과 미래에 이루어질 삶에 대한 사진을 고르고 사진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하여 치료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문융합치료 기법은 각자의 성찰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데 용이하였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집단상담으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단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정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진로장벽이다. 이러한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 가정 내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긍정적 경험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가

정 외의 지지체계인 친구, 교사, 도움받을 수 있는 어른은 부모의 진로간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며 진로장벽을 낮춘다(김정은, 2020; 양계민 외,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든 활동에서 집단원 서로가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서사를 표현하게 하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서로를 이해하여 구체적인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서로의 장점 발견하기 게임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의 역동적 과정은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전 선행연구의 진로집단상담 연구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진로발달, 진로성숙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 본 연구는 집단을 통한 공감과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현장 연구인 질적연구방법으로 설계되었기에 프로그램의 적용 및 진행 과정, 연구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이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로의식의 변화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라는 상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연구자는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과의 만남, 연구참여자들이 사는 동네 방문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부모님과의 만남 등은 연구현장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었다. 단일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서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다중사례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대한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진로상담은 20세기 초 Parsons(1909)의 특성-요인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이론들이 생겨났고, Holland(1997)의 직업 성격유형 매칭 이론으로 발전되어 오며 진로검사의 발달로 이어졌다. 그리고 진로상담에 발달심리학이 반영되고 환경변인이 고려되어 진로이론이 발달하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맥락과 배경을 통한 삶의 내러티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리이론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진로와 심리적 문제를 구분하기보다 그 역할들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 절차를 따르는 본 연구의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상담자이며 질적 연구자이기에 더욱더 깊은 자기 성찰과 통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상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중사례 분석으로 개별사례 간 공통으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관련 기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 필요성과 그들의 특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현재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기존 청소년들과는 다른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진로상담은 심리상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매뉴얼(2017)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심리지원이다. Savicas(2012)는 각 개인은 자기자신을 구성하고 직업에 관련된 행동의 방향을 잡으며 진로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하였다. 즉, 상담 내에서 진로와 심리적 문제를 구분하기보다 내담자들이 원하는 진로와 삶의 역할들이 상호작용하도록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 진로상담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때 내담자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충분한 탐색이 있어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어려움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진로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의 진로지도 매뉴얼(2017)은 학생의 진로유형을 인적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내 진로관련 정보, 학생 유형 진단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동기촉진형, 목표수립형, 활동강화형, 계획실천형으로 구분하였고 진로지도 및 상담을 진행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국제결혼가정 중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유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진로상담을 심리상담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며 이해하여 스스

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진로상담은 다양한 비언어적 활동을 활용하여 이들이 활동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집단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진로지도 매뉴얼(2017)의 진로상담 예시 내용에 따르면 진로인식 수준과 탐색 및 적합 지도와 설계를 위한 다양한 질문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적 질문은 인지적 과정으로 언어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상담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관점의 진로상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비언어적 프로그램 활동 구성과 실행에 대한 연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내용 구성에 사회적인 차별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우, 선택의 기회 부족 등에 주목하여 사회구조적 제약에 관심(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et al., 2016)을 가지는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일과 진로에 관련하여 선택권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Blustein, 2018; 73). 이런 비판적 의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선·신주연(2020)은 내담자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인식할 경우 부당하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진로장벽은 자신의 무능력이나 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불평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과 동기가 수반되는 사회정치적 발달과 함께 사회정의에 관련한 교육이나 상담적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지원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는 진로교육과 취업 교육 등으로 진로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으로 진로상담 교사 연수실시가 의무화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상담 실재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0a). 하지만 주로 진로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진로상담을 경험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진담 교사가 진로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데 진로검사에 치중되고 있고 상담 전문가로의 역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진로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상담의 실재가 원격연수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해 이중언어기능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지원은 학교적응에 주로 맞추어져 있고 진로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진로상담을 심리상담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며 이해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비언어적 활동을 활용하여 이들의 접근을 쉽게 하였으며, 집단을 통한 지지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상담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관점의 진로상담과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자 중학생이었다.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자 중학생들의 집단이기에 남자 중학생 집단과 남녀 중학생이 함께 구성된 집단의 참여 경험 연구도 추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급별, 학년별 연구참여자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집단 상담연구로 집단의 역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의 피드백을 주며 상호소통을 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긍정적 반응이 동일 성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성별에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긴박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래 집단의 모임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다.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여러 다른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1년이 넘게 진

행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구참여자들이 가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다. 집단상담은 집단의 역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단 감염의 염려로 마스크를 쓰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없기에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적 접촉이 차단된 채 상담을 진행해야 했기에 집단 놀이치료나 동작 치료 등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 좀 더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한 인문융합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영남(2017).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삶의 만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3(4), 161-182.
- 고태용(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 고미영(2004).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 청목출판사.
- 고해건, 이모영(2017). 국내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한국융합예술 치료교육학회**, 3(1).23-46.
- 교육부(2015).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공포, 201512.23. 시행).
- 교육부(2016). **학생유형별 진로상담(지도)운영 매뉴얼: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운영매뉴얼**.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20a).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1년 진로교육활성화 지원계획 (2020. 12). 서울:교육부.
- 교육부(2020b). 2020년 교육 기본통계(2020. 8.).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 곽현주, 김영희(2013). 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85-203.
- 구자경(2012). 청소년상담자의 문화적 역량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0(4), 3-13.
- 권요셉(2021). **노인 우울증자의 분석가담화 기반 생애회상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경신, 김미경(2013).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5(1), 175-194.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2003).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 학지사.
- 김기현(2018).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성과와 가치. 제 46차

-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 김기홍, 이남철, 나현미(2018), 다문화 청소년 직업훈련교육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문주, 신현주(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문융합 교육의 실제. **문화와 융합**, 42(8), 595-618.
- 김미화, 김미옥(2017). 강점기반 진로집단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25(4), 289-307.
- 김민경(2014).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3), 35-53.
- 김민경(2015).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13(3), 147-171.
- 김민선(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 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4), 251-271.
- 김보라, 손현동(2016). 보드게임 놀이 대집단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26(3), 195-217.
- 김봄, 문지영(2021) 음악치료사의 정서지능이 치료적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달수준의 매개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3(1), 55-78.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6).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 학지사.
- 김성자, 김순미, 이현림(2008).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1-14.
- 김소라(2019a).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427-439.
- 김소라(2019b). 대응분석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346-361.
- 김소라(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20(10),

470-487.

- 김수지(2013).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비교, **영화 연구**, (55), 83-126.
- 김신애, 조항(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0(2), 91-110.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지지와 내외 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영미, 현안나(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학교사회복지**, (49), 311-338.
- 김영숙(2020). **직장인 커리어스토리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연구 : 정서경험을 확충한 구성주의 진로집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경기 : 북코리아.
- 김영순, 오영섭(2020) 내러티브 활용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적용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8(1).107-130.
- 김영순, 오영섭, 왕금미, 김수민(2021).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미술·이야기 융합치료의 이해**. 경기 : 북코리아.
- 김영순 외 13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 창지사.
- 김영순 외 10인(2020).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경기 : (주)박이정.
- 김영옥, 채연숙(2019). FPI의 문학치료와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의 융합적 활용 - 성인 여성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793-802.
-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69-194.
- 김연정(2015).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 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2), 93-115.
- 김영천(2017). **제 3판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정상원(2017). **제 3판 질적연구방법 V**.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숙(2017).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유숙, 고모리 야스나가, 최지원(2013). **놀이를 활용한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 김은정(2021). **설화를 통한 농아인 대상 문학치료연구: MMSS 서사반응 분석과 미술치료 활동을 연계한 문학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익진(2020). 청년 감정노동자를 위한 인문예술치료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와 인문학적 과제. **감성연구**, (21), 219-248.
- 김인숙(2012). 정신분석과 무용동작치료. 한국예술심리학회 학술대회, 51-69.
- 김자경, 오혜정(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3(1), 1-26.
- 김정은(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 김준형, 유순덕(2016). **사진치료의 기법과 실제**. 서울 : 버커밍.
- 김지연, 이윤희(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2009-2019.6). **학습자교육교과교육학회**, 19(19), 1205-1230.
- 김진선, 김영순(2020).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한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8(3), 153-177.
- 김진선, 김영순(2021). 청소년 대상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인문과학연구**, 42(0), 145-182.
- 김태선, 신주연(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2019).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 학지사.
- 김현영(2017).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현영, 장석진(2017).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5(4), 85-100.
- 김현주(2011).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5(1), 229-261.

- 김혜경, 어윤경(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123-143.
- 김호연(2016).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 데이터(data) 활용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0(1), 70-95.
- 남부현, 최충욱(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 노지혜, 문성호(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6.
- 류방란·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류성창(2015). [주제발표]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95-136.
- 명형철(2018). 다문화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 105-132.
- 민예지, 강현아(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135-159.
- 박근수, 곽연희(2013).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청소년 다문화 교육 필요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112-137.
- 박동진, 김송미(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29-53.
-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2020).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95-217.
- 박미숙, 이미정(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3), 149-174.
- 박선희(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진우, 장재홍(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박혜숙(2002).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7-30.
- 반재유, 예병일(2012). 의예과 인문학 교육에서 ‘치유하는 글쓰기’의 적용 예, **한국의학교육학회**, 24(3), 189-196.
- 배영의, 김성범(2017). 문학치료의 텍스트 해석학적 이해 - 폴 리콥르의 은유, 상징, 내러티브 해석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2, 41-76.
- 법무부(201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 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법무부(2019a). 국적법(법률 제 16851호, 2019.12.31. 타법개정).
- 법무부(2019b).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 변학수(2012). 내러티브의 기능과 문학치료. **뫼히너와 현대문학**, 39, 285-305.
- 변학수(2018). **문학치료**. 서울 : 학지사.
- 변경원, 최승은(2015). 일반논문 :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교류하는 주체 -Taylor의 인정 이론을 넘어 Ricoeur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 가능성. **교육문화연구**, 21(4), 37-59.
- 서보준(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9(3), 1145-1158.
- 선곡유화, 서우석(2021).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대처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4(2), 73-100.
- 선혜연(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0.
- 선혜연, 김계현(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 설연경(2016). 청소년 대상 미적경험 기반 인문융합 시각문화교육 프로그램 구안. **조형교육**, 58, 99-124.
- 성윤희, 장은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43-64.
- 소희정, 한경은, 김문희, 신혜경, 이지혜, 정윤경(2021). **사진치료의 모든 것**. 서

- 울 : 박영story.
- 손은령(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지선(2020).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게임 이용동기 인식을 위한 그룹 음악심리 치료 사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17(2), 1-28.
- 송혜정(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신경, 송원일(2018). 이중언어사용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사례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2), 99-117.
- 신명주(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신명희 외 8인(2017).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신영권(2016). **중도입국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란(2013).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안진아, 정애경(2019). 일의 심리학이론의 한국 진로상담 적용방안. **상담학연구**, 20(2), 2017-227.
- 양계민(202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 87-104.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2016).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원.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 1-584.
-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김주영(2018).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8: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 1-555.

- 양미진, 고흥월, 이동훈, 김영화(2012).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청소년 상담연구(총서)**, 2012, 1-152.
- 양은아(2010).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학습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18(2), 143-172.
- 엄찬호(2010).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0(25), 421-441.
-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7281호. 2018.3).
-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7281호. 2018.3).
- 여성가족부(2020).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7281호. 2020.5.19).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 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 오성배, 서덕희(2015).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오영섭(2019).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 치료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48, 41-74.
- 오정아(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학교사회복지**, 45, 159-182.
- 왕은자, 김계현 (2007).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및 기업상담의 연구 동향 분석:효과연구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4), 1411-1433.
- 우희정(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능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 학회지**, (5), 5-21.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박영사.
- 윤아름(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영식(2015).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중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정아(2015).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S.D.T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종오, 강용비(2014).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효율성. **한국청소년문화연구**, 38, 33-69.
- 윤지영, 허은정(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 윤지은, 강영배(2014). 예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8, 33-69.
- 이규미·구자경·김은정·이시형(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근매(2011).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2), 59-81.
- 이근매, 장성숙(2015). 콜라주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5), 1439-1456.
- 이덕희(2016).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760-770.
- 이래혁, 장혜림(2020).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6(4), 17-26.
- 이명자(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모영(2000). 예술적 창조성에 대하여 ‘시각적 사고’ 개념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미학예술연구**, 12(-), 169-193.
- 이민용(2010a). 이야기 해석학과 이야기 치료. **혜세연구**, 23(-), 249-273.
- 이민용(2010b). 서사와 서사학의 치유적 활용-인문치료 방법론의 관점에서. **독일 언어문학**, 47, 247-268.
- 이선혜, 박지혜(2018). 이야기치료의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 26(3), 343-377.
-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 이영의(2010). 인문치료 패러다임. **범한철학**, 56(1), 283-309.

- 이영하, 최광현(2015). 인형치료를 통한 가족각본의 치료 사례연구. **인형치료연구**, 1(1), 21-41.
- 이영하, 최광현(2016). 인형치료의 동물상징체계 해석에 관한 연구- 라캉의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 **인형치료연구**, 2(1), 21-37.
- 이유경 · 류재운 · 방홍복(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지양(2013). 자아 커뮤니케이션과 사진치료기법에 관한 고찰 -사진치료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6(4), 195-204.
- 이지은(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창호 · 송민지(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0.
- 이희용(2015). **성장을 위한 경험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정(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회**, 52(1), 77-115.
- 이혜금(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한 다중지능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교사회복지**, 40, 21-39.
- 이혜미, 김유미(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65-689.
- 임경희(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6(2), 67-89.
- 임선아(2018).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195-214.
- 임은미, 구자경(2019).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서울 : 학지사.
- 장덕희, 신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123-147.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연구보고, 91-05.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도서관.
- 장연주, 신나민(2015). 다문화 청소년들 간의 또래관계 경험 및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8(4), 57-76.
- 장임숙, 김희재(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장혜림, 이래혁(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0(47), 189-218.
- 장혜진(2020).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융합예술교육 교구디자인 연구 :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와 교구디자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전경숙(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0(3), 253-291.
- 전선자(2011). 문화예술교육과 인문학적 바탕. **한국문학과 예술**, 8.103-127.
- 정나은, 김원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윌니스학회지**, 15(4), 59-69.
- 정여주(2019).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육영, 유형근(2021).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놀이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767-779.
- 정하성, 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실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개발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현주 외 16(2020).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 학지사.
- 조봉환(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245.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윤영, 정현희(2021).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21-247

- 주영아, 김현주, 윤경주(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2, 259-298.
- 주혜연(2020). **칼야스퍼스의 실존적정신병리학과철학상담 - 필로테라피(PLT)를 통한 실존적 자기되기**.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차한솔(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 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추혜진(2015).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 애니메이션 테라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채향화(2020). **재한 조선족 대학원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질적 연구 : 한국 취업 결정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가희(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 효능감에 대한 중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1025-1045.
- 최봉주, 김희정(2010). 영상매체를 활용한 중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연구**, 58(2), 127-156.
- 최정화(2008). 사진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연구**, 8(1), 91-113.
- 최현미(2013).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최현주, 김희수(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0(3), 71-91.
- 최현철(2012).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소고, **시민인문학**, 23, 183-214.
- 최효인(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교육**.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폴 리콕르(1999). **시간과 이야기 1**.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하여진(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1-22.
- 한수선(2015). **영화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 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한정아(2010). 영화치료를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8(4), 51-75.
-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9.1031
- 현지영, 김경근(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연구*, 25(2), 125-154.
- 황매향, 선혜연(2013). 취약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4(6), 3517-3536.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 청소년용 진로장벽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황은영, 양은아(2017). 음악치료사들이 지각하는 음악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2), 1-19.
- 황제이(2009).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성숙함.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17(1), 112-132.
- Bardick, A. D., Bernes, K. B., Magnusson, K. C., & Witko, K. D.(2006).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lans for the future: A Canadian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3), 250-271.
- Brown, M. T.(2000). Blueprint for the assessment of socio-structural influences un career choice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4), 371-378.
- Blustein, D. L.(2018). **일의 심리학**(The Oxfor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박정민, 김태선, 신주연, 남지혜 공역). 서울: 박영story.
- Böhm, W.(1994). *Wörterbuch der pädagogik*. Stuttgart:Köner.
- Corey, M. S., Corey, G., & Corey, C.(2016).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Groups Process and Practice (9th ed.),(김진숙 외 5인 공역).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주).
- Creed, P. A., Patton, W., & Prideaux, L.(2007). Predicting change over time in career planning and career explor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 Journal of Adolescent*, 30, 377-392.
- Creswell, John W.(2010). **질적 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A., & Autin, K.L.(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148.
- Ellis, R. J., & Thayer, J. F. (2010). Music and autonomic nervous system(dys)function. *Music Perception*, 27(4), 317-326.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Norton.
- Gysber, N. C., Heppner, M.J., & Johnston, J. A.(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Holland. J.L., & Holland, J.E.,(199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erriam, S. B.(1994). **질적사례연구법**.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허미화 역) 과주: 양서원(원전은 1988년에 출판).
- Nadler, L., & Nadler, Z.(1989). *Developing human resources*. Jossey-Bass
- Nordoff, P., & Robbins, C.(2007). *Creative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Pederson, P.(2000).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Alexandri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Ponterotto, J. G.(1988). Racial/Ethnic minority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 content analysis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10-418.
- Raabe, P. B.(2016).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철학의 역할**(Philosophy's Rol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수배 이한균 공역). 서울: 학이시습.
- Richardson, M.(2012). Counseling for work and relationshi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2), 190-242
- Rogers, N.(1993). *The creative connection: expressive arts as healing*.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 Rosenberg, H. G., Smith, S. S.(1985). Six strategies for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Placement, 42-46*.
- Savickas, M. L.(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 13-19.
- Schwartz, A.W. et al.(2009).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Humanities in Medical Education. *Mount sinai journal of medicine, (72)*, 372 - 380.
- Shaun, M.(2014). **통합예술치료 : 역사와 이론 및 실제**.(윤혜선 역). 파주:이담 Books.
- Stricker, G. & Gold, J.(2008). *Integrative Therapy. In Lebow, J. (Ed.), Twenty-first century psychotherapi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Sue, D. W., & Sue, D.(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NJ: John Wiley & Sons.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L. Brooks, & D. Brown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Swanson, J. L, &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Winner, E.(2004). **예술심리학(이모영 역)**. 서울 : 학지사.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 {Case study research}**.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공역). 서울 : 한경사. (원전은 2014년에 출판).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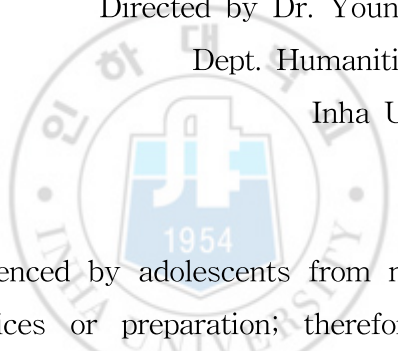
Jinsun Kim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Dr. Youngsoon Kim·Jooyeon Shin

Dept.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Inha University February, 2022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emblem with a stylized 'I' and 'H' and the year '1954' below it. The text 'INHA UNIVERSITY' is written around the inner edge of the circle, and '인하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outer edg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an affect their career choices or preparation; therefore, a differential career interven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his qualitative case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and interpreted the meanings of experiences of fou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ing in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and the difficulties they faced in choosing a career were mapped. Next, drawing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adolescents were provided career counseling and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that were adapted to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focuses on the narrative of the self, which is a basic element of the humanities. It involves the use of therapeutic techniques such as art therapy, story therapy, film and theater therapy, music therapy, photo therapy, doll

therapy, motion therapy, and play therapy to resolve or alleviate the subjects' problems by focusing on their self-narrative, expressed through various forms of narrative. Self-narratives expressed in forms other than language can facilitate self-understanding and reflection. In addition, they can lead to an adaptive and developmental life.

Solving career problems experienced by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gin by understanding their context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For career counseling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experience career barriers due to their cultural background, the concep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tegration with constructivist career counseling, which enhances individual strength and freedom, and interaction through the maturation of an individual's internal structure and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is required. Based on these theoretical approaches, this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apply the research in the field.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comprised eight sessions and fou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in it.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021 to September 2021 at G middle school in city I and examined using intra-case and inter-case analyses.

First,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were recorded and divided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program—early, middle, and late—and an intra-case analysis was performed.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unseling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talk about the difficulties they faced and the concerns they had about choosing a career. The career-relate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m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he com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art therapy, film and video therapy, photo therapy, and board games, the participants began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ir environment. They also began to identify their career path. During the middle stage, the participants began to discover their strengths, based on

empathy and an understanding of each other formed during group counseling. They also identified the career barriers they were experiencing and came up with solutions. During the late stage, through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the participants explored the career field they were interested in, designed the desired career path, and expressed their expectations for the career path. At this time, the career values pursued by each individual manifested in a variety of ways, and career paths were designed for each participant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Next, a case-by-case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mapped. The experiences were described in terms of 'awareness and concerns about career path', 'understanding self and social support environment', 'recovery of self-identity throug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career barrier awareness', and 'career interest, exploration, and expectation'. These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5 career counseling areas and 16 main categories:

An analysis of the meanings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participants could initially not even identify a career path due to their realistic environ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Specifically, they felt that they lacked career information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various career paths. After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visualize their career path as a road, they began to become conscious of it and started to explore and express interest in the path that they had not considered before.

Second, the participants explored their own characteristics through several activities, and in the process, they described their parents as "scary animals" and talked about the inconveniences and difficulties related to their families. They also perceived their relatives living abroad as "scary beings." The person that the participants commonly depended on was their homeroom teacher, who they described as a person who gave them "warmth" and

“stability.” They associated the homeroom teacher with images of “trees” and “butterflies.”

Third, the participants counted events that positively developed peer relationships among their successful experiences. They mentioned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that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peer relationships as each other’s strengths. Thus,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ir own strengths, the participants began to recover their low sense of self-identity.

Fourth, the participants began to recognize social structur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movie, and understand that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is were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cited economic difficulties as well as low academic achievement as the biggest career barriers. Specifically, they expressed difficulties in learning mathematics and science. The participants then tried to overcome these barriers by improving their academic abilities through coping activities. During this process, the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ir own learning attitudes and suggested specific learning methods, showing their will to lower the barriers. In addition, they discovered that when they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they could ask for help, recognizing that there were people around to help them.

Fifth, the participants deemed the job value of “growth” as important and expressed a desire to grow through jobs. In addition, they showed curiosity by exploring various career fields, setting career goals, designing their career paths in detail, sharing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career paths, and showing support for each other’s future hop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cause for the concern that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elt about their career path and the urgency they felt for career counseling could be determin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process. Additionally, identifying these characteristics could help counselors underst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e social support system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helping the participants form a positive self-image and lower their career barriers. Third, although individual efforts were required from the participants to lower the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through sociopolitical development was also required for this purpose. Fourth,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which the participati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und easy to understand, could motivate them to challenge themselves based on their own curiosity and interest in various career fields. It allowed them to set career goals through career exploration based on self-understanding and express their desire to grow through detailed design.

The study is significant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laid a framework for developing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by studying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ing in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that was tailored to their needs. In particular, the adolescents'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ir self-narratives to prepare a basis for a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ir career-related concerns, barriers, and aspirations. Second, the study sought to construct a story about the self, that is, a self-narrative, through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pplied it to career counseling for adolescents. Third, the study actively utilized the dynamic interaction of the group during group counseling to help them discover their own strengths based on an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mselves and others in the group. This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oosing and planning a career path. Fourth, since the study was designed as a qualitative field study, it was possible to specifically explore the application and progress of the

counseling program and the stories constructed by the participant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ir specific concerns and difficulties and explore the process of their changing their career consciousn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the counseling field as it suggests specific methods for career group counseling not only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counselors counseling them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동의서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연구 제목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 기관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연구자 정보	연구자 : 김진선 (연락처, 이메일)
	공동연구자 : 김영순 (연락처, 이메일)

연구 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의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로상담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촉진하고 진로선택을 돕는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가정 청소년과 통합된 진로교육 및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한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입니다.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과정의 녹음 및 취지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료수집 기간은 IRB 승인 후 1년이며 집단상담을 통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각 연구는 90분씩 8회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구기간 동안 진로집단상담 진행으로 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단 구성원 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참여자는 연구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위험은 없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없습니다.

- 심층면담은 정보 보호와 상담을 진행한 학교 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특정 장소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참여의 답례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회기마다 소정의 간식을 개별제공하고 연구 종료 후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 연구참여와 중지

연구 참여는 공지를 보고 자원하도록 하며 면담 과정 중에 연구참여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강압적으로 물어봤다고 판단되거나 그동안 밝힌 정보들이 후회되는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연구참여자가 거부할

경우 자료수집은 중단됩니다.

- 연구를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경우 연구자료(개인정보, 인체유래물 포함)는 폐기합니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3년을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연구 목적의 기록에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명 대신 A, B, C, D로 암호화하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기관의 이름도 0000으로 기록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연구자 외에는 자료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개인 정보는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전화번호)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합니다.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참여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연구참여자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서명		서명일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보호자용)

연구제목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 기관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연구자 정보	연구자 : 김진선 (연락처, 이메일)
	공동연구자 : 김영순 (연락처, 이메일)

연구 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의 자녀에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의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로상담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촉진하고 진로선택을 돕는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가정 청소년과 통합된 진로교육 및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융합한 인문융합치료를 활용하여 다문

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입니다.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귀하께서 연구 과정의 녹음 및 취지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귀하의 자녀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하려 합니다. 자료수집 기간은 IRB 승인 후 1년이며 집단상담을 통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각 연구는 90분씩 8회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구기간 동안 진로집단상담 진행으로 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단 구성원 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참여자인 귀하의 자녀는 연구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위험은 없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없습니다.

- 심층면담은 정보 보호와 상담을 진행한 학교 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특정 장소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참여의 답례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회기마다 소정의 간식을 개별제공하고 연구 종료 후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 연구참여와 중지

연구 참여는 공지를 보고 자원하도록 하며 면담 과정 중에 연구참여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강압적으로 물어봤다고 판단되거나 그동안 밝힌 정보들이 후회되는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연구참여자가 거부할 경우 자료수집은 중단됩니다.

- 연구를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경우 연구자료(개인정보, 인체유래물 포함)는 폐기합니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3년을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연구 목적의 기록에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명 대신 A, B, C, D로 암호화하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기관의 이름도 0000으로 기록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연구자 외에는 자료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전화번호)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합니다.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참여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부모/법정대리인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서명		서명일	

<부록 2> 회기별 인문융합치료 활용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주제		자기이해		
1회 기	회기 주제	관계 형성	소요 시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의의를 알고 다양한 인문융합기법을 통해 자기소개를 하여 관계 형성을 한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사진을 통하여 현재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한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상, 투사적 사진), 스피커, 8절지, 크레파스, 파스텔, 색연필, 포스트잇, 명찰	소요시 간	유의사항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상담사소개 및 PPT 이용하여 프로그램 안내하기 참여 규칙 정하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규칙 정하기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및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구성원 소개 불리고 싶은 별칭 짓고 소개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의미의 별칭이 되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긴어게인(길) 영상 시청 현재 나를 표현하는 사진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진 고르기(솔라리움카드) 자신의 길(현재 가고 있는. 가고 싶은 가게 될)그려보기 자신이 그린 길 이야기하기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 제	자기이해			
2 회 기	회기 주제	자기탐색	소요 시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여 객관화시켜 이해하도록 한다. •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를 표현하여 자신을 이해한다. • 보드게임을 통하여 현재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한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상), 크레파스, 색연필, 색종이, A4, 보드게임 덱시(Dixit) 명찰, 필기구	소요 시간	유의사항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회기 안내하기 • 참여규칙 읽어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상기 시키기
	활동 및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비’ 노래를 듣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그림을 선택하여 채색하기 • 자신의 동물그림 소개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그림 견본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 앞면에는 외적인 나, 뒷면에는 내적인 나의 얼굴을 그려서 표현하기 •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 소개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게임 덱시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공감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하고 게임 질문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 제	자기이해			
3 회 기	회기 주제	자신의 환경이해	소요 시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도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한다. 영화를 통하여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인형치료카드, 색지(기계도), 영상, , 크레파스, 파스텔, 색연필	소요 시간	유의사항
		명찰, 필기구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회기 안내하기 참여규칙읽어보기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상기시키기
	활동 및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치료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가계도를 그려본다. 자신의 가계도 소개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절지에 가계도를 먼저 그린 후 인형치료 카드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치료 카드를 활용하여 친구나 선생님, 또는 중요인물을 매칭하여 본다.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나누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인물 잘 살필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 제	긍정적 자아상				
4 회 기	회기 주제	성공경험탐색	소요 시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본다. • 성공경험 탐색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화, 색지(경험), 크레파스, 파스텔, 색연필	소요 시간	유의사항	
		명찰, 필기구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지난 회기 나누기 • 회기 안내하기 • 참여규칙 읽어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상기 시키기
		활동 및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크리스마스캐럴>를 보고 자신의 과거, 현재를 탐색하기 • 주인공의 감정 변화 이미지를 그려보기 (현재 스크루와, 깨어난 스크루지 얼굴) • 그린 이미지 나누기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준비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과거, 현재, 미래모습 그려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나 성공했던 경험(어떤 노력이 원인이 되었는지)을 탐색한 후 이미지 그리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마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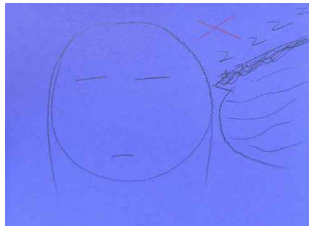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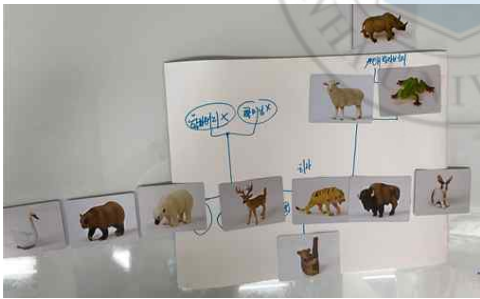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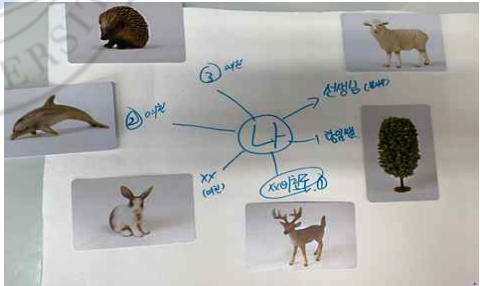
대주 제	긍정적 자아상			
5 회 기	회기 주제	강점찾기	소 요 시 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강점 및 단점을 탐색하고 집단원을 통하여 공감과 지지를 얻는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강점카드, A4용지, 필기구 명찰, 필기구	소요 시간	유의사항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지난 회기 나누기 회기 안내하기 참여규칙 읽어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상 기시키기
	활동 및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 관련 영상(박지성 선수)을 보고 나누기 게임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찾기(강점카드) 서로 가장 어울리는 강점 선물하고 선물 받은 강점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받은 카드에 대한 이유를 듣는다.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과 집단원이 이야기한 장점에 대해서 나누기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준 비 강점 카 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단점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하고 집단원들은 이야기 맥락 속에서 강점을 발견하여 알려준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강점을 이미지로 그려보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그려보기 그린 그림 나누기 	20분	
마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 분 히 표 현 할 수 있도 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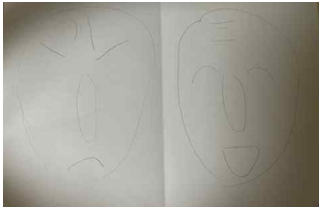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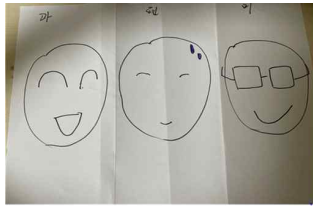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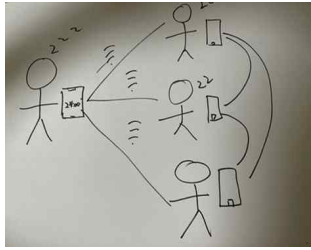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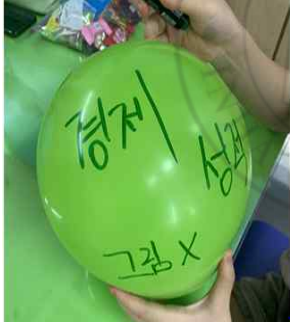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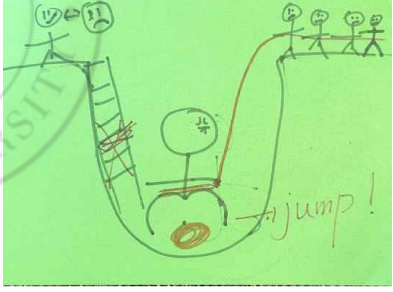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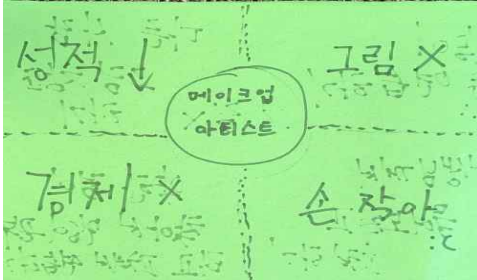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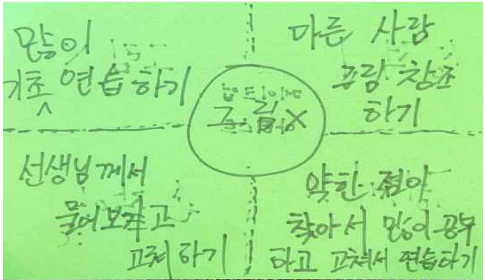
대주 제	진로장벽			
6 회 기	회기 주제	진로장벽 요인 및 대처방안	소요 시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장벽 요인을 찾고 대처방안을 찾아보기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화, 풍선, 매직, 색지 (U자 웅덩이), A4용지, 필기구	소요 시간	유의사항
활동 및 순서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지난 회기 나누기 회기 안내하기 참여규칙 읽어보기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상기 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완득이>를 보고 사회적 장벽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장벽에 대해 나누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들을 풍선에 적은 후 풍선 터뜨리기를 통한 진로장벽 깨뜨리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장벽 대처 방법을 탐색해보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자 모양의 웅덩이 안에 자신을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떠올려 그려본다. 그림에 대해 나누기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을 구하는 말과 듣고 싶은 말 탐색하기
마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 제	진로계획				
7 회 기	회기 주제	진로흥미 및 탐색	소 요 시 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통하여 긍정적 직업가치관을 알아간다 • 영상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생각해보고 직업카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본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상, 원트카드, A4용지, 필기구	소요 시간	유의사항	
		명찰, 필기구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지난 회기 나누기 • 회기 안내하기 • 참여규칙 읽어보기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상기시키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튼 출근’의 영상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한다.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를 사용하여 직업가치관 경매하기 • 자신이 획득한 직업가치관에 대해서 나누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관 카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를 활용하여 선택하고 싶은 직업, 선택하지 않을 직업, 잘 모르는 직업 찾아서 배열하기 • 배열한 카드에 대해서 나누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카드준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문장쓰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 제	진로계획			
8 회 기	회기 주제	진로계획 및 정리활동	소 요 시 간	총 90분
	회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자신모습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해본다 • 전 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와 집단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탐색하고 계획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진다. 		
준비물		PPT(프로그램 소개), 영상, 색지(계단, 명함), A 4용지, 필기구	소요 시간	유의사항
		명찰, 필기구		
활동 순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지난 회기 나누기 • 회기 안내하기 • 참여규칙 읽어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상기 시키기
	활동 및 나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계단 만들기(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후 삶의 전반 계획하기, 5년 후, 10년 후...) • 자신이 만든 계단에 관해 나누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삶을 꿈꿔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명함 만들기(000한 000) • 자신의 명함을 집단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명함대로 소개하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 색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대로’ 영상을 보며 함께 노래 부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준비
마무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로 회기별 느낌 나누기와 한 문장쓰기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부록 3> 연구참여자의 회기별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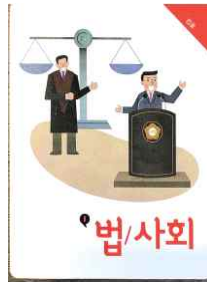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		
1 회 기				
	길 그림	현재 사진	미래사진	
2 회 기				
	동물 그림	보여지는 나	내 안의 나	
3 회 기				
	가계도	주변 어른 관계도		

		연구참여자 A		
4 회 기				
	주인공의 감정변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공경험	
5 회 기	1. 성실한 5. 생각깊은 2. 열정적인 6. 지식이 많은 3. 예의바른 7. 아이디어가 많 4. 독창적인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을 만날 때 낯을 많이 가리는 것 	
	집단원들이 찾아준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6 회 기				
	진로 장벽 터뜨리기	웅덩이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로 장벽	진로 장벽 극복하기			

연구참여자 A

7 회 기

	가치	투자 금액	남실금액
1	성실	55 30	30
2	도전	70 5	
3	자유	70 35	35
4	책임감	75 10	
5	협력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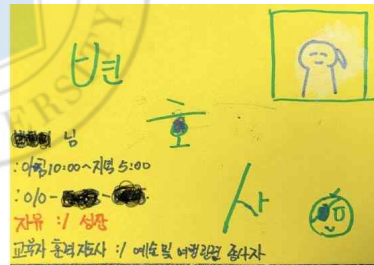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

하고 싶은
진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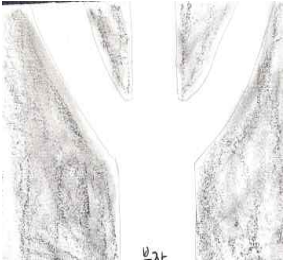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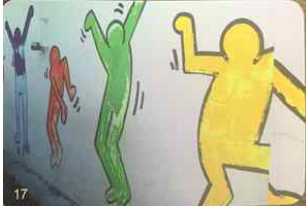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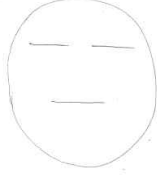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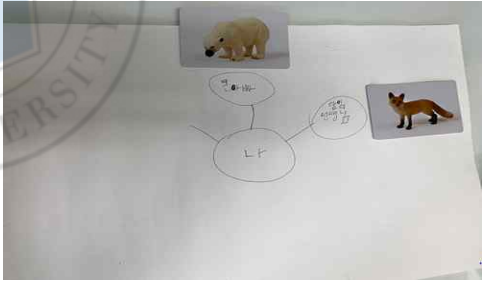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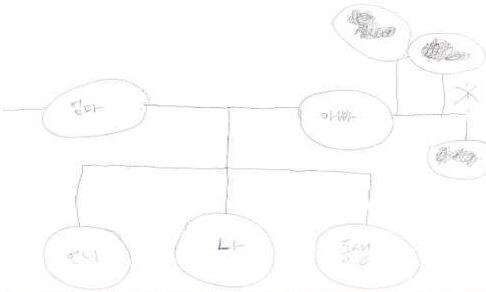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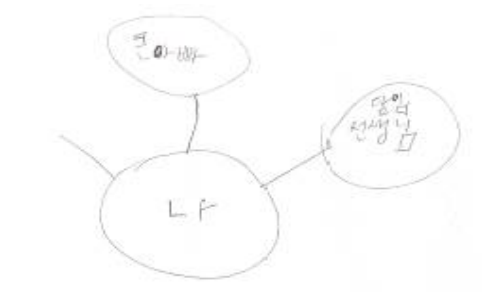
하고 싶지 않은
진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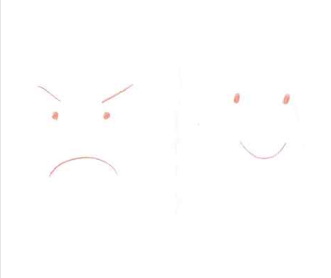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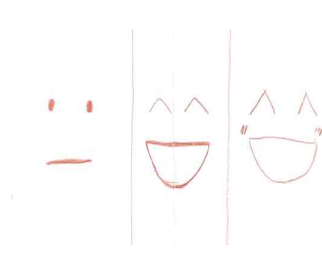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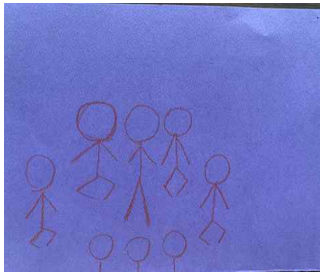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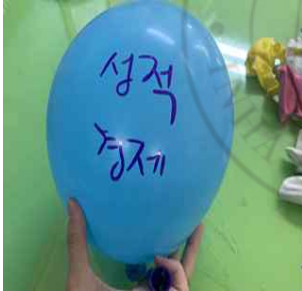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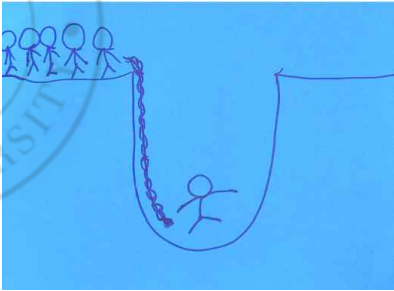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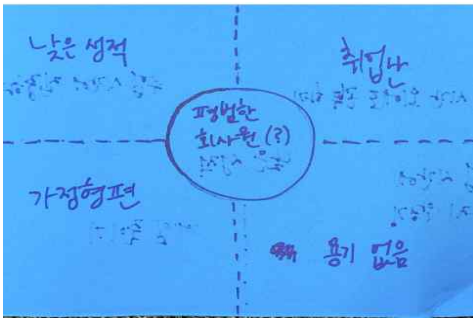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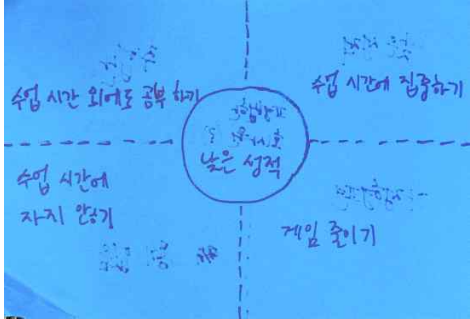
8 회 기



나의 진로 계단

나의 명함

		연구참여자 B		
1 회 기				
	길 그림	현재 사진	미래사진	
2 회 기				
	동물 그림	보여지는 나	내 안의 나	
3 회 기				
				
	가계도	주변 어른 관계도		

연구참여자 B			
4 회 기			
	주인공의 감정변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공경험
5 회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긍정적인 2. 우정을 나누는 3. 친밀한 4. 다재다능한 5. 모범적인 6. 순수한 7. 열정적인 8. 공동체적인 9. 호기심 많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목소리
	집단원들이 찾아준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6 회 기			
	진로 장벽 터뜨리기	응덩이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로 장벽	진로 장벽 극복하기		

연구참여자 B

7 회 기

	가치	투자 금액	낙찰금액	우선순위
1	활력	35	35만원	1
2	즐거움	20		2
3	안전	10		5
4	성장	20		3
5	성취	15		4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

하고 싶은
진로분야

하고 싶지 않은
진로분야

8 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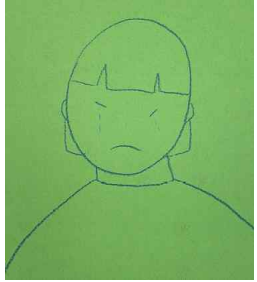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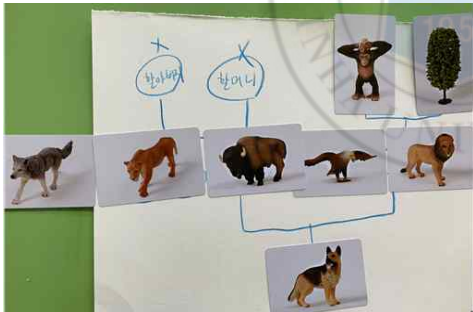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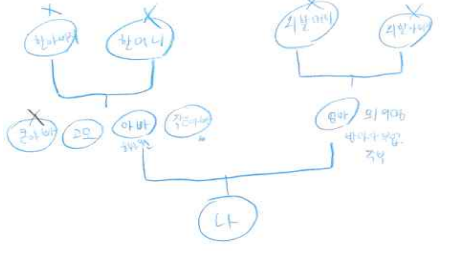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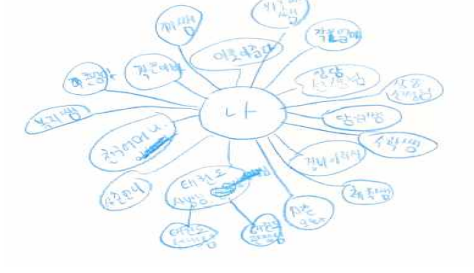
체육교사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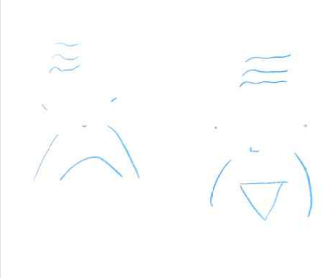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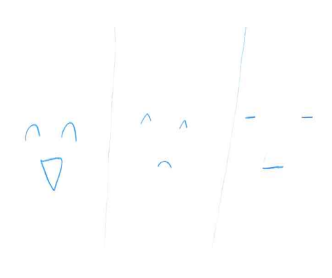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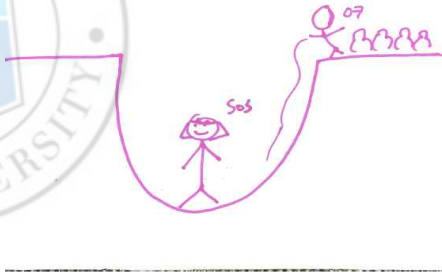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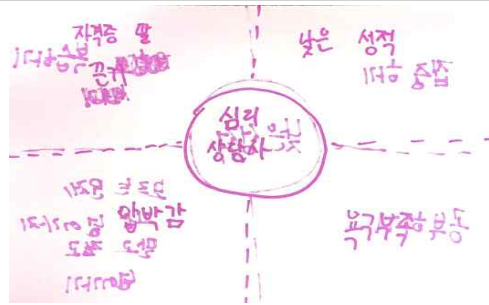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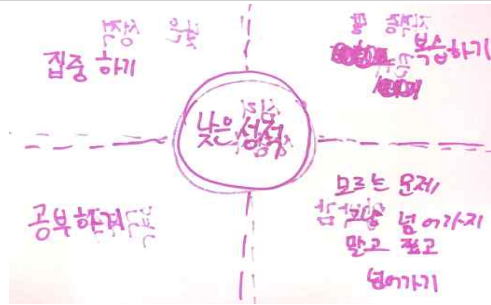
이- ~~체육교사~~

활력!
신체 활동을 하며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나의 진로 계단

나의 명함

연구참여자 C			
1 회 기			
	길 그림	현재 사진	미래사진
2 회 기			
	동물 그림	보여지는 나	내 안의 나
3 회 기			
			
	가계도	주변 어른 관계도	

연구참여자 C			
4 회 기			
	주인공의 감정변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공경험
5 회 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려하는 2. 사려깊은 3. 명랑한 4. 도움을 주는 5. 에너지 넘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우정을 나누는 7. 경청하는 8. 끈기있는 9. 순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집단원들이 찾아준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6 회 기			
	진로 장벽 터뜨리기	응당이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로 장벽	진로 장벽 극복하기	

연구참여자 C

7 회 기

	가치	투자 금액	낙함금액
1	현물	35	35
2	증권	25	25
3	영어	19	20
4	리더십	15	15
5	친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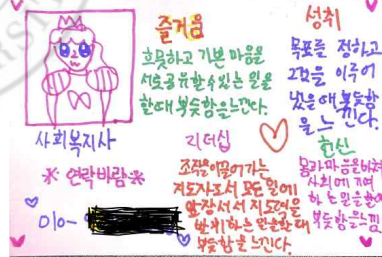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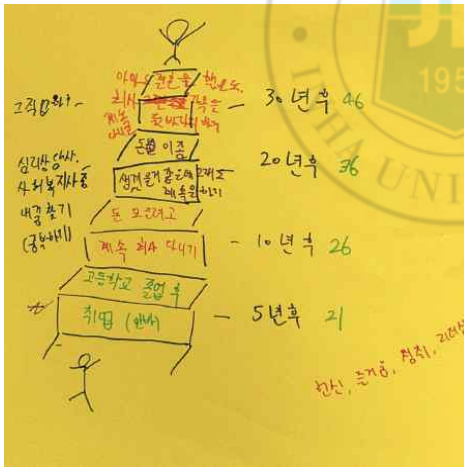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

하고 싶은
진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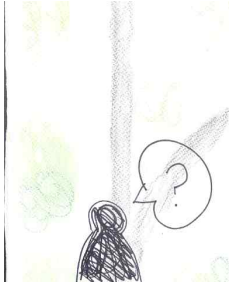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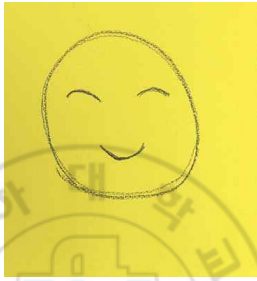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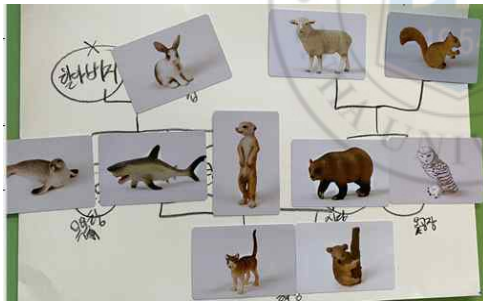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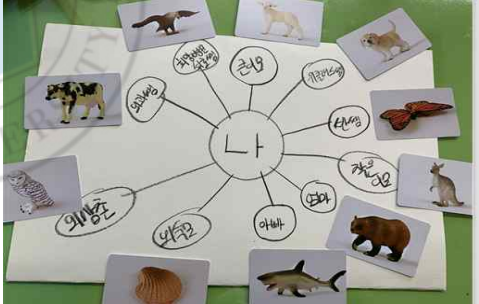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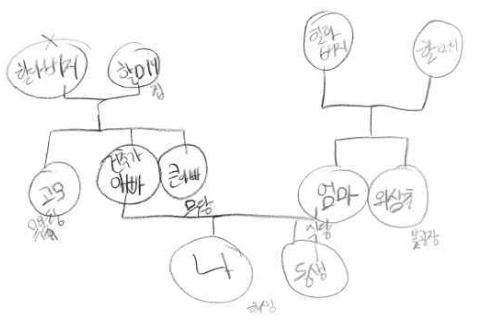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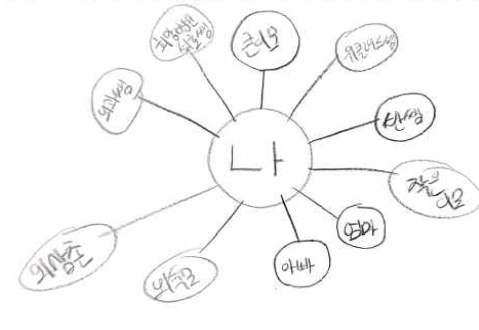
하고 싶지 않은
진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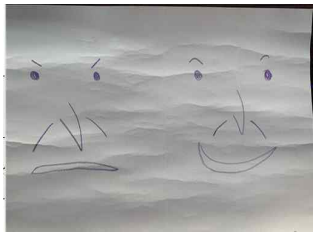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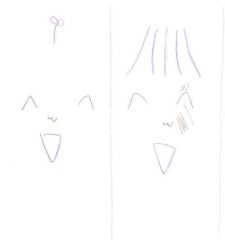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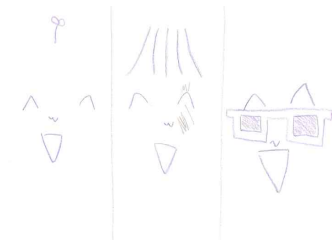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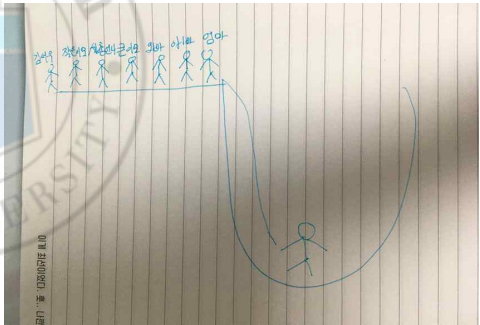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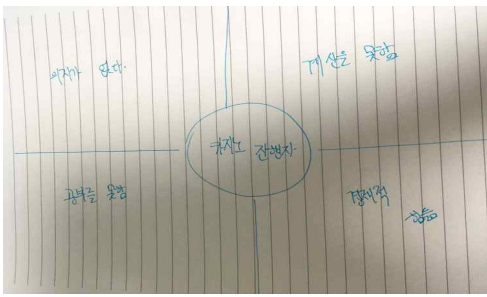

8 회 기



나의 진로 계단

나의 명함

연구참여자 D			
1 회 기			
	길 그림	현재 사진	미래사진
2 회 기			
	동물 그림	보여지는 나	내 안의 나
3 회 기			
			
	가계도	주변 어른 관계도	

연구참여자 D			
4 회 기			
	주인공의 감정변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공경험
5 회 기	1. 매력적인 2. 솔직한 3. 명랑한 4. 친밀한 5. 자주적인 6. 사이좋은 7. 에너지 넘치는 8. 세심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한테 자주 짜증내는 것 	
	집단원들이 찾아준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6 회 기			
	진로 장벽 터뜨리기	응덩이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로 장벽	진로 장벽 극복하기		

연구참여자 D

7 회 기

	가치	투자 금액	닉신금액
1	합격	15	
2	자유	15	
3	건강	20	
4	책임감	20	207여
5	성취	30	307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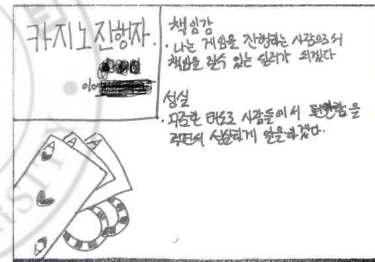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

하고 싶은
진로분야

하고 싶지 않은
진로분야

8 회 기



나의 진로 계단

나의 명함